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이경희 · 이지은 · 정현상 · 권익성 · 김홍준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경희)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제27차 조사의 개요	(이지은) 5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5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7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1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11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18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21
1. 응답가구의 특성	21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22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25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25
2. 비성공가구의 특성	28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31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35
1.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의 개요	35
2. 09통합표본 특성	37
3. 18통합표본 특성	42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권익성)	47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47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3
1. 가구주의 특성		53
2. 가구원의 특성		56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6
제4장 가계경제	(권익성)	61
제1절 가구소득		62
1. 가구의 총소득		63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4
제2절 가구지출		67
1. 생활비		68
2. 저 축		70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72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73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74
2. 주택의 종류		77
3. 주거지의 선택		78
제4절 자산 및 부채		80
1. 부동산자산		80
2. 금융자산		82
3. 가구의 부채		85
제5절 자녀 교육비		86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정현상)	89
제1절 경제활동 상태		89

제2절 취업자의 특성	94
제3절 미취업자	100
1. 구직활동	100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102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김홍준)	104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104
제2절 근로시간	108
1. 평균근로시간	109
2. 초과근로시간	112
제3절 임 금	113
1.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	113
2. 월평균 임금	115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9
1. 비정규직의 규모	120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22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김홍준)	123
제1절 종사상 지위	124
제2절 근로시간	126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27
2. 주당 근로시간	128
제3절 월평균 소득	131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35
제8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이지은)	137

제9장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 결과 분석	(이경희)	144
제1절 연구 개요		144
제2절 분석 결과		145
1. 전 체		145
2. 특성별		148
제3절 소 결		157

표 목 차

〈표 2- 1〉 연도별 조사 결과(98표본)	6
〈표 2- 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8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11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 조사) 분포(98표본)	13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98표본)	15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98표본)	16
〈표 2- 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98표본)	19
〈표 2- 8〉 지역별 원표본 가구 유지율(98표본)	20
〈표 2- 9〉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98표본)	22
〈표 2-10〉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98표본)	24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98표본)	26
〈표 2-12〉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98표본)	27
〈표 2-13〉 연도별 비성공 사유(98표본)	29
〈표 2-14〉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98표본)	30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98표본)	32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98표본)	34
〈표 2-17〉 연도별 조사 결과(09통합표본)	38
〈표 2-18〉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09통합표본)	39
〈표 2-19〉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09통합표본) ...	40
〈표 2-20〉 연도별 분가가구 수(09통합표본)	41
〈표 2-21〉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09통합표본)	42
〈표 2-22〉 연도별 조사 결과(18통합표본)	43
〈표 2-23〉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8통합표본)	44
〈표 2-24〉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통합표본) ...	44
〈표 2-25〉 연도별 분가가구 수(18통합표본)	45

〈표 2-26〉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18통합표본)	45
〈표 3- 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09통합표본)	49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09통합표본)	50
〈표 3- 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09통합표본)	52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09통합표본)	54
〈표 3- 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09통합표본)	55
〈표 3- 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09통합표본)	57
〈표 3- 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09통합표본)	58
〈표 3- 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09통합표본)	59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09통합표본)	64
〈표 4- 2〉 16차(2024)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09통합표본)	65
〈표 4- 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09통합표본)	68
〈표 4- 4〉 16차(202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09통합표본)	69
〈표 4- 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여부 및 월평균 저축액 (09통합표본)	71
〈표 4- 6〉 16차(2024)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09통합표본)	72
〈표 4- 7〉 16차(2024)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09통합표본)	73
〈표 4- 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09통합표본)	75
〈표 4- 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09통합표본)	78
〈표 4-10〉 16차(2024)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 (09통합표본)	79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81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83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09통합표본)	85

〈표 4-14〉 16차(2024)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09통합표본)	87
〈표 4-15〉 16차(2024)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09통합표본)	87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09통합표본)	90
〈표 5- 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09통합표본)	91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94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95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96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97
〈표 5- 7〉 16차(202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09통합표본)	98
〈표 5- 8〉 16차(202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09통합표본)	99
〈표 5- 9〉 16차(2024) 특성별 구직방법(09통합표본)	101
〈표 5-10〉 16차(2024)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09통합표본)	103
〈표 6- 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09통합표본)	105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107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109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4년)	110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4년)	110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2024년)	111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09통합표본, 2024년)	112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09통합표본, 2024년)	114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09통합표본, 2024년)	114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09통합표본)	116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4년)	117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4년)	117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09통합표본, 2024년)	118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09통합표본, 2024년)	120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09통합표본)	124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09통합표본)	125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126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09통합표본, 2024년)	127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09통합표본)	129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09통합표본, 2024년)	130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09통합표본, 2024년)	131
〈표 7- 8〉 월평균 소득 비교(09통합표본)	132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09통합표본, 2024년)	133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09통합표본, 2024년)	134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09통합표본, 2024년)	134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09통합표본, 2024년)	135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09통합표본, 2024년)	136
〈표 8- 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18통합표본)	138
〈표 8- 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18통합표본)	139
〈표 8- 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18통합표본)	140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18통합표본)	142
〈표 9- 1〉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27차)	146
〈표 9- 2〉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17차 및 27차)	147
〈표 9- 3〉 취업상태별 시간 사용(27차)	148
〈표 9- 4〉 취업상태별 수면 시간(27차)	150
〈표 9- 5〉 취업자 통근 시간(27차)	150
〈표 9- 6〉 취업자 주된 취업활동 시간(27차)	151
〈표 9- 7〉 연령대별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시간(27차)	155

그림목차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98표본)	25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98표본)	33
[그림 2-3]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의 개요	36
[그림 3-1] 16차(2024)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09통합표본)	51
[그림 4-1] 16차(2024)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09통합표본)	65
[그림 4-2] 16차(2024)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09통합표본)	71
[그림 4-3] 16차(2024)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09통합표본)	76
[그림 4-4] 16차(2024)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09통합표본)	76
[그림 4-5] 16차(2024)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09통합표본)	77
[그림 4-6] 16차(2024)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09통합표본)	82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 (09통합표본)	84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24년) ...	92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24년)	93
[그림 5-3] 16차(2024) 미취업자의 구직방법(09통합표본)	100
[그림 5-4] 16차(2024) 성별 평균 희망임금(09통합표본)	103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106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106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09통합표본, 2024년)	121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4년) ...	122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4년)	130
 [그림 9-1] 취업자의 주된 취업활동 시간(17차 및 27차)	151
[그림 9-2] 성별 주된 취업활동 시간(17차 및 27차)	152
[그림 9-3] 성별 가사활동 시간(17차 및 27차)	153
[그림 9-4] 성별 자녀돌봄 시간(17차 및 27차)	154
[그림 9-5] 연령대별 자녀돌봄 시간(27차)	155
[그림 9-6] 연령대별 교제활동 시간(27차)	156

요 약

○ 본 보고서의 목적

- 제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임.
-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4년 제27차 조사가 완료되었음. 제27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였음.

1. KLIPS 27차 조사의 개요

○ 27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98표본 기준,

- 조사성공가구는 총 5,894가구로 원표본 2,983가구와 분가한 2,911가구이고,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935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11,707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228명임.
-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 유지율은 59.7%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0.9%포인트 하락,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27차년도 4,414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67.6%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함.

○ 응답 형태를 살펴보면,

-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3.6%임.
- 계속응답가구의 비율은 원가구 대비 37.3%이고, 1차 조사 당시 원

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원표본가구원 대비 계속응답개인의 비율은 16.3%임.

-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이사추적 실패'가 69.9%, '강력 거절'이 22.3%로 나타나, 향후 KLIPS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이사가구를 어떻게 추적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09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축적된 09통합표본은 1차년도 6,721가구로 시작되어 09통합 16차년도(2024년도)에는 원가구 5,064가구, 분가가구 1,770가구의 조사에 성공함.
-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6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75.3%로 표본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개인 응답자는 13,699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13,472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277명임.

○ 18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18년부터 축적된 18통합표본은 1차년도 12,134가구로 시작되어 18통합 7차년도(2024년도)에는 원가구 10,483가구, 분가가구 956가구의 조사에 성공함.
- 1차년도 원가구(12,134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7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86.4%이고, 개인 응답자는 22,738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22,352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386명임.

2.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 평균 가구원 수는 2.5인이고, 1인 가구의 비중이 30.2%로 가장 높음.
- 세대별로 보면, 2세대 가구가 약 48.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30.2%임.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 남성이 73.1%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음.
 - 평균연령은 48.9세이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각각 25.5%와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1.8%로 가장 낮음.
- 가구의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 1~16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는 총 2,568명이며, 16차년도 출생아는 66명으로 남아가 32명(48.5%), 여아가 34명(51.5%)임.
 - 1~16차년도 기간 동안 총 1,234명이 사망하였고, 16차년도 사망자는 73명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6.2세임.

3. 가계경제

-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 16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6,116만 원(월평균 약 51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5차년도에 비해 150만 원 감소한 5,480만 원임.
- 월평균 생활비 및 저축에 대해 살펴보면,
-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1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조사 이후 처음으로 1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13차년도 이후 다시 상승 추세임.

-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9.9%이고, 월평균 저축액은 77만 3,000원임.

○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를 살펴보면,

-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27.3%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는 경우는 27.4%임.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6.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3.8%, 87.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 형태 및 비용을 살펴보면,

- 입주형태의 분포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61.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월세가 17.8%로 전세(15.9%)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도 지역이 서울의 약 2.5배, 광역시의 약 1.7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지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8억 2,174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서울의 43% 정도에 해당하는 3억 6,253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억 5,658만 원임.

○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7.5%로 전년도(17.0%)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함.
-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 시가총액이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음.

○ 금융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7.9%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3차년도까지 증가한 다음,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81.4%임.
-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6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148만 원이 증가하여 5,973만 원임.

○ 부채를 살펴보면,

-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3%였다가 2차년도에는 3.8%포인트 증가한 56.1%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6차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61.9%로 조사됨.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살펴보면,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는 28.4%, 만 6세~재수생 이하는 81.1%이며, 대학생 이상은 9.8%임.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0세~만 5세 이하는 78.1%, 만 6세~재수생 이하는 52.9%, 대학생 이상은 83.0%).
-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60만 5,000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49만 1,000원), 만 6세~재수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87만 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58만 7,000원)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연평균 1,201만 7,000원(자녀당 연평균 1,024만 7,000원)임.
-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24.6%, 만 6세~재수생 자녀의 경우에는 73.4%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75.6%임.

4.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 조사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하면,

- 09통합패널 1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16차년도(2024년)의 경우 58.5%로 조사됨.
- 실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2.6%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16차년도에는 1.0%로 하락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6차년도에 40.5%를 보임.

5. 임금근로자의 특성

-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920명으로, 취업자의 77.1%임.
- 특성별로는 학력별로 대졸(36.1%), 연령별로 40대(22.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35.3%), 직종별로는 생산직(30.2%)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임금근로자의 16차(2024)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성(41.0시간)이 여성(37.3시간)보다 장시간 근로하며, 30대(41.0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음. 또한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40.9, 40.1시간으로 길게 나타남.
-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9.7%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당 평균초과근로시간은 6.6시간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대부분(97.5%)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급제의 비중(79.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봉계약제의 비중(13.0%)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16차(2024)년도 월평균 임금은 319만 6,000원임.
- 여성의 월평균 임금(241만 9,000원)이 남성(369만 6,000원)의 66.1%에 불과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월평균 임금(392만 1,000원)이 가장 높았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임금이 증

가함.

- 산업별 및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수도업(464만 6,000원)과 전문관리직(376만 1,000원)이 가장 높았음.
- 종업원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477만 3,000원),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444만 3,000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음.
- 16차(2024)년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4.9%임.
- 유형별 비중은 한시적근로자(27.9%), 시간제근로자(13.2%), 그리고 비전형근로자(8.0%)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42.2%)이 남성(28.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중(21.7%)은 남성(6.4%)의 3배 이상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23만 8,000원)은 정규직의 6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6.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는 2,011명으로 취업자의 22.9%임.
- 각 종사상 지위의 비중은 자영업자(64.8%), 고용주(21.5%),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13.8%)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의 16차(2024)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5일로 평균근로시간은 43.2시간으로 조사됨.
- 1차(2009)년도 52.0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임.
- 비임금근로자의 16차(2024)년도 월평균 소득은 419만 8,000원임.
- 1차(2009)년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 16차(2024)년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비임금근로자의 84.4%가

창업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89.0%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7.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 18통합 5차부터 7차(조사년도 2022~2024년)까지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하여,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이동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함.
- 2023년 취업자 중 2024년에 계속 취업상태로 남아 있을 확률은 94.2%, 실업이 될 확률은 0.7%,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할 확률은 5.2%임.
-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남성 : 95.6%, 여성 : 92.2%),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음(남성 : 3.8%, 여성 : 7.1%).
- 연령별로는 취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40대(96.5%), 50대(95.3%), 30대(95.1%), 20대(91.7%) 순으로 높고, 60대가 90.0%로 가장 낮음.
- 학력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취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중졸 이하(89.6%), 고졸(94.5%), 전문대졸(94.6%), 대졸 이상(95.9%) 순으로 나타남.

8.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 결과 분석

-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배분 실태와 변화, 특성별 차이를 분석함.
- 27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는 크게 수면, 취업활동, 여가활동의 세 영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평일과 주말 간

의 시간 배분에는 뚜렷한 구조적 차이가 나타남.

- 평일에는 근로와 통근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활동이 하루 중 상당 부분(약 4.85시간)을 차지하는 반면, 주말에는 일자리 관련 활동 비중이 급감하고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근로-휴식’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나타남.
- 특히 일요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333.7분(약 5.6시간)으로, 평일 대비 약 1.4배 확대되며 주중의 제한된 여가를 주말에 보충하는 생활 패턴을 보임.
- 수면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휴식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는 ‘회복적 수면 패턴’을 시사함.

○ 17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최근 10년간 시간 사용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시간 감소와 여가 및 교제 활동 확대가 두드러짐.

- 지난 10년간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평일 기준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320.2분(5.3시간)에서 257.5분(4.3시간)으로 1시간(약 20%) 감소하였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점진적 정착, 주 5일제의 보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워라벨’ 의식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교제활동은 평일 기준 35분에서 102.2분으로, 일요일 기준 79.1분에서 167.1분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족·친지와 교제 시간 확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족 중심 생활방식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자녀돌봄 및 가사활동 시간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가족 내 무급노동 부담이 구조적으로 여전히 완전히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응답자 특성 중 취업상태별 결과를 보면, 취업 여부에 따라 개인의 생활 시간 구성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 27차 조사 결과, 취업자는 평일 기준 하루 7시간 40분가량을 주된

취업활동에, 55분을 통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반면, 미취업자는 여가활동(5시간 42분)과 학업·자기개발(약 2시간(114.9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

- 취업자의 주된 취업활동 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27차 평일 기준 8시간 일하는 취업자가 50.8%로 가장 많고 10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는 2.4% 존재함. 10년 전(17차) 대비 전체적인 취업활동 시간, 특히 주말근로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 경향이 나타남.

- 한편, 수면시간은 미취업자가 더 길고, 취업자의 경우 27차 평일 기준 23.5%가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강도(여부)와 권장수면 부족 간의 연관성을 시사함. 반면 주말에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며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 구조는 전반적으로 전통적 역할 구분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임.

- 여성은 가사·자녀돌봄 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남성은 취업활동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의 취업활동 감소폭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등 성 역할 분업 구조가 완만하게나마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청년층은 여가·관계 중심, 중장년층은 일·가정 병행, 고령층은 휴식·가족 중심으로 전환되는, 생애주기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대는 친구·사회적 네트워크 중심의 교제, 30~50대는 직장 중심 교제가 활발하며, 30~40대는 자녀돌봄 시간 역시 최고 수준임.

- 가족 및 친지와 교제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길어지며,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상의 시간사용 조사결과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이 과거의 '노동

중심 구조'에서 점차 '여가·가족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보여줌.

-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정착, 워라벨 인식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나, 성별 및 취업상태에 따른 시간 사용 격차는 여전히 상당함.
- 특히 가사·돌봄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는 10년 전보다 개선되었으나 기본적인 부담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통근 부담과 일부 초과근로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 단축된 근로시간이 시간사용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본 결과는 개인 및 가족의 시간 활용 방식과 삶의 질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노동, 가족, 여가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4년에 제27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KLIPS는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생산·점검·관리·공개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 수행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19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이번 제27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2,983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59.7%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표 2-1 참조).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된다. 기본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시대적 상황 및 KLIPS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

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KLIPS는 패널자료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KLIPS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 현장을 조사원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기법의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KLIPS는 학술대회 특별세션 또는 데이터 워크숍을 통해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방법론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쉽게 설명하여 패널자료 연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 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품질 개선과 패널자료 분석의 활성화를 위한 KLIPS의 노력은 한국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촉진하고 학제 간 연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LIPS 유저가이드 및 홈페이지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FAQ는 KLIPS의 사용·분석 등 활용 전반에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27개 질문 위주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KLIPS 자료 정제 및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는 통계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SAS와 SPSS, STATA로 삼원화하여 제공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R 사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반영하여 R 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노동패널 홈페이지에 데이터

활용이라는 폴더를 신설하여, 통계 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노동패널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들로부터의 제언을 바탕으로 FAQ 내용 및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FAQ의 개선 및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KLIPS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의 연장선에서 한국노동패널팀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 및 가구 데이터의 변수를 선택하고, 변수들의 연도별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STATA 버전의 SMART_KLIPS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였다. 2021년부터는 STATA 통계 프로그램이 없어도, 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도별·변수별 결합이 가능한 자료추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 설문구조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제27차 조사 전반에 대해 개괄하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KLIPS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제6장과 제7장은 개별 근로자의 노동 상태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로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동학(dynamics) 분석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제9장은 27차 부가조사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27차년도(1998~2024년) 자료이다. 세부적으로 조사 개요 부분인 제2장은 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98표본, 09통합표본, 18통합표본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7장은 전국 단위의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09통합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8장은 최근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표본 수가 가장

4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많은 18통합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9장 부가조사 분석 시에는 모든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제27차 조사의 개요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¹⁾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1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 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는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1)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승인번호 : 33601).

6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표 2-1〉 연도별 조사 결과(98표본)

(단위 : 가구, %, 명)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19	6~10월
2차('99)	5,000	4,507	4,378	87.6	87.6	129	12,034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4	4~10월
4차('01)	5,000	4,247	3,866	77.3	77.3	381	11,046	4~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1	4~10월
6차('03)	4,991	4,592	3,862	77.2	77.4	730	11,535	5~10월
7차('04)	4,947	4,761	3,862	77.2	78.1	899	11,656	5~10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79	4~10월
9차('06)	4,914	5,001	3,820	76.4	77.7	1,181	11,752	4~11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1	4~ 9월
11차('08)	4,862	5,116	3,710	74.2	76.3	1,406	11,732	4~10월
12차('09)	4,833	5,306	3,658	73.2	75.7	1,648	11,739	3~11월
13차('10)	4,803	5,379	3,607	72.1	75.1	1,772	11,582	7~12월
14차('11)	4,787	5,404	3,528	70.6	73.7	1,876	11,376	7~익년 2월
15차('12)	4,771	5,469	3,517	70.3	73.7	1,952	11,442	6~12월
16차('13)	4,742	5,501	3,472	69.4	73.2	2,029	11,329	6~12월
17차('14)	4,742	5,549	3,451	69.0	72.8	2,098	10,752	3~10월
18차('15)	4,702	5,624	3,420	68.4	72.7	2,204	11,433	4~11월
19차('16)	4,687	5,691	3,386	67.7	72.2	2,305	11,618	4~11월
20차('17)	4,670	5,734	3,348	67.0	71.7	2,386	11,839	4~11월
21차('18)	4,634	5,761	3,299	66.0	71.2	2,462	11,835	3~익년 1월
22차('19)	4,604	5,777	3,254	65.1	70.7	2,523	11,818	4~11월
23차('20)	4,561	5,771	3,191	63.8	70.0	2,580	11,738	5~익년 2월
24차('21)	4,533	5,783	3,139	62.8	69.2	2,644	11,726	4~11월
25차('22)	4,496	5,807	3,076	61.5	68.4	2,731	11,882	4~12월
26차('23)	4,463	5,875	3,028	60.6	67.8	2,847	11,976	4~11월
27차('24)	4,414	5,894	2,983	59.7	67.6	2,911	11,935	4~ 9월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2024년에 실시된 제27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2,983가구 및 분가한 2,911가구를 합하여 총 5,894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59.7%로 전년도에 비하여 0.9%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1,935명이다.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 세트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매해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시의성을 보완하였다.

〈표 2-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원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장년층, 삶의 인식(18차) 청년층 조사(19차) 의사결정(20차) 고용형태(21차) 비임금근로자(22차) 코로나19(I)(23차) 코로나19(II)(24차) 코로나19(III)(25차) 건강(26차) 시간 사용(27차)
직업력 자료	KLIPS_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다음으로 KLIPS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9차 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모드 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차 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 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1,415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²⁾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 추가에 따라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21차 조사)에는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발생한 표본 탈락을 보완하기 위해 5,044가구의 표본 추가를 실시하여,³⁾ 18통합표본에서는 12,134가구와 그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23,972명이 조사되었다. 표본을 추가하기에 앞서,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예비조사⁴⁾를 실시하여, 6,034가구를 구축하였다. 이 중 2018년 조사에서 이사 후 추적 실패, 조사 거절 등의 이유로 4,334가구(6,034가구 대비 72%)만 18통합표본에 포함되었고, 추가 표본을 확대하기 위해 710가구를 추가하여, 총 5,044가구의 신규 표본이 구축되었다.

2019년(22차 조사) 면접조사의 한계로 지적되는 이사추적 실패 및 방문 면접 거절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웹조사인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조사 방법을 시범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노동패널팀에서는 2개년 동안 CAPI와 CAWI의 조사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연구⁵⁾를 진행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CAWI 조사가 CAPI 조사에 비해 조사 대상 가구원 대비 응답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응답자의 연령이 낮으며, 대리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2) 2009년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 기술하였다.

3) 2018년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 기술하였다.

4) 2017년 예비조사는 추가표본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노동패널 본 설문(가구설문, 개인설문, 유형설문)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간략한 가구 정보와 가구원 정보만을 수집하였다.

5) CAPI와 CAWI 조사 효과 실험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7),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VII)』 제7장 「웹을 활용한 조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노동패널 CAWI 실험 데이터의 분석」(이지은·신선옥·이혜정·김기홍 저술)과 김유빈 외(2018),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VIII)』 제3장 「웹을 활용한 조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II: 노동패널 CAWI 1차, 2차실험 연구 결과 분석」(이지은·이혜정·신선옥·정현상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조사에서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모두 현행대로 CAPI 조사방법을 유지하되, CAPI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만 CAWI 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도(24차)조사 공개 시에는 자료 추출 시스템⁶⁾을 도입하였다. 자료 추출 시스템이란 노동패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료의 연도별 · 자료별 · 변수별 결합을 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구데이터와 개인데이터, 부가데이터를 결합하여 한 개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하는 것이다.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때, 원하는 차수와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패널 데이터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노동패널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22년도에는 행정자료와의 가명정보 결합을 시도하였다. 노동패널과 같은 조사 자료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취합된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자료의 확장성 면에서 취약하다. 행정자료의 결합을 통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응답 항목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다.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자료를 가명 처리하고, 가명 처리된 자료들 간의 결합을 가명정보의 결합이라 한다. 노동패널팀은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⁸⁾와, 2023~20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⁹⁾ 결합을 진행하였다.

6) 웹조사와 기존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이 검증은 김유빈 외(2020),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 제5장 「웹을 활용한 조사 자료 검증: 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이지은·채민희 저술); 장인성 외(2021),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 제5장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증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 비교」(이지은·채민희 저술)를 참고하기 바란다.

7) 노동패널 자료추출 시스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kli.re.kr/menu.es?mid=a40401000000>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와의 결합은 장인성 외(2022),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I)』 제2장 「가명정보 결합 가능성 검증 연구: 노동패널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결합을 중심으로」(이지은·정현상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9)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자료와의 가명정보 결합은 이경희 외(2023),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II)』 제2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제고 방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의 결합과정을 중심으로」(정현상·권익성 저술); 이경희 외(2024),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조사 연혁
1차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10차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11차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12차	2009년 노동패널 1,415가구 표본 추가
21차	2018년 노동패널 5,044가구 표본 추가
22차	2019년 노동패널 실사 CAWI 시범 도입
24차	2021년 자료 추출 시스템 도입
25차	2022년 가명정보 결합 시행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¹⁰⁾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7차년도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을 반드시 직접면접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 작성은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V)』 제2장 「가명정보 결합자료를 활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장정책 분석 제고 방안」(정현상·권익성 저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li.re.kr/klips>)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전화로 실시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 개인용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 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도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 조사에서 전년 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 조사) 분포(98표본)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유치 +전화	웹조사
1차('98)	13,319	96.5	64.4	21.8	1.5	2.6	3.7	2.6	0.1	-
2차('99)	12,034	100.0	77.8	7.6	7.4	4.7	2.5	0.1	0.0	-
3차('00)	11,204	99.8	83.0	5.1	5.3	3.9	1.5	0.9	0.2	-
4차('01)	11,046	100.0	83.7	3.4	4.6	4.9	1.2	1.8	0.5	-
5차('02)	10,961	100.0	83.8	2.6	3.9	6.4	1.0	1.0	1.3	-
6차('03)	11,535	100.0	86.3	1.7	3.8	5.7	0.9	1.3	0.4	-
7차('04)	11,656	100.0	88.0	1.7	4.1	3.7	0.4	1.6	0.5	-
8차('05)	11,579	100.0	85.4	1.6	2.8	6.1	1.4	1.7	1.0	-
9차('06)	11,752	100.0	89.7	1.5	2.9	2.8	0.7	2.3	0.3	-
10차('07)	11,851	100.0	91.3	1.1	3.2	3.1	0.6	0.6	0.1	-
11차('08)	11,732	100.0	95.7	0.6	1.8	1.3	0.3	0.2	0.1	-
12차('09)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
13차('10)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
14차('11)	11,376	100.0	93.0	0.8	3.2	2.2	0.4	0.3	0.1	-
15차('12)	11,442	100.0	93.6	0.4	4.5	1.3	0.1	0.0	0.0	-
16차('13)	11,329	100.0	95.2	0.5	3.0	1.1	0.1	0.1	0.0	-
17차('14)	10,752	100.0	96.6	0.3	2.3	0.7	0.1	0.1	0.0	-
18차('15)	11,433	100.0	95.2	0.5	3.2	0.9	0.2	0.1	0.1	-
19차('16)	11,618	100.0	96.4	0.4	2.0	0.7	0.4	0.0	0.0	-
20차('17)	11,839	100.0	96.7	0.3	2.2	0.4	0.4	0.0	0.0	-
21차('18)	11,835	100.0	93.8	0.3	4.8	0.6	0.4	0.0	0.1	-
22차('19)	11,818	99.9	96.2	0.3	2.7	0.5	0.1	0.0	0.0	0.2
23차('20)	11,738	99.6	78.6	0.5	19.6	0.6	0.2	0.0	0.0	0.4
24차('21)	11,726	99.5	75.9	0.3	22.4	0.7	0.1	0.0	-	0.5
25차('22)	11,882	99.7	85.4	0.7	12.4	0.7	0.5	0.0	0.0	0.3
26차('23)	11,976	99.5	90.0	0.5	7.8	0.6	0.5	0.1	0.0	0.5
27차('24)	11,935	99.5	90.0	0.4	8.1	0.4	0.3	0.3	0.0	0.5

주: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차조사에서 웹조사가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어 매해 0.2~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3~25차 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접조사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었다. 평균 3~4%이던 전화조사 응답비율이 23차 19.6%, 24차 22.4%까지 증가하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던 패널의 응답을 이끌어냈다.¹¹⁾ 25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안정화로 전화조사로 응답하였던 패널들을 다시 면접조사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여, 24차년도 22.4%에 달했던 전화조사의 비율을 27차년도 8.1%로 감소시켰다.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대리 응답의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7회로 측정되었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63.1%, 2~3회 방문이 2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다만 25차, 26차에 2회 이상 방문 비율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4차에 전화로 응답하였던 패널들을 방문조사로 설득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KLIPS 각 연도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11) 코로나19로 인한 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의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인성 외(2021),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XI)』 제5장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 결과 검증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웹조사 비교」(이지은·채민희 저술)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98표본)

(단위: 명, %)

	개인 응답자 수	전체 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98)	13,319	94.1	74.0	19.7	0.4
2차('99)	12,034	100.0	88.7	11.3	-
3차('00)	11,204	100.0	88.3	8.1	3.6
4차('01)	11,046	99.8	83.3	11.0	5.5
5차('02)	10,961	100.0	83.8	9.8	6.4
6차('03)	11,535	100.0	83.1	11.2	5.8
7차('04)	11,656	100.0	85.7	9.7	4.7
8차('05)	11,579	100.0	87.3	5.0	7.7
9차('06)	11,752	100.0	90.0	3.0	7.1
10차('07)	11,851	100.0	90.7	5.6	3.7
11차('08)	11,732	100.0	91.7	5.8	2.6
12차('09)	11,739	100.0	91.4	4.0	4.6
13차('10)	11,582	100.0	93.3	3.9	2.8
14차('11)	11,376	100.0	92.9	4.7	2.4
15차('12)	11,442	100.0	94.5	3.5	2.0
16차('13)	11,329	100.0	94.4	3.6	2.0
17차('14)	10,752	100.0	95.2	3.5	1.4
18차('15)	11,433	100.0	94.9	2.9	2.3
19차('16)	11,618	100.0	96.3	2.2	1.5
20차('17)	11,839	100.0	96.4	2.5	1.1
21차('18)	11,835	100.0	95.7	2.4	2.0
22차('19)	11,818	100.0	96.2	2.3	1.6
23차('20)	11,738	100.0	95.0	2.9	2.1
24차('21)	11,726	100.0	94.6	2.8	2.6
25차('22)	11,882	100.0	93.9	2.6	3.5
26차('23)	11,976	100.0	93.7	2.2	4.1
27차('24)	11,935	100.0	93.6	2.7	3.7

주: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이다.

16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98표본)

(단위: 회, %)

	사례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98)	5,000	2.4	1.6	38.1	42.1	14.9	5.0	100.0
2차('99)	4,507	2.3	1.6	41.7	40.5	11.7	6.2	100.0
3차('00)	4,266	2.6	2.0	34.2	43.2	15.4	7.3	100.0
4차('01)	4,247	3.0	2.2	27.3	42.2	19.8	10.7	100.0
5차('02)	4,298	2.6	1.7	31.2	43.7	19.3	5.9	100.0
6차('03)	4,592	2.9	1.9	28.1	39.9	22.3	9.7	100.0
7차('04)	4,761	3.0	2.0	26.3	40.9	21.0	11.8	100.0
8차('05)	4,849	3.3	2.1	22.6	38.4	23.9	15.2	100.0
9차('06)	5,001	3.0	1.9	23.8	42.4	24.1	9.6	100.0
10차('07)	5,064	2.6	1.8	34.4	39.6	18.9	7.2	100.0
11차('08)	5,116	2.3	1.4	39.4	43.5	14.2	3.0	100.0
12차('09)	5,306	1.3	0.8	79.7	17.4	2.5	0.4	100.0
13차('10)	5,379	1.3	0.8	79.1	18.3	2.4	0.3	100.0
14차('11)	5,404	1.3	0.8	78.8	18.1	2.4	0.7	100.0
15차('12)	5,469	1.4	0.9	75.1	21.7	2.3	0.9	100.0
16차('13)	5,501	1.2	0.6	86.8	12.1	0.9	0.2	100.0
17차('14)	5,549	1.5	1.0	71.1	24.6	3.6	0.7	100.0
18차('15)	5,624	1.3	0.8	78.7	19.3	1.5	0.5	100.0
19차('16)	5,691	1.3	0.7	76.8	21.1	1.9	0.1	100.0
20차('17)	5,734	1.2	0.6	88.0	10.7	1.0	0.2	100.0
21차('18)	5,759	1.4	0.8	70.6	26.9	2.1	0.4	100.0
22차('19)	5,777	1.2	0.6	84.4	13.9	1.5	0.2	100.0
23차('20)	5,762	1.2	0.6	87.9	10.7	0.9	0.5	100.0
24차('21)	5,783	1.2	0.6	87.0	11.8	1.0	0.2	100.0
25차('22)	5,807	1.7	1.1	61.6	31.8	5.1	1.6	100.0
26차('23)	5,875	1.8	1.4	63.7	26.8	5.5	4.0	100.0
27차('24)	5,894	1.7	1.1	63.1	28.5	7.3	1.1	100.0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

였으나, 다음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매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1~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치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KLIPS는 전년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도를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 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16차년도에는 조사 주체가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17차년도부터는 조사 시작 시점이 다시 3·4월로 앞당겨졌다. 23차 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응답자가 대면조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조사가 매우 어려웠으나, 일정 정도의 조사 성공률을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를 넘겨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근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라 4~8월 사이 26차에는 84.8%, 27차에는 97.5%를 완료하였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8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차년도 KLIPS의 총응답가구는 5,894가구이며, 응답자 수는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935명이다(표 2-1 참조).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 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27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59.7%, 유효표본유지율은 67.6%였다(표 2-1 참조).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27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PSID(47.4%, 개인 기준¹²⁾)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 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¹³⁾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전남 한 곳만 7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대구가 55.1%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12) 자료 : Beale, April, Flannery Campbell, Mary Dascola, Noura Insolera, David Johnson, Paul Juska, Katherine McGonagle, Beth Simmert, and Jerry Warra(2019), *PSID Main Interview User Manual: Release 2019*,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1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에 성공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98표본)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 수
1차('98)	0.0	0.0	0.0	0.0	0.0	27.9	30.3	27.9	13.2	0.7	0.0	0.0	5,000
2차('99)	0.0	0.0	0.0	0.0	0.0	0.0	5.0	22.8	22.6	27.3	20.2	2.1	4,507
3차('00)	0.0	0.0	0.0	0.2	15.1	28.1	26.1	23.6	5.2	1.7	0.0	0.0	4,266
4차('01)	0.0	0.0	0.0	1.6	16.1	27.2	15.7	23.3	13.0	3.2	0.0	0.0	4,247
5차('02)	0.0	0.0	0.0	4.7	31.3	25.9	26.4	7.2	4.4	0.1	0.0	0.0	4,298
6차('03)	0.0	0.0	0.0	0.0	12.7	25.6	30.1	21.3	10.2	0.0	0.0	0.0	4,592
7차('04)	0.0	0.0	0.0	0.0	16.7	26.4	24.8	21.1	10.8	0.2	0.0	0.0	4,761
8차('05)	0.0	0.0	0.0	13.9	23.8	24.0	20.1	12.1	5.9	0.3	0.0	0.0	4,849
9차('06)	0.0	0.0	0.0	8.1	25.4	20.5	20.9	14.6	8.6	1.8	0.0	0.0	5,001
10차('07)	0.0	0.0	0.0	14.4	27.0	26.9	20.7	8.3	2.8	0.0	0.0	0.0	5,069
11차('08)	0.0	0.0	0.0	8.7	27.9	23.8	21.0	9.7	4.3	4.6	0.0	0.0	5,116
12차('09)	0.0	0.0	0.5	35.7	31.7	12.4	9.3	5.2	3.8	1.4	0.0	0.0	5,306
13차('10)	0.0	0.0	0.0	0.0	0.0	0.0	7.7	33.9	19.1	28.6	8.8	2.0	5,379
14차('11)	0.3	0.2	0.0	0.0	0.0	0.0	2.2	39.8	19.8	20.4	16.1	1.3	5,404
15차('12)	0.0	0.0	0.0	0.0	0.0	0.9	32.7	28.5	19.1	10.5	6.4	2.0	5,469
16차('13)	0.0	0.0	0.0	0.0	0.0	7.5	29.4	21.3	16.4	15.7	6.5	3.2	5,501
17차('14)	0.0	0.0	19.1	31.9	24.9	17.1	3.9	1.6	1.5	0.1	0.0	0.0	5,549
18차('15)	0.0	0.0	0.0	6.9	29.2	18.7	21.8	13.2	3.7	4.0	2.6	0.0	5,624
19차('16)	0.0	0.0	0.0	16.5	31.2	20.6	16.6	8.1	2.6	2.9	1.6	0.0	5,691
20차('17)	0.0	0.0	0.0	32.6	24.6	18.3	14.2	6.1	1.8	1.3	1.2	0.0	5,734
21차('18)	0.0	0.0	0.5	0.0	7.3	22.4	20.4	17.5	9.3	8.0	14.7	0.0	5,761
22차('19)	0.0	0.0	0.0	18.5	24.2	18.4	10.6	7.8	6.7	7.2	6.6	0.0	5,777
23차('20)	2.6	0.1	0.0	0.0	16.7	26.4	20.3	11.4	8.2	5.7	3.4	5.4	5,771
24차('21)	0.0	0.0	0.0	5.7	26.1	22.9	18.0	10.4	5.2	6.9	4.8	0.0	5,783
25차('22)	0.0	0.0	0.0	4.7	26.0	23.3	15.0	12.4	6.9	5.5	5.8	0.4	5,807
26차('23)	0.0	0.0	0.0	14.7	25.8	16.0	15.9	12.5	7.0	6.2	2.0	0.0	5,875
27차('24)	0.0	0.0	0.0	21.9	32.8	19.9	15.8	7.1	2.5	0.0	0.0	0.0	5,894

주: 1) 1차년도는 조사월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2) 14차년도에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익년 1월에 16건, 익년 2월에 8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표 2-8〉 지역별 원표본 가구 유지율(98표본)

(단위 : 가구, %)

	원표본 수	2차 (’99)	3차 (’00)	4차 (’01)	5차 (’02)	6차 (’03)	7차 (’04)	8차 (’05)	9차 (’06)	10차 (’07)	11차 (’08)	12차 (’09)	13차 (’10)	14차 (’11)	15차 (’12)	16차 (’13)	17차 (’14)	18차 (’15)	19차 (’16)	20차 (’17)	21차 (’18)	22차 (’19)	23차 (’20)	24차 (’21)	25차 (’22)	26차 (’23)	27차 (’24)
전체	5,000	87.6	80.9	77.3	76.0	77.2	77.2	76.4	76.4	75.5	74.2	73.2	72.1	70.6	70.3	69.4	69.0	68.4	67.7	67.0	66.0	65.1	63.8	62.8	61.5	60.6	59.7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0	72.9	72.4	72.0	71.8	71.4	69.6	69.0	66.7	66.5	65.9	65.7	65.4	65.1	65.0	63.6	63.0	62.0	61.4	60.8	59.6	58.8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3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71.2	71.4	70.6	70.8	69.6	68.5	68.7	65.8	64.6	63.2	63.0	62.4
대구	314	84.1	72.0	67.5	71.0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65.9	65.9	65.3	63.7	63.4	62.7	60.5	60.2	59.2	58.6	56.4	55.1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0	64.7	66.0	64.1	66.0	66.7	67.3	66.7	66.7	64.7	63.4	63.4	62.1	58.8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5.2	75.5	77.5	75.5	74.5	73.5	73.8	72.8	72.2	70.5	69.8	69.8	69.8	69.1	67.1	65.4	64.8
광주	158	78.5	69.0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67.1	66.5	65.8	65.8	63.9	63.9	61.4	60.1	60.1	60.1	58.2	58.2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0	72.4	72.4	70.7	70.7	71.6	70.7	71.6	70.7	69.8	68.1	67.2	67.2	66.4	66.4
경기	856	90.2	80.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4.0	71.6	71.9	70.7	69.7	68.5	67.3	65.7	65.0	65.1	64.0	63.3	61.0	59.1	58.4	57.6
강원	130	87.7	86.2	73.9	65.4	63.9	67.7	71.5	73.9	75.4	75.4	72.3	70.0	71.5	70.0	65.4	66.9	65.4	63.1	64.6	63.1	60.0	62.3	61.5	57.7	56.9	56.2
충북	113	87.6	75.2	77.0	75.2	70.8	69.9	67.3	70.8	68.1	69.0	68.1	70.8	68.1	70.8	71.7	70.8	69.0	70.8	70.8	69.0	69.0	68.1	68.1	68.1	68.1	64.6
충남	131	91.6	87.8	84.0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77.1	75.6	74.8	74.8	74.8	72.5	71.8	68.7	67.2	65.7	67.2	64.9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4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72.4	71.9	69.4	69.4	67.3	66.8	65.8	63.8	64.3	61.8	60.8	59.3
전남	127	92.1	89.8	89.8	89.0	84.3	89.0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80.3	80.3	80.3	79.5	78.7	78.7	78.7	78.0	78.0	75.6	75.6	75.6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71.2	69.3	70.1	70.4	67.5	65.7	63.5	61.3	61.3	61.0	60.2	59.1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0	75.7	74.3	75.0	73.3	74.0	73.3	72.3	70.2	68.5	68.2	66.8	66.1	64.4	64.4	64.4

주 :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당해 연도 조사가가구 수/원표본가구 수)×100.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8,999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4,968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4,031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27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27회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이탈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는

〈표 2-9〉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98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559	6.2	183	3.7	376	9.3
2회	422	4.7	157	3.2	265	6.6
3회	388	4.3	153	3.1	235	5.8
4회	350	3.9	134	2.7	216	5.4
5회	286	3.2	121	2.4	165	4.1
6회	245	2.7	79	1.6	166	4.1
7회	232	2.6	79	1.6	153	3.8
8회	215	2.4	79	1.6	136	3.4
9회	229	2.5	85	1.7	144	3.6
10회	233	2.6	88	1.8	145	3.6
11회	215	2.4	86	1.7	129	3.2
12회	242	2.7	86	1.7	156	3.9
13회	199	2.2	63	1.3	136	3.4
14회	213	2.4	68	1.4	145	3.6
15회	244	2.7	59	1.2	185	4.6
16회	282	3.1	60	1.2	222	5.5
17회	185	2.1	68	1.4	117	2.9
18회	204	2.3	66	1.3	138	3.4
19회	218	2.4	77	1.5	141	3.5
20회	215	2.4	91	1.8	124	3.1
21회	247	2.7	110	2.2	137	3.4
22회	250	2.8	121	2.4	129	3.2
23회	226	2.5	141	2.8	85	2.1
24회	286	3.2	192	3.9	94	2.3
25회	297	3.3	247	5.0	50	1.2
26회	465	5.2	423	8.5	42	1.0
27회	1,852	20.6	1,852	37.3	-	0.0
전체	8,999	100.0	4,968	100.0	4,031	100.0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27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22,495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2,996명으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13.3%이며,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993명으로 5.3%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27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19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27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1,935명 중 69.7%인 8,323명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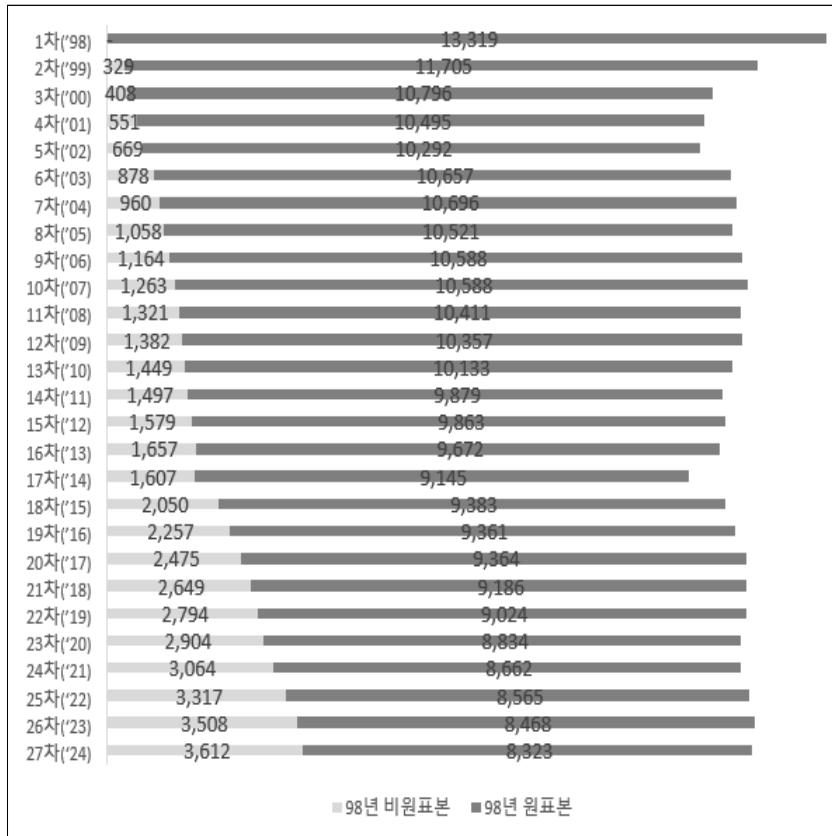
〈표 2-10〉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98표본)

(단위: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376	6.1	983	5.3	393	9.6
2회	1,244	5.5	855	4.6	389	9.5
3회	1,160	5.2	855	4.6	305	7.5
4회	1,058	4.7	821	4.5	237	5.8
5회	993	4.4	721	3.9	272	6.7
6회	858	3.8	624	3.4	234	5.7
7회	848	3.8	633	3.4	215	5.3
8회	791	3.5	610	3.3	181	4.4
9회	773	3.4	601	3.3	172	4.2
10회	754	3.4	577	3.1	177	4.3
11회	573	2.5	479	2.6	94	2.3
12회	597	2.7	471	2.6	126	3.1
13회	560	2.5	441	2.4	119	2.9
14회	572	2.5	452	2.5	120	2.9
15회	541	2.4	409	2.2	132	3.2
16회	473	2.1	344	1.9	129	3.2
17회	473	2.1	369	2.0	104	2.5
18회	449	2.0	345	1.9	104	2.5
19회	508	2.3	431	2.3	77	1.9
20회	483	2.1	381	2.1	102	2.5
21회	563	2.5	461	2.5	102	2.5
22회	567	2.5	470	2.6	97	2.4
23회	645	2.9	583	3.2	62	1.5
24회	740	3.3	675	3.7	65	1.6
25회	818	3.6	767	4.2	51	1.2
26회	1,082	4.8	1,056	5.7	26	0.6
27회	2,996	13.3	2,996	16.3	0	0.0
전체	22,495	100.0	18,410	100.0	4,085	100.0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98표본)

(단위: 명)



제5절 이사 및 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 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98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수 ¹⁾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원 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98)	5,000	-	-	5,000	0	-	-	-	-
2차('99)	4,378	709	16.2	4,378	709	16.2	-	0	-
3차('00)	4,142	481	11.6	4,044	464	11.5	98	17	17.3
4차('01)	4,111	703	17.1	3,864	603	15.6	247	100	40.5
5차('02)	4,189	742	17.7	3,798	619	16.3	391	123	31.5
6차('03)	4,437	1,053	23.7	3,862	798	20.7	575	255	44.3
7차('04)	4,619	903	19.5	3,862	629	16.3	757	274	36.2
8차('05)	4,723	732	15.5	3,822	457	12.0	901	275	30.5
9차('06)	4,862	882	18.1	3,820	533	14.0	1,042	349	33.5
10차('07)	4,953	781	15.8	3,775	458	12.1	1,178	323	27.4
11차('08)	5,027	785	15.6	3,710	440	11.9	1,317	345	26.2
12차('09)	5,174	629	12.2	3,658	275	7.5	1,516	354	23.4
13차('10)	5,235	983	18.8	3,607	491	13.6	1,628	492	30.2
14차('11)	5,292	753	14.2	3,528	321	9.1	1,764	432	24.5
15차('12)	5,380	608	11.3	3,517	264	7.5	1,863	344	18.5
16차('13)	5,405	825	15.3	3,472	342	9.9	1,933	483	25.0
17차('14)	5,481	472	8.6	3,451	188	5.4	2,030	284	14.0
18차('15)	5,529	800	14.5	3,420	332	9.7	2,109	468	22.2
19차('16)	5,609	761	13.6	3,386	313	9.2	2,223	448	20.2
20차('17)	5,668	821	14.5	3,348	327	9.8	2,320	494	21.3
21차('18)	5,674	861	15.2	3,299	323	9.8	2,375	538	22.7
22차('19)	5,713	836	14.6	3,254	352	10.8	2,459	484	19.7
23차('20)	5,694	646	11.3	3,191	231	7.2	2,503	415	16.6
24차('21)	5,709	619	10.8	3,139	235	7.5	2,570	384	14.9
25차('22)	5,713	683	12.0	3,076	262	8.5	2,637	421	16.0
26차('23)	5,799	521	9.0	3,028	180	5.9	2,771	341	12.3
27차('24)	5,786	485	8.4	2,983	143	4.8	2,803	342	12.2

주 : 1) 전체 가구 수는 조사성공가구 수에서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표 2-12〉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98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99)	4,507	-	129	129	2.9
3차('00)	4,266	98	124	222	5.2
4차('01)	4,247	247	134	381	9.0
5차('02)	4,298	391	109	500	11.6
6차('03)	4,592	575	155	730	15.9
7차('04)	4,761	757	142	899	18.9
8차('05)	4,849	901	126	1,027	21.2
9차('06)	5,001	1,042	139	1,181	23.6
10차('07)	5,069	1,178	116	1,294	25.5
11차('08)	5,116	1,319	87	1,406	27.5
12차('09)	5,306	1,516	132	1,648	31.1
13차('10)	5,379	1,629	143	1,772	32.9
14차('11)	5,404	1,764	112	1,876	34.7
15차('12)	5,469	1,863	89	1,952	35.7
16차('13)	5,501	1,933	96	2,029	36.9
17차('14)	5,549	2,030	68	2,098	37.8
18차('15)	5,624	2,109	95	2,204	39.2
19차('16)	5,691	2,223	82	2,305	40.5
20차('17)	5,734	2,320	66	2,386	41.6
21차('18)	5,761	2,375	87	2,462	42.7
22차('19)	5,777	2,459	64	2,523	43.7
23차('20)	5,771	2,503	77	2,580	44.7
24차('21)	5,783	2,570	74	2,644	45.7
25차('22)	5,807	2,637	94	2,731	47.0
26차('23)	5,875	2,771	76	2,847	48.5
27차('24)	5,894	2,803	108	2,911	49.4

KLIPS 2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당해연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786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7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485가구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 5,786가구의 8.4%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7차년도 조사에서는 4.8%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27차년도 조사에서는 1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2〉에서 KLIPS 분가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성공 5,894가구 중 49.4%인 2,911가구가 분가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2,911가구이며 27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10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27차년도에는 49.4%에 이르고 있다.

2. 비성공가구의 특성

KLIPS에서 조사 실패의 경우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 조사와 달리 패널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둘째,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2-13〉에서 연도별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표 2-13〉 연도별 비성공 사유(98표본)

(단위 :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99)	621	59.1	20.9	15.9	4.0	100.0
3차('00)	938	66.0	17.4	15.1	1.5	100.0
4차('01)	809	53.3	25.7	13.0	8.0	100.0
5차('02)	1,315	46.7	23.4	12.7	17.3	100.0
6차('03)	1,399	46.8	28.7	13.2	11.4	100.0
7차('04)	1,531	44.2	32.9	17.4	5.5	100.0
8차('05)	1,661	46.8	25.2	14.2	13.9	100.0
9차('06)	1,610	51.1	29.8	7.0	12.2	100.0
10차('07)	1,774	49.9	36.0	8.8	5.3	100.0
11차('08)	1,901	56.8	31.8	7.3	4.1	100.0
12차('09)	2,009	50.5	35.7	10.9	3.0	100.0
13차('10)	2,106	42.1	37.2	18.9	1.8	100.0
14차('11)	2,299	37.8	44.2	16.0	2.0	100.0
15차('12)	2,367	41.5	44.3	12.3	1.9	100.0
16차('13)	2,490	36.8	46.5	14.1	2.6	100.0
17차('14)	2,589	38.2	46.9	12.2	2.7	100.0
18차('15)	2,613	32.4	54.0	12.3	1.3	100.0
19차('16)	2,756	34.6	51.0	12.7	1.7	100.0
20차('17)	2,840	30.9	56.5	11.1	1.5	100.0
21차('18)	2,946	28.7	56.9	12.2	2.2	100.0
22차('19)	3,010	29.8	60.9	8.3	1.0	100.0
23차('20)	3,002	27.4	65.9	6.2	0.5	100.0
24차('21)	3,008	22.6	62.5	14.6	0.8	100.5
25차('22)	3,020	25.8	68.7	4.9	0.6	100.0
26차('23)	2,980	22.6	66.8	10.1	0.5	100.0
27차('24)	2,974	22.3	69.9	7.6	0.2	100.0

주 : 각 연도 거절 사례 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

〈표 2-14〉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98표본)

(단위 : 가구, 횟수)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99)	621	4.1	2.3	4.0	2.6	3.6
3차('00)	938	5.4	3.5	5.8	2.3	5.1
4차('01)	809	4.1	1.7	4.3	2.0	3.3
5차('02)	1,315	3.9	2.8	3.8	3.4	3.5
6차('03)	1,399	3.4	2.8	3.9	2.3	3.2
7차('04)	1,531	3.6	2.3	3.7	1.6	3.1
8차('05)	1,661	3.9	1.9	5.1	1.5	3.2
9차('06)	1,610	4.1	2.7	4.5	2.6	3.6
10차('07)	1,774	2.9	1.2	3.4	1.2	2.2
11차('08)	1,901	2.8	2.4	3.6	1.6	2.7
12차('09)	2,009	2.4	2.2	2.5	2.2	2.4
13차('10)	2,105	3.6	3.3	3.2	3.4	3.4
14차('11)	2,299	3.4	3.1	3.9	1.9	3.3
15차('12)	2,367	3.3	3.2	3.4	3.0	3.3
16차('13)	2,490	3.1	2.8	1.9	1.4	2.8
17차('14)	2,589	3.4	3.3	3.6	3.0	3.4
18차('15)	2,618	1.8	1.3	1.9	1.6	1.5
19차('16)	2,756	1.4	1.0	1.2	1.2	1.2
20차('17)	2,826	1.3	1.1	1.4	1.1	1.2
21차('18)	2,945	2.9	1.1	3.0	1.6	1.9
22차('19)	3,010	3.0	1.2	3.0	1.2	1.9
23차('20)	3,002	3.0	1.1	3.1	1.3	1.7
24차('21)	3,008	3.0	3.0	1.2	1.4	2.7
25차('22)	3,020	3.0	3.0	1.2	1.2	2.9
26차('23)	2,980	3.1	2.8	3.0	1.4	2.9
27차('24)	2,974	1.2	1.1	1.7	1.4	1.2

주 : 당해 연도 분가 비성공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로 인해 응답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7차년도에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6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강력거절 22.3%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1.2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7회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표 2-6, 표 2-14 참조).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표 2-15〉는 전체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구원은 가구 조사 시 파악된 가구 구성원으로, 개인조사에 성공한 개인 응답자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27차년도 전체 가구원은 14,763명이고, 이 중 신규 가구원은 135명으로 전체 가구원(14,763명)에서 0.9%를 차지한다.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으로 27차년도의 경우 42.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37.8%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은 17.0%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2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2,902명이었으며 이 중 92.5%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1%가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성공률이 조금씩 감소하여 17차년도에 83.6%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8차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27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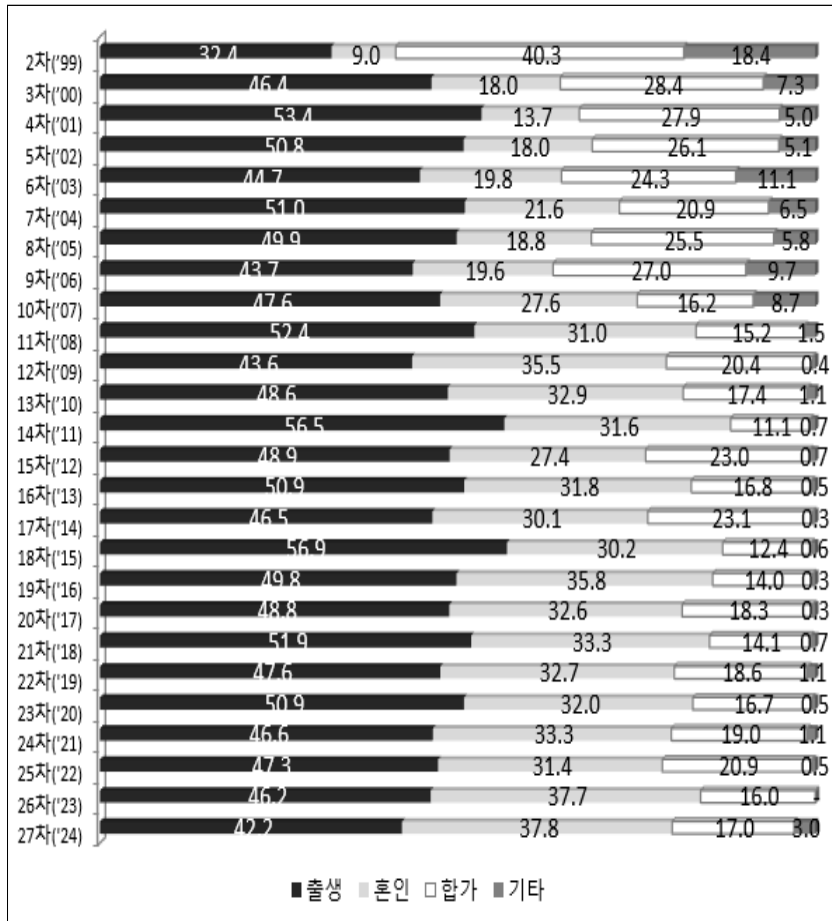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98표본)

(단위: 명, %)

	전체 가구원 수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15세 이상		15세 미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7,504	17,504	100.0	-	-	13,853	79.1	3,651	20.9
2차(99)	15,753	15,191	96.4	562	3.6	12,608	80.0	3,145	20.0
3차(00)	14,662	14,338	97.8	324	2.2	11,839	80.7	2,823	19.3
4차(01)	14,411	13,942	96.7	469	3.3	11,658	80.9	2,753	19.1
5차(02)	14,308	13,929	97.4	379	2.6	11,635	81.3	2,673	18.7
6차(03)	14,955	14,355	96.0	600	4.0	12,185	81.5	2,770	18.5
7차(04)	15,250	14,745	96.7	505	3.3	12,439	81.6	2,811	18.4
8차(05)	15,210	14,768	97.1	442	2.9	12,458	81.9	2,752	18.1
9차(06)	15,416	14,899	96.6	517	3.4	12,690	82.3	2,726	17.7
10차(07)	15,413	14,963	97.1	450	2.9	12,709	82.5	2,704	17.5
11차(08)	15,213	14,745	96.9	468	3.1	12,560	82.6	2,653	17.4
12차(09)	15,460	14,917	96.5	543	3.5	12,828	83.0	2,632	17.0
13차(10)	15,433	14,886	96.5	547	3.5	12,826	83.1	2,607	16.9
14차(11)	15,312	14,898	97.3	414	2.7	12,701	82.9	2,611	17.1
15차(12)	15,388	14,983	97.4	405	2.6	12,794	83.1	2,594	16.9
16차(13)	15,371	14,990	97.5	381	2.5	12,785	83.2	2,586	16.8
17차(14)	15,414	15,115	98.1	299	1.9	12,859	83.4	2,555	16.6
18차(15)	15,489	15,140	97.7	349	2.3	12,899	83.3	2,590	16.7
19차(16)	15,489	15,196	98.1	293	1.9	12,959	83.7	2,530	16.3
20차(17)	15,577	15,275	98.1	302	1.9	13,065	83.9	2,512	16.1
21차(18)	15,534	15,243	98.1	291	1.9	13,082	84.2	2,452	15.8
22차(19)	15,508	15,239	98.3	269	1.7	13,109	84.5	2,399	15.5
23차(20)	15,333	15,111	98.6	222	1.4	13,006	84.8	2,327	15.2
24차(21)	15,165	14,991	98.9	174	1.1	12,973	85.5	2,192	14.5
25차(22)	14,992	14,772	98.5	220	1.5	12,904	86.1	2,088	13.9
26차(23)	14,956	14,744	98.6	212	1.4	12,944	86.5	2,012	13.5
27차(24)	14,763	14,628	99.1	135	0.9	12,902	87.4	1,861	12.6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98표본)

(단위 : %)



도 92.5%이다. 27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1.9% (228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1.1% (185명)로 조사되었다.

〈표 2-16〉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98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 가구원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3,853	13,319	96.1	13,853	100.0	0	-	0	-	0	-
2차('99)	12,608	12,034	95.4	11,234	93.4	800	6.6	477	59.6	323	40.4
3차('00)	11,839	11,204	94.6	10,746	95.9	458	4.1	314	68.6	144	31.4
4차('01)	11,658	11,046	94.8	10,610	96.1	436	3.9	241	55.3	195	44.7
5차('02)	11,635	10,961	94.2	10,564	96.4	397	3.6	230	57.9	167	42.1
6차('03)	12,185	11,535	94.7	10,983	95.2	552	4.8	282	51.1	270	48.9
7차('04)	12,439	11,656	93.7	11,213	96.2	443	3.8	255	57.6	188	42.4
8차('05)	12,458	11,579	92.9	11,195	96.7	384	3.3	230	59.9	154	40.1
9차('06)	12,690	11,752	92.6	11,358	96.6	394	3.4	237	60.2	157	39.8
10차('07)	12,709	11,851	93.2	11,455	96.7	396	3.3	263	66.4	133	33.6
11차('08)	12,560	11,732	93.4	11,340	96.7	392	3.3	258	65.8	134	34.2
12차('09)	12,828	11,739	91.5	11,377	96.9	362	3.1	219	60.5	143	39.5
13차('10)	12,826	11,582	90.3	11,218	96.9	364	3.1	223	61.3	141	38.7
14차('11)	12,701	11,376	89.6	11,067	97.3	309	2.7	218	70.6	91	29.4
15차('12)	12,794	11,442	89.4	11,127	97.2	315	2.8	209	66.3	106	33.7
16차('13)	12,785	11,329	88.6	11,079	97.8	250	2.2	180	72.0	70	28.0
17차('14)	12,859	10,752	83.6	10,673	99.3	79	0.7	33	41.8	46	58.2
18차('15)	12,899	11,433	88.6	11,018	96.3	415	3.6	344	82.9	71	17.1
19차('16)	12,959	11,618	89.7	11,318	97.4	300	2.6	223	74.3	77	25.7
20차('17)	13,065	11,839	90.6	11,571	97.7	268	2.3	203	75.7	65	24.3
21차('18)	13,082	11,835	90.5	11,553	97.6	282	2.4	217	77.0	65	23.0
22차('19)	13,109	11,818	90.2	11,548	97.7	270	2.3	213	78.9	57	21.1
23차('20)	13,006	11,738	90.3	11,499	98.0	239	2.0	196	82.0	43	18.0
24차('21)	12,973	11,726	90.4	11,464	98.0	262	2.2	220	84.0	42	16.0
25차('22)	12,904	11,882	92.1	11,573	99.0	309	2.6	249	80.6	60	19.4
26차('23)	12,944	11,976	92.5	11,710	100.0	266	2.2	214	80.5	52	19.5
27차('24)	12,902	11,935	92.5	11,707	100.0	228	1.9	185	81.1	43	18.9

제6절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 개요

1. 09통합표본 및 18통합표본의 개요

KLIPS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7차년도 현재 원가구 2,983가구와 분가가구 2,91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59.7%,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제외한 4,414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67.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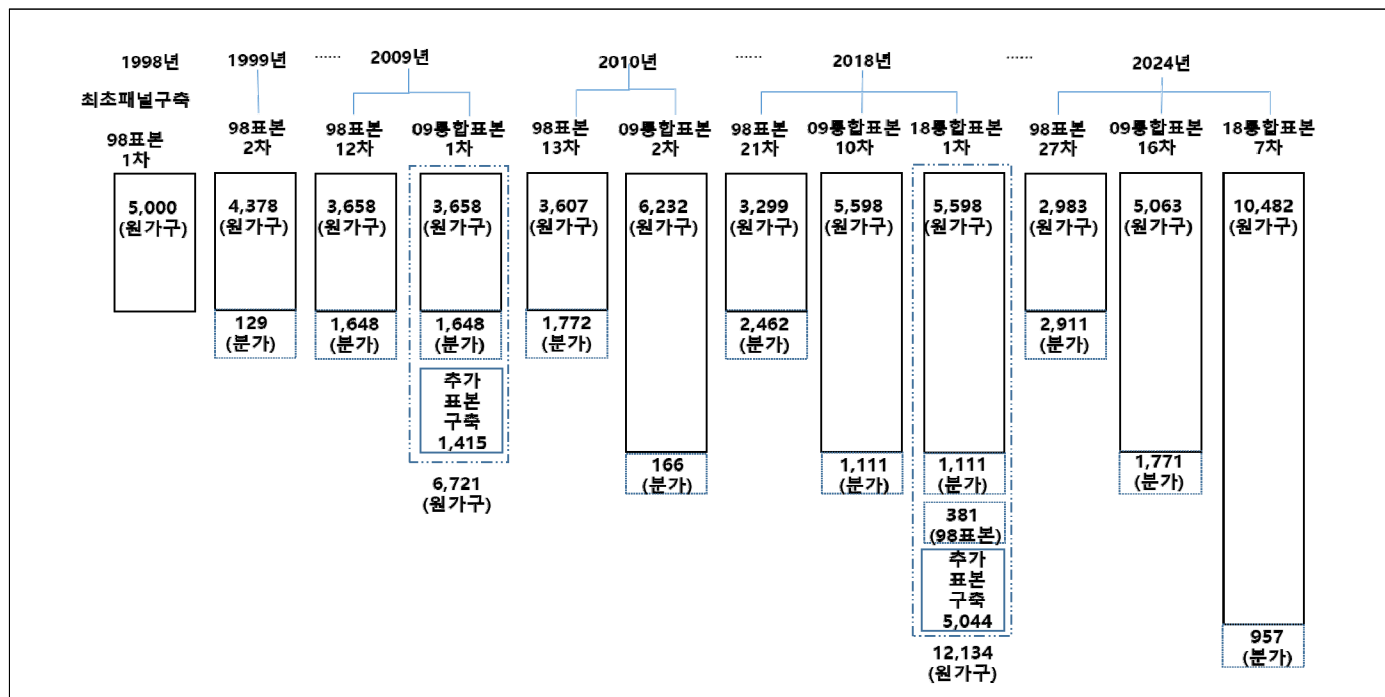
KLIPS는 2009년과 2018년 두 번의 표본 추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를 실시하였다.¹⁴⁾ 표본 추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둘째, 2018년 20년 넘게 패널조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표본 이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5,044가구의 대규모 표본 추가를 진행하였다.¹⁵⁾ 이에 KLIPS는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09통합표본, 2018년도 표본 추가를 통한 18통합표본으로 세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09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7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09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3,658가구와 분가가구 1,648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09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24년까지 16년

14) 2009년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를 참조.

15) 2018년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유빈 외(2019), 『패널자료 품질개선연구(IX)』, 『한국노동패널조사 신규패널 특성 분석』(변종석·이혜정 저술)을 참조.

[그림 2-3] 09통합표본과 18통합표본의 개요



주: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가 다음 해인 2010년에 조사되었을 경우, 98표본에 포함되지만 09통합표본의 원가에는 속하지 않았으므로 09통합표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09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18통합표본도 마찬가지임.

동안 조사 대상이 되었다.

18통합표본은 2018년 조사 당시 추가 표집된 5,044가구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응답가구 전체(12,134가구)를 원가구로 하는 표본을 의미한다. 즉 09통합표본 원가구 5,598가구, 09통합표본 분가가구 1,111가구, 09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98표본 381가구, 18년도 추가표본 5,044가구를 모두 더한 12,134가구를 원가구로 한다. 2024년 현재 5년 동안 12,134가구를 원가구로 정의하여 조사되었다.

2. 09통합표본 특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09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09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6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은 75.3%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26년 이상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에 실시된 제27차 KLIPS 조사에서 09통합표본은 원표본 5,064가구 및 분가한 1,770가구를 합하여 총 6,834가구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75.3%로 전년도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하였다.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18>은 09통합표본 1~16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8,806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76.1%(6,705가구), 분가가구는 23.9%(2,101가구)이다. 1~16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는 원가구 대비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

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9%(260가구)로 나타났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16회를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11.8%인데, 여기에는 해당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 2-17〉 연도별 조사 결과(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명)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 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 수 ⁵⁾	실사 기간
1차('09)	6,721	6,721	6,721	100.0	100.0	-	14,489	3~11
2차('10)	6,691	6,398	6,232	92.7	93.1	166	13,639	7~12
3차('11)	6,673	6,388	6,082	90.5	91.1	306	13,409	7~익년2
4차('12)	6,640	6,433	6,016	89.5	90.6	417	13,422	6~12
5차('13)	6,596	6,455	5,904	87.8	89.5	551	13,298	6~12
6차('14)	6,588	6,490	5,840	86.9	88.6	650	12,591	3~10
7차('15)	6,530	6,575	5,793	86.2	88.7	782	13,367	4~11
8차('16)	6,505	6,632	5,728	85.2	88.1	904	13,517	4~11
9차('17)	6,475	6,683	5,674	84.4	87.6	1,009	13,768	4~11
10차('18)	6,430	6,709	5,598	83.3	87.1	1,111	13,737	3~11
11차('19)	6,386	6,729	5,517	82.1	86.4	1,212	13,704	4~11
12차('20)	6,324	6,708	5,405	80.4	85.5	1,303	13,573	5~익년2
13차('21)	6,265	6,725	5,317	79.1	84.9	1,408	13,525	4~11
14차('22)	6,204	6,744	5,204	77.4	83.9	1,540	13,693	4~12
15차('23)	6,151	6,824	5,146	76.6	83.7	1,678	13,779	4~11
16차('24)	6,078	6,834	5,064	75.3	83.3	1,770	13,699	4~9

-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표 2-18〉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508	5.8	260	3.9	248	11.8
2회	341	3.9	153	2.3	188	8.9
3회	320	3.6	133	2.0	187	8.9
4회	259	2.9	109	1.6	150	7.1
5회	232	2.6	96	1.4	136	6.5
6회	218	2.5	93	1.4	125	5.9
7회	200	2.3	74	1.1	126	6.0
8회	216	2.5	94	1.4	122	5.8
9회	229	2.6	104	1.6	125	5.9
10회	232	2.6	98	1.5	134	6.4
11회	232	2.6	125	1.9	107	5.1
12회	241	2.7	108	1.6	133	6.3
13회	260	3.0	159	2.4	101	4.8
14회	349	4.0	238	3.5	111	5.3
15회	539	6.1	431	6.4	108	5.1
16회	4,430	50.3	4,430	66.1	-	0.0
전체	8,806	100.0	6,705	100.0	2,101	100.0

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19〉는 연도별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개인 설문 응답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09통합 1~16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20,037명이었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6,944명으로 원표본가구원이 전체의 38.1%를 차지한다.¹⁶⁾

16)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표 2-19〉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237	6.2	1,045	5.7	192	10.6
2회	973	4.9	775	4.3	198	10.9
3회	938	4.7	758	4.2	180	9.9
4회	794	4.0	672	3.7	122	6.7
5회	736	3.7	581	3.2	155	8.5
6회	732	3.7	576	3.2	156	8.6
7회	712	3.6	579	3.2	133	7.3
8회	694	3.5	575	3.2	119	6.6
9회	771	3.8	656	3.6	115	6.3
10회	733	3.7	620	3.4	113	6.2
11회	657	3.3	599	3.3	58	3.2
12회	720	3.6	645	3.5	75	4.1
13회	849	4.2	775	4.3	74	4.1
14회	1,053	5.3	977	5.4	76	4.2
15회	1,494	7.5	1,444	7.9	50	2.8
16회	6,944	34.7	6,944	38.1	0	0.0
전체	20,037	100.0	18,221	100.0	1,816	100.0

〈표 2-20〉은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6차년도의 신규 분가가구는 115가구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분가가구는 1,770가구로 전체 가구(6,834가구)의 25.9%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1〉이다. 16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조사 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14,793명이었고, 이 중 92.6%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013~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16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1.7%(227명)로 이 중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78.4%,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21.6%(49명)로 조사되었다.

〈표 2-20〉 연도별 분가가구 수(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기존 분가	신규 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10)	6,398	-	166	166	2.6
3차('11)	6,388	184	122	306	4.8
4차('12)	6,433	315	102	417	6.5
5차('13)	6,455	443	108	551	8.5
6차('14)	6,490	564	86	650	10.0
7차('15)	6,575	668	114	782	11.9
8차('16)	6,632	809	95	904	13.6
9차('17)	6,683	923	86	1,009	15.1
10차('18)	6,709	1,006	105	1,111	16.6
11차('19)	6,729	1,131	81	1,212	18.0
12차('20)	6,708	1,218	85	1,303	19.4
13차('21)	6,725	1,310	98	1,408	20.9
14차('22)	6,744	1,426	114	1,540	22.8
15차('23)	6,824	1,579	99	1,678	24.6
16차('24)	6,834	1,655	115	1,770	25.9

〈표 2-21〉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 가구원		기존 조사자		신규 조사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09)	15,819	14,489	91.6	14,489	100.0	-	-	-	-	-	-
2차(10)	15,013	13,639	90.8	13,175	96.6	464	3.4	322	69.4	142	30.6
3차(11)	14,864	13,409	90.2	12,988	96.9	421	3.1	318	75.5	103	24.5
4차(12)	14,914	13,422	90.0	13,046	97.2	376	2.8	260	69.1	116	30.9
5차(13)	14,913	13,298	89.2	12,980	97.6	318	2.4	240	75.5	78	24.5
6차(14)	14,923	12,591	84.4	12,487	99.2	104	0.8	47	45.2	57	54.8
7차(15)	14,992	13,367	89.2	12,894	96.5	473	3.5	399	84.4	74	15.6
8차(16)	15,001	13,517	90.1	13,174	97.5	343	2.5	258	75.2	85	24.8
9차(17)	15,115	13,768	91.1	13,444	97.6	324	2.4	238	73.5	86	26.5
10차(18)	15,114	13,737	90.9	13,416	97.7	321	2.3	242	75.4	79	24.6
11차(19)	15,141	13,704	90.5	13,394	97.7	310	2.3	246	79.4	64	20.6
12차(20)	14,998	13,573	90.5	13,307	98.0	266	2.0	217	81.6	49	18.4
13차(21)	14,923	13,525	90.6	13,241	97.9	284	2.1	232	81.7	52	18.3
14차(22)	14,825	13,693	92.4	13,342	97.4	351	2.6	271	77.2	80	22.8
15차(23)	14,859	13,779	92.7	13,481	97.8	298	2.2	234	78.5	64	21.5
16차(24)	14,793	13,699	92.6	13,472	98.3	227	1.7	178	78.4	49	21.6

3. 18통합표본 특성

2018년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18통합표본의 연도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2-22〉와 같다. 18통합표본 1차년도(2018년)에 조사된 가구는 12,134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23,971명이었다.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4.5%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에 실시된 제27차 KLIPS 조사(18통합표본 기준 7차 조사)에서 18통합표본은 원표본 10,483가구 및 분가한 956가구를 합하여 총 11,439가구를 성공하였고, 원표본유지율은 86.4%였다.

〈표 2-22〉 연도별 조사 결과(18통합표본)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 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 수 ⁵⁾	실사 기간
1차('18)	12,134	12,134	12,134	100.0	100.0	0	23,971	3~익년1
2차('19)	12,083	11,585	11,471	94.5	94.9	114	23,012	4~11
3차('20)	11,992	11,509	11,253	92.7	93.8	256	22,711	5~익년2
4차('21)	11,892	11,462	11,041	91.0	92.8	421	22,676	4~11
5차('22)	11,785	11,466	10,819	89.2	91.8	647	22,930	4~12
6차('23)	11,697	11,473	10,655	87.8	91.1	818	22,937	4~11
7차('24)	11,575	11,439	10,483	86.4	90.6	956	22,738	4~10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하는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12,134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12,134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12,134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3〉은 조사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13,185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92.0%(12,133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8.0% (1,052가구)이다.

〈표 2-24〉는 연도별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조사기간 동안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28,011명이고, 조사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17,263명으로 원표

〈표 2-23〉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18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662	5.0	427	3.5	235	22.3
2회	471	3.6	279	2.3	192	18.3
3회	478	3.6	243	2.0	235	22.3
4회	467	3.5	311	2.6	156	14.8
5회	471	3.6	334	2.8	137	13.0
6회	645	4.9	548	4.5	97	9.2
7회	9,991	75.8	9,991	82.3	-	-
전체	13,185	100.0	12,133	100.0	1,052	100.0

〈표 2-24〉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통합표본)

(단위 :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 수	비중
1회	1,701	6.1	1,548	5.7	153	21.4
2회	1,523	5.4	1,383	5.1	140	19.6
3회	1,533	5.5	1,375	5.0	158	22.1
4회	1,679	6.0	1,567	5.7	112	15.7
5회	1,800	6.4	1,716	6.3	84	11.8
6회	2,512	9.0	2,445	9.0	67	9.4
7회	17,263	61.6	17,263	63.2	0	-
전체	28,011	100.0	27,297	100.0	714	100.0

본가구원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다.¹⁷⁾

〈표 2-25〉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8통합표본 7차년도에 신규 분가가구는 154가구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분가가구는 956가구로 전체 가구(11,439가구)의 8.4%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17)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25〉 연도별 분가가구 수(18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기존 분가	신규 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19)	11,585	0	114	114	1.0
3차('20)	11,509	130	126	256	2.2
4차('21)	11,462	285	136	421	3.7
5차('22)	11,466	466	181	647	5.6
6차('23)	11,473	680	138	818	7.1
7차('24)	11,439	802	154	956	8.4

〈표 2-26〉 연도별 신규 조사자의 구성(18통합표본)

(단위 :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 가구원		기존 조사자		신규 조사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18)	26,838	23,971	89.3	23,971	100.0	-	-	-	-	-	-
2차('19)	25,602	23,012	89.9	22,309	96.9	703	3.1	606	86.2	97	13.8
3차('20)	25,319	22,711	89.7	22,261	98.0	450	2.0	372	82.7	78	17.3
4차('21)	25,059	22,676	90.5	22,085	97.4	591	2.6	506	85.6	85	14.4
5차('22)	24,875	22,930	92.2	22,269	97.1	661	2.9	540	81.7	121	18.3
6차('23)	24,696	22,937	92.9	22,433	97.8	504	2.2	406	80.6	98	19.4
7차('24)	24,500	22,738	92.8	22,352	98.3	386	1.7	311	80.6	75	19.4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6〉이다. 7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조사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은 모두 24,500명이었고, 이 중 92.8%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1.7%(386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80.6%, 기존 가

46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기타 항목)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19.4%(75명)로 조사되었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 장에서는 09통합표본 16차년도 KLIPS에 성공한 6,834가구와 그 가구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6년간의 KLIPS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09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KLIPS에서 가

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¹⁸⁾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숙식을 함께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는 점에서 KLIPS의 가구원 정의와 약간 다르다.

〈표 3-1〉은 연도별로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1차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인이었으며 2, 3차년도를 제외(2.9인)하고는 2.8인을 유지하다가 8차년도부터 약간 감소한 2.7인을 유지했다. 이후 13차년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16차년도에는 2.5인으로 나타났다. 16차년도의 가구원 수 분포는 1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0.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인(25.0%), 4인(20.7%)과 3인(19.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인 가구와 1인 가구 분포 차이는 2차년도 11.0%포인트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3차년도에 처음으로 1인 가구 비중이 4인 가구 비중에 비해 높아졌고, 1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9.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 자료¹⁹⁾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 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²⁰⁾을 16차년도 기준으로 살

18)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19)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5%, 2012년 25.2%, 2013년 25.9%, 2014년 26.5%, 2015년 27.0%, 2016년 27.7%, 2017년 28.3%, 2018년 29.0%, 2019년 29.9%, 2020년 31.2%, 2021년 32.9%, 2022년 34.1%, 2023년 35.1%, 2024년 35.8%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09)	6,721	21.0	21.0	20.4	29.7	6.4	1.6	2.8
2차(10)	6,398	19.9	20.4	20.4	30.9	7.0	1.5	2.9
3차(11)	6,388	21.0	20.4	19.8	30.8	6.6	1.3	2.9
4차(12)	6,433	21.6	20.5	19.4	30.7	6.6	1.4	2.8
5차(13)	6,455	21.7	21.0	19.6	30.0	6.4	1.4	2.8
6차(14)	6,490	22.2	21.0	19.5	29.7	6.4	1.3	2.8
7차(15)	6,575	22.7	21.0	19.3	29.7	6.0	1.2	2.8
8차(16)	6,632	23.5	21.3	20.3	27.8	5.9	1.1	2.7
9차(17)	6,683	23.7	21.5	20.4	27.6	5.8	1.1	2.7
10차(18)	6,709	24.5	22.1	20.1	27.0	5.2	1.2	2.7
11차(19)	6,729	24.4	22.3	20.6	26.4	5.2	1.2	2.7
12차(20)	6,708	25.3	22.8	19.9	25.9	5.2	0.9	2.7
13차(21)	6,725	27.0	22.4	20.2	24.4	5.0	0.9	2.6
14차(22)	6,744	28.4	22.9	20.0	23.5	4.4	0.7	2.5
15차(23)	6,824	29.4	23.9	20.0	21.9	4.3	0.6	2.5
16차(24)	6,834	30.2	25.0	19.6	20.7	4.0	0.5	2.5

20)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09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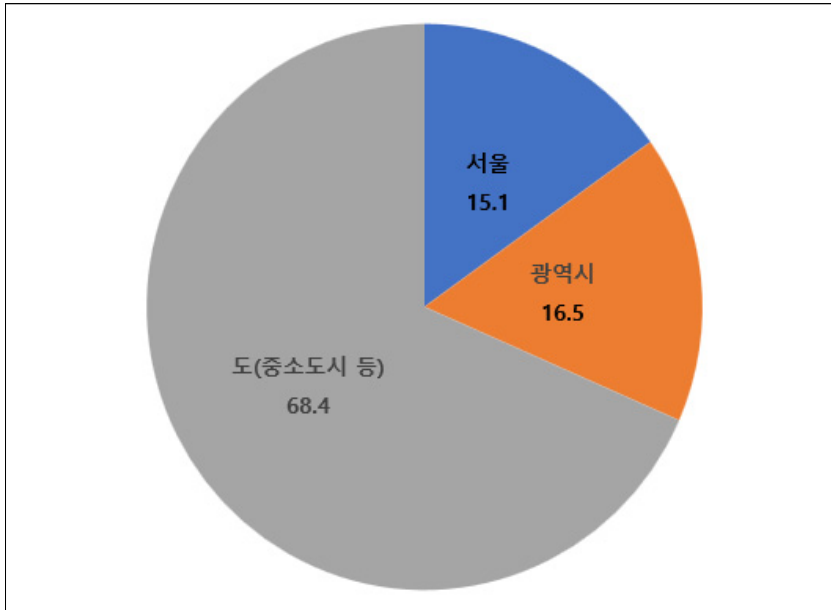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09)	6,721	21.0	16.3	57.4	5.3	0.1
2차(10)	6,398	19.9	15.6	59.4	5.1	0.1
3차(11)	6,388	21.0	15.7	58.5	4.8	0.0
4차(12)	6,433	21.6	15.5	58.4	4.5	0.0
5차(13)	6,455	21.7	15.9	58.2	4.2	0.0
6차(14)	6,490	22.2	16.1	57.6	4.1	0.0
7차(15)	6,575	22.7	15.9	57.5	3.8	0.0
8차(16)	6,632	23.5	16.3	56.6	3.6	0.0
9차(17)	6,683	23.7	16.7	56.0	3.5	0.0
10차(18)	6,709	24.5	17.4	54.8	3.3	0.0
11차(19)	6,729	24.4	17.4	54.9	3.3	0.0
12차(20)	6,708	25.3	17.7	54.0	3.0	0.0
13차(21)	6,725	27.0	17.6	52.7	2.7	0.0
14차(22)	6,744	28.4	17.9	51.6	2.2	0.0
15차(23)	6,824	29.4	18.5	50.1	2.0	0.0
16차(24)	6,834	30.2	19.4	48.6	1.9	0.0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48.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9.4%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30.2%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1.9%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의 비중은 4차년도 15.5%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16차년도 조사에서는 19.4%로 나타났으나, 2세대 가구는 2차년도 59.4%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16차년도 조사에서는 10.8%포인트 감소한 48.6%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16차(2024)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09통합표본)



[그림 3-1]은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6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68.4%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15.1%, 광역시 지역에는 16.5%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16차년도 기준으로 보면,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39.2%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8.8%, 편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7.4%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0.1%에서 2차년도(71.8%)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6차년도에 65.4%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9

년 62.4%, 2010년 61.7%, 2011년 61.1%, 2012년 60.5%, 2013년 59.9%, 2014년 59.2%, 2015년 58.8%, 2016년 58.0%, 2017년 57.5%, 2018년 57.1%, 2019년 56.6%, 2020년 55.9%, 2021년 54.8%, 2022년 53.8%, 2023년 52.9%, 2024년 52.4%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3.0%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전체 (가구수)	핵가족 가구				1인 가구	비핵가구
			부부 단독	부모 + 미혼 자녀	편부모 + 미혼 자녀		
1차('09)	6,721	70.1	15.5	47.6	7.1	21.0	8.9
2차('10)	6,398	71.8	14.8	49.7	7.3	19.9	8.3
3차('11)	6,388	71.0	15.0	49.0	7.1	21.0	8.0
4차('12)	6,433	70.8	14.9	48.8	7.1	21.6	7.6
5차('13)	6,455	70.9	15.3	48.5	7.2	21.7	7.4
6차('14)	6,490	70.7	15.5	48.1	7.1	22.2	7.2
7차('15)	6,575	70.4	15.2	47.8	7.5	22.7	6.8
8차('16)	6,632	69.9	15.7	46.8	7.4	23.5	6.5
9차('17)	6,683	70.0	16.1	46.8	7.1	23.7	6.3
10차('18)	6,709	69.6	16.8	45.9	6.8	24.5	6.0
11차('19)	6,729	69.8	16.9	45.7	7.1	24.4	5.8
12차('20)	6,708	69.0	17.0	44.8	7.2	25.3	5.7
13차('21)	6,725	67.7	17.1	43.8	6.9	27.0	5.2
14차('22)	6,744	66.8	17.3	42.3	7.2	28.4	4.8
15차('23)	6,824	66.1	17.9	40.8	7.3	29.4	4.5
16차('24)	6,834	65.4	18.8	39.2	7.4	30.2	4.4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 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²¹⁾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제1절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6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5.8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3.1%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높은 41.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2.1%), 40대(18.8%)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늘어 16차년도에는 47.4%까지 증가하였다.

21)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6,513	6,203	6,176	6,240	6,240	6,165	6,331	6,445	6,512	6,519	6,503	6,489	6,510	6,551	6,643	6,674
성별	남성	79.1	78.5	78.8	78.2	78.1	77.9	77.8	77.4	76.9	76.7	76.2	75.9	75.2	74.7	73.8	73.1
	여성	20.9	21.5	21.2	21.8	21.9	22.1	22.2	22.6	23.2	23.3	23.8	24.1	24.8	25.3	26.2	27.0
혼인 상태	미혼	12.7	12.1	13.0	13.6	13.6	14.8	14.0	14.4	14.0	14.2	13.8	14.6	15.7	16.3	17.1	18.6
	기혼유배우	68.1	68.1	67.8	66.9	66.6	65.9	65.7	65.4	65.5	65.0	65.0	63.6	62.3	61.3	60.3	59.1
	기혼무배우	19.3	19.8	19.2	19.5	19.8	19.4	20.3	20.3	20.5	20.8	21.3	21.8	22.0	22.4	22.6	22.3
연령	30세 미만	6.8	6.9	7.0	6.0	5.7	6.6	5.2	5.3	5.1	4.7	4.0	4.5	4.7	4.9	4.8	5.1
	30대	20.7	19.8	20.0	19.8	19.0	18.8	17.8	17.1	16.6	16.6	16.4	15.3	14.8	13.5	13.3	12.8
	40대	25.9	24.7	24.2	24.2	23.9	23.5	23.3	22.9	22.0	21.5	20.8	20.1	19.6	19.5	19.0	18.8
	50대	21.1	21.7	22.4	22.9	23.2	22.8	23.3	23.4	23.6	23.4	23.4	23.3	22.5	22.7	22.3	22.1
	60세 이상	25.6	27.0	26.4	27.2	28.3	28.4	30.4	31.3	32.7	33.9	35.4	36.9	38.4	39.5	40.6	41.2
	평균(세)	49.8	50.3	50.2	50.7	51.3	51.1	52.1	52.6	53.1	53.6	54.2	54.6	54.9	55.3	55.7	55.8
교육 수준	무학	4.7	4.6	4.1	4.0	4.1	3.8	3.7	3.5	3.5	3.5	3.3	3.2	3.2	2.8	2.5	2.3
	고졸 미만	25.7	25.3	23.8	23.1	22.7	21.6	21.7	21.3	20.9	20.2	20.2	19.7	19.2	18.8	18.6	18.0
	고졸	30.8	30.3	30.5	30.4	30.0	29.5	29.4	29.1	29.2	29.0	28.7	28.6	28.3	28.0	28.0	27.9
	대재 및 중퇴	3.9	3.6	4.0	3.8	3.9	4.3	4.3	4.4	4.2	4.2	4.1	4.3	4.3	4.2	4.4	4.5
	(전문)대졸 이상	34.9	36.2	37.6	38.6	39.3	40.8	40.9	41.8	42.3	43.1	43.7	44.2	44.9	46.2	46.6	47.4

〈표 3-5〉 연도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09통합표본)

(단위 :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14,489	13,639	13,409	13,422	13,298	12,591	13,367	13,517	13,768	13,737	13,704	13,573	13,525	13,693	13,779	13,699
성별	남성	49.9	49.3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9	49.8	49.8	49.8	49.9	49.9
	여성	50.2	50.8	50.1	50.1	50.2	50.1	50.1	50.1	50.1	50.1	50.1	50.2	50.2	50.2	50.2	50.2
연령	15~19세	9.6	8.6	8.2	8.1	7.8	7.6	7.2	7.1	6.7	6.3	5.9	5.5	5.1	5.0	5.0	4.9
	20~24세	6.1	6.8	7.3	7.8	8.0	7.7	7.8	7.9	7.9	7.6	7.7	7.3	7.0	6.4	6.1	5.7
	25~29세	9.9	9.6	8.9	8.0	7.6	7.8	7.6	7.5	7.6	8.0	7.8	8.2	8.2	8.3	8.2	8.0
	30~39세	20.3	19.4	19.5	19.1	18.7	18.2	17.5	17.3	16.9	16.6	16.2	15.8	15.3	15.0	14.9	14.9
	40~49세	20.9	20.4	20.4	20.3	20.1	20.2	19.8	19.6	19.2	18.9	18.4	18.1	17.9	17.7	17.4	17.0
	50~59세	15.5	16.3	17.1	17.6	18.2	18.5	18.6	18.7	18.8	18.8	19.0	18.8	18.7	18.8	18.7	18.8
	60세 이상	17.8	18.9	18.5	19.1	19.7	20.3	21.4	22.0	22.9	23.9	25.0	26.3	27.7	28.7	29.8	30.6
	평균(세)	42.7	43.4	43.5	43.8	44.3	44.7	45.1	45.4	45.9	46.3	46.8	47.3	47.8	48.2	48.6	48.9
혼인 상태	미혼	31.0	29.5	29.8	30.3	30.0	29.6	30.0	30.4	30.6	30.5	30.6	30.8	31.1	31.5	31.8	32.5
	기혼유배우	58.8	59.7	59.8	59.3	59.3	59.7	59.0	58.8	58.6	58.6	58.3	57.8	57.3	56.6	56.2	55.7
	기혼무배우	10.3	10.8	10.4	10.5	10.7	10.7	11.0	10.8	10.8	10.9	11.1	11.4	11.7	11.9	12.1	11.9
교육 수준	무학	4.0	3.9	3.5	3.4	3.3	3.1	3.0	2.8	2.7	2.6	2.5	2.4	2.3	2.2	2.0	1.8
	고졸 미만	28.8	27.4	26.2	25.1	24.8	23.6	23.1	22.4	21.9	21.3	20.8	19.9	19.4	18.8	18.9	18.4
	고졸	27.7	27.8	27.6	27.6	27.2	27.1	26.8	26.8	26.5	26.3	26.1	25.9	26.1	25.9	25.7	25.5
	대재 및 중퇴	9.2	9.7	10.2	10.3	10.5	10.6	10.7	10.8	10.4	10.1	10.0	9.9	9.4	9.3	9.1	9.0
	전문대졸	10.3	10.8	11.1	11.1	11.2	11.7	11.8	12.1	12.3	12.6	12.7	13.5	13.7	13.6	13.6	14.0
	대졸 이상	20.0	20.4	21.4	22.4	23.0	24.0	24.5	25.1	26.2	27.1	28.0	28.5	29.2	30.2	30.8	31.3

2. 가구원의 특성

〈표 3-5〉에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0.2%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약 50%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6차년도 평균연령은 48.9세로 나타났다.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30.6%로 1차년도(17.8%)에 비해 12.8%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9.6%)에 비해 4.7%포인트가 하락한 4.9%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가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30대가 14.9%이고 50대 이상은 49.4%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각각 25.5%와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1.8%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 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구 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²²⁾

22)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 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표 3-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09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1차(09)	238	130	108	54.6	45.4
2차(10)	248	130	118	52.4	47.6
3차(11)	222	119	103	53.6	46.4
4차(12)	192	107	85	55.7	44.3
5차(13)	192	106	86	55.2	44.8
6차(14)	142	66	76	46.5	53.5
7차(15)	205	113	92	55.1	44.9
8차(16)	149	74	75	49.7	50.3
9차(17)	153	78	75	51.0	49.0
10차(18)	165	81	84	49.1	50.9
11차(19)	141	80	61	56.7	43.3
12차(20)	137	80	57	58.4	41.6
13차(21)	91	46	45	50.5	49.5
14차(22)	121	66	55	54.5	45.5
15차(23)	106	49	57	46.2	53.8
16차(24)	66	32	34	48.5	51.5
전 체	2,568	1,357	1,211	52.8	47.2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6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2,568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1차년도 238명, 2차년도 248명, 3차년도 222명, 4차년도 192명, 5차년도 192명, 6차년도 142명, 7차년도 205명, 8차년도 149명, 9차년도 153명, 10차년도 165명, 11차년도 141명, 12차년도 137명, 13차년도 91명, 14차년도 121명, 15차년도 106명, 16차년도 6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16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사망자는 1,234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97명, 3차년도 87명, 4차년도 82명, 5차년도 90명, 6차년도 51명, 7차년도 82명, 8차년도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09통합표본)

(단위 : 명, %, 세)

		전체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1,234	97	87	82	90	51	82	73	67	96	68	91	82	114	81	73
성별	남성	736 (59.6)	62 (63.9)	42 (48.3)	47 (57.3)	58 (64.4)	30 (58.8)	47 (57.3)	39 (53.4)	35 (52.2)	55 (57.3)	47 (69.1)	57 (62.6)	48 (58.5)	73 (64.0)	47 (58.0)	49 (67.1)
	여성	498 (40.4)	35 (36.1)	45 (51.7)	35 (42.7)	32 (35.6)	21 (41.2)	35 (42.7)	34 (46.6)	32 (47.8)	41 (42.7)	21 (30.9)	34 (37.4)	34 (41.5)	41 (36.0)	34 (42.0)	24 (32.9)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86 (7.0)	10 (10.3)	7 (8.1)	7 (8.5)	8 (8.9)	6 (11.8)	5 (6.1)	0 (0.0)	5 (7.5)	6 (6.3)	6 (8.8)	5 (5.5)	7 (8.5)	2 (1.8)	8 (9.9)	4 (5.5)
	50~59세	81 (6.6)	7 (7.2)	7 (8.1)	5 (6.1)	5 (5.6)	1 (2.0)	8 (9.8)	7 (9.6)	4 (6.0)	6 (6.3)	8 (11.8)	8 (8.8)	5 (6.1)	4 (3.5)	2 (2.5)	4 (5.5)
	60~69세	164 (13.3)	16 (16.5)	10 (11.5)	12 (14.6)	20 (22.2)	9 (17.7)	5 (6.1)	8 (11.0)	8 (11.9)	11 (11.5)	12 (17.7)	12 (13.2)	7 (8.5)	19 (16.7)	4 (4.9)	11 (15.1)
	70~79세	340 (27.6)	30 (30.9)	28 (32.2)	21 (25.6)	27 (30.0)	18 (35.3)	31 (37.8)	19 (26.0)	18 (26.9)	25 (26.0)	14 (20.6)	22 (24.2)	20 (24.4)	29 (25.4)	18 (22.2)	20 (27.4)
	80세 이상	563 (45.6)	34 (35.1)	35 (40.2)	37 (45.1)	30 (33.3)	17 (33.3)	33 (40.2)	39 (53.4)	32 (47.8)	48 (50.0)	28 (41.2)	44 (48.4)	43 (52.4)	60 (52.6)	49 (60.5)	34 (46.6)
평균연령		75.5	72.5	74.5	74.9	72.7	71.5	76.0	78.5	74.9	76.8	72.9	75.4	77.6	78.6	77.3	76.2

주 : () 안은 비중임.

73명, 9차년도 67명, 10차년도 96명, 11차년도 68명, 12차년도 91명, 13차년도 82명, 14차년도 114명, 15차년도 81명, 16차년도 73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3차년도를 제외한 모든 차수에서 남성 사망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16차년도 기준 남성이 67.1%(49명)로 여성 32.9%(24명)에 비해 34.2%포인트 정도 높다. 16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5.5%이며, 50~59세는 5.5%, 60~69세는 15.1%, 70~79세는 27.4%, 80세 이상은 46.6%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72.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6차년도에는 76.2세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사망자의 연령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09통합표본)

(단위 : %)

	노환	사고	질병	기타
2차(10)	45.4	9.3	44.3	1.0
3차(11)	44.8	13.8	40.2	1.2
4차(12)	47.6	8.5	42.7	1.2
5차(13)	35.6	8.9	53.3	2.2
6차(14)	37.3	9.8	52.9	0.0
7차(15)	40.2	7.3	51.2	1.2
8차(16)	56.2	4.1	38.4	1.4
9차(17)	46.3	4.5	46.3	3.0
10차(18)	41.7	6.3	50.0	2.1
11차(19)	39.7	8.8	50.0	1.5
12차(20)	38.5	5.5	56.0	0.0
13차(21)	50.0	7.3	40.2	2.4
14차(22)	36.8	7.0	55.3	0.9
15차(23)	43.2	9.9	44.4	2.5
16차(24)	35.6	11.0	53.4	0.0

〈표 3-8〉을 통해 16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53.4%로 가장 높았고 노환 35.6%, 사고 11.0% 순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가계경제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09통합표본 16차년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설문 구조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은 98표본의 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하는 09통합표본의 조사 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09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혔다. 또한 1~16차년도의 연간 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98표본)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09통합표본 2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묻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19차년도(09통합표본 8차년도) 조사부터는 2015년에 추가된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수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한편 24차년도(09통합표본 13차년도)부터 26차년도(09통합표본 15차년도)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조사되었으며 모두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

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 소득 또한 9차년도(98표본)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²³⁾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 [27차년도(09통합표본 16차년도)의 경우 2023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98표본)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국가데이터처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 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 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년간의 온전한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⁴⁾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6,116만 원(월평균 약 51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⁵⁾하면 15차년도에 비해 150만 원 감소한 5,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23) 8차년도에 조사된 기타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으로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 - 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24)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월호(통권 14호) 참조.

25) 실질소득 = (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20년 = 100 기준)를 사용하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명목소득	3,513 (0.015)	3,843 (0.015)	3,919 (0.013)	4,118 (0.012)	4,338 (0.013)	4,524 (0.013)	4,652 (0.013)	4,791 (0.014)
실질소득	4,300	4,580	4,536	4,581	4,725	4,865	4,938	5,048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명목소득	5,034 (0.015)	5,165 (0.014)	5,174 (0.013)	5,628 (0.045)	5,846 (0.048)	5,789 (0.016)	6,063 (0.013)	6,116 (0.014)
실질소득	5,255	5,292	5,221	5,656	5,846	5,648	5,630	5,48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1차년도는 4,300만 원이며, 2차년도에 4,58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4,536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4차년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1차년도에 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소득 증가폭이 낮아서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12차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13차년도에는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16차년도에는 5,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표 4-2〉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2.5%이며, 연평균 근로소득은 6,097만 원으로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 소득과 부동산소득이 2,942만 원, 2,430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소득은 연평균 400만 원으로 연평균 소득액이

였다.
(2008년 81.7, 2009년 83.9, 2010년 86.4, 2011년 89.9, 2012년 91.8, 2013년 93.0, 2014년 94.2, 2015년 94.9, 2016년 95.8, 2017년 97.6, 2018년 99.1, 2019년 99.5, 2020년 100.0, 2021년 102.5, 2022년 107.7, 2023년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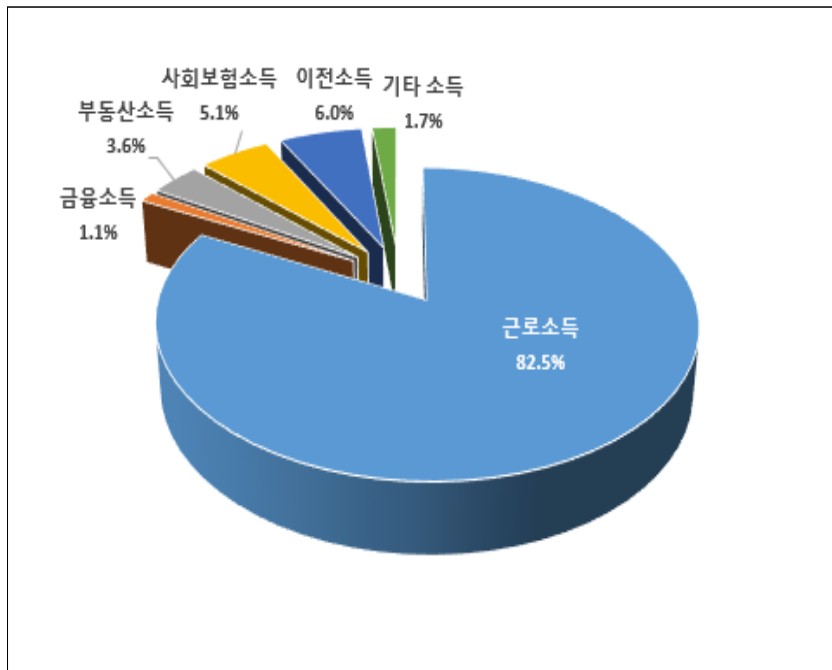
가장 낮으며, 이전소득도 612만 원으로 높지 않았다. 다만,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구(59.5%)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4-2〉 16차(2024)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

	연평균 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6,097	82.5
금융소득	400	16.8
부동산소득	2,430	8.9
사회보험소득	1,155	26.8
이전소득	612	59.5
기타 소득	2,942	3.6

[그림 4-1] 16차(2024)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09통합표본)



한편, [그림 4-1]은 16차년도 가구의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나타내며,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먼저, 전체 가구총소득 및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 소득)을 구한다.

전체 가구총소득은 개별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다.

$$\text{전체 가구총소득} = \sum_{i=1}^N \text{가구총소득}_i$$

여기서, 가구총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가구총소득을 의미하고, *i* = 1, ..., *N*(가구의 수)이다.

전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예로 설명하면, 전체 근로소득은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text{전체 근로소득} = \sum_{i=1}^N \text{근로소득}_i$$

여기서, 근로소득_i는 *i*번째 가구의 근로소득이다.

최종 구하고자 하는 근로소득 비중은 다음 식과 같으며, 전체 가구총소득 대비 전체 근로소득 비중을 계산하면 된다.

$$\text{근로소득 비중} = \frac{\text{전체 근로소득}}{\text{전체 가구총소득}} \times 100$$

나머지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비중도 근로소득 비중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역시 근로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5%로 가장 높다. 이전소득액은 가구총소득액에서 6.0%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았다.

그다음으로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총소득액에서 5.1%를 차지하여 세 번째로 높았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총소득 중 1.1%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27차년도(09통합표본 16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27차년도(09통합표본 16차년도)의 경우 2023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주거비·식품비·보건의료비·교통통신비·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 TV·위성 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용돈 항목을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

〈표 4-4〉 16차(202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55	19.9
외식비	17	6.1
공교육비	5	2.0
사교육비	16	5.8
차량유지비	22	8.0
주거비	24	8.8
경조사비	6	2.3
보건의료비	8	2.7
문화비	12	4.4
내구재	2	0.8
통신비	12	4.4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0	0.2
자녀 용돈	13	4.5
그 외 가구원의 용돈	30	10.8
피복비	8	3.0
현금 및 기부금	4	1.3
국민연금	12	4.5
의료보험	14	5.2
대중교통비	6	2.1
생필품구입비	7	2.5
기 타	2	0.7
전체 생활비	277	100.0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6.7%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1.8%인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는 30.4%였으나 추세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다 13차년도에 소폭 하락했지만 14차년도에 다시 상승해 16차년도는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⁶⁾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55만 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9.9%)을 차지

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가 5만 원,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은 1만 원 미만, 자녀는 13만 원, 그 외 가구원은 3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7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는 12만 원을 지출(전체 생활비의 4.4%)하여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12만 원, 14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16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9.9%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77만 3,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1~16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55.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71.8%로 나타났다.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16차년도에는 69.9%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1차년도 44만 7,000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차년도에는 77만 3,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6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4.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6.6%와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는 6.6%,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7.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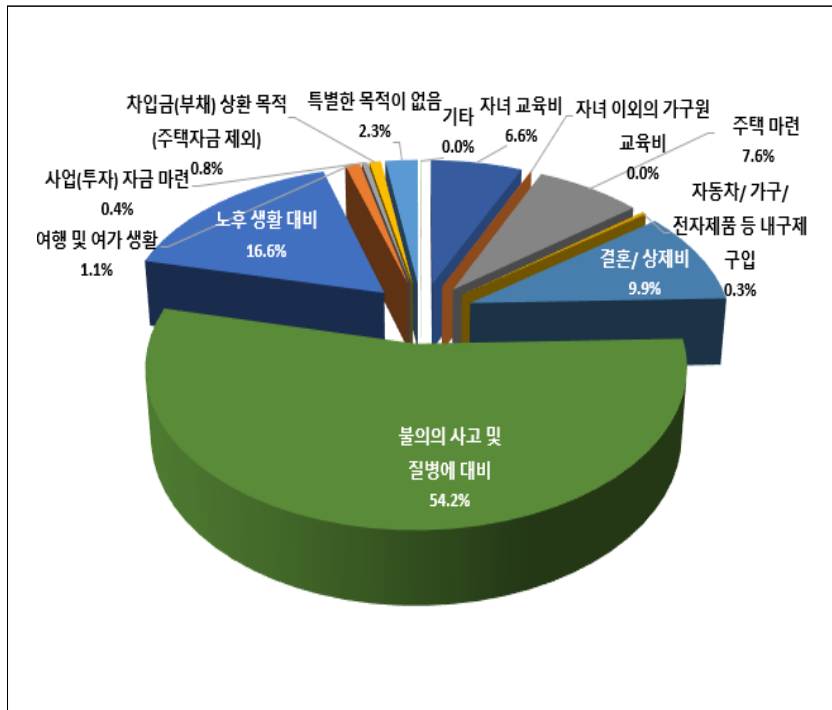
26)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및 4~27차년도(09통합표본 1~16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여부 및 월평균 저축액(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만 원)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18	6,398	6,373	6,430	6,451	6,488	6,567	6,632
저축 안 함	44.9	39.4	37.1	35.2	32.1	28.2	29.0	27.5
저축함	55.1	60.7	62.9	64.8	68.0	71.8	71.0	72.5
월평균 저축액	44.7	49.2	52.3	56.8	62.9	65.7	67.0	70.9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6,683	6,708	6,729	6,708	6,725	6,744	6,824	6,834
저축 안 함	28.8	28.1	28.6	27.9	29.2	28.3	28.9	30.1
저축함	71.3	71.9	71.4	72.1	70.8	71.7	71.1	69.9
월평균 저축액	71.0	74.5	70.0	69.7	71.9	74.2	77.1	77.3

[그림 4-2] 16차(2024)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09통합표본)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항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7.3%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76.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3.8%, 87.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8%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6> 16차(2024)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09통합표본)

(단위: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3,014		2,308		2,797	
없었음	72.7	16.2	72.6	12.4	23.4	61.2
있었음	27.3	83.8	27.4	87.6	76.6	38.8

〈표 4-7〉 16차(2024)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 총금액	401.4	182.6	207.4	167.2	361.3	564.4
현금	328.3	147.0	141.4	131.2	292.0	485.0
현물	73.1	35.6	66.0	36.1	69.3	79.4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401만 4,000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7만 4,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은 564만 4,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82만 6,000원, 167만 2,000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61만 3,000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이전되는 소득의 경우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교류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 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09통합표본 16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 형태 및 비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해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이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6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61.1%로 가장 높고, 월세가 17.8%로 전세(15.9%)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16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7차년도까지는 58% 정도를 유지하다가 8차년도(59.5%) 상승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1차년도 60.4%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6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36.8%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

〈표 4-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체	6,721	6,397	6,387	6,430	6,454	6,486	6,575	6,629
자가	57.6	57.6	57.8	57.9	57.7	58.0	58.5	59.5
전세	22.9	23.5	20.8	20.0	19.9	19.9	19.2	17.7
월세	13.9	13.1	15.1	15.5	15.7	15.6	16.0	16.9
기타	5.6	5.8	6.3	6.6	6.7	6.6	6.2	6.0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체	6,683	6,708	6,729	6,708	6,725	6,744	6,824	6,832
자가	59.6	59.8	60.4	60.2	60.0	60.3	60.5	61.1
전세	17.4	17.1	17.4	18.2	17.4	16.8	16.5	15.9
월세	17.3	17.6	16.9	16.3	16.9	17.7	17.9	17.8
기타	5.7	5.5	5.3	5.3	5.7	5.2	5.2	5.2

주 : ‘전체’는 가구의 입주형태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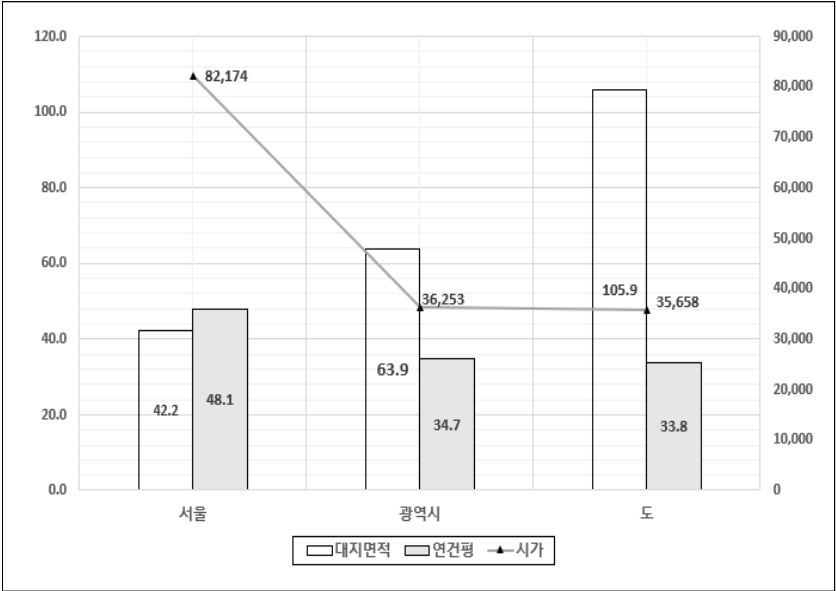
는 양상을 보여주며 16차년도에는 33.7%로 나타났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의 약 2.5배, 광역시의 약 1.7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과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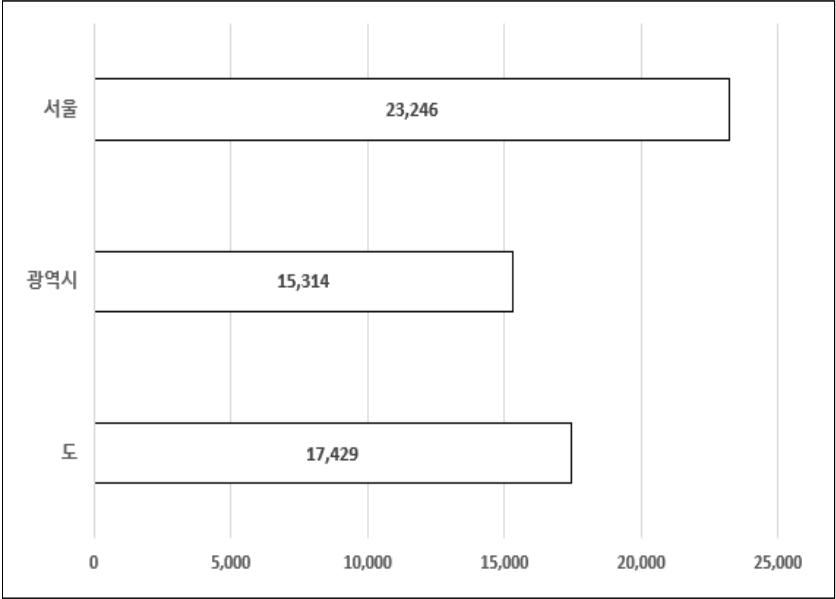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5.9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63.9평, 서울은 42.2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8.1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34.7평, 도 지역은 33.8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8억 2,174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서울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3억 6,253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3억 5,6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16차(2024)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 · 연건평 및 시가(09통합표본)
(단위 :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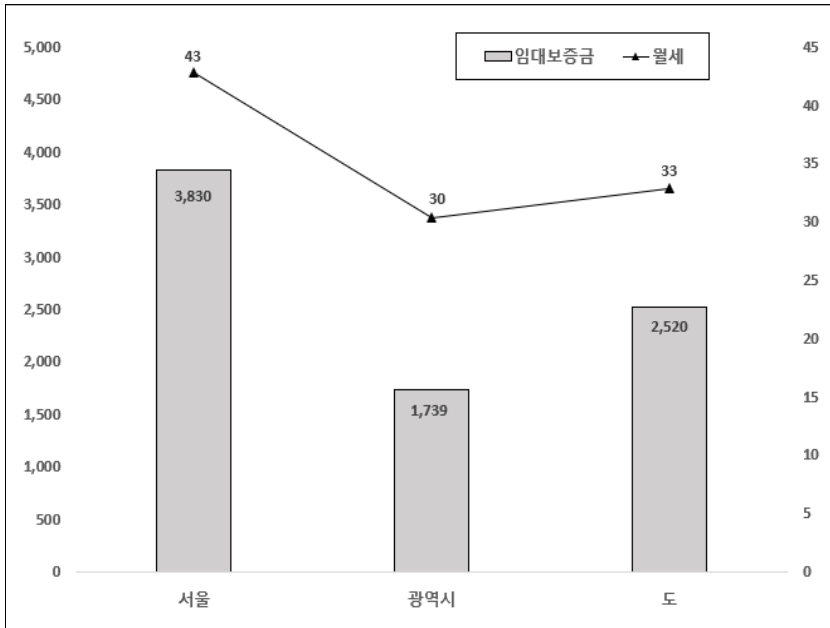


[그림 4-4] 16차(2024)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그림 4-5] 16차(2024)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다음으로 [그림 4-4] 및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 3,246만 원으로 광역시(1억 5,314만 원)보다 7,932만 원 높고, 도 지역(1억 7,429만 원)보다도 5,817만 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4-4 참조).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4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도와 광역시가 각각 33만 원과 30만 원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세 계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3,830만 원으로 광역시의 약 2.2배, 도의 약 1.5배로 높았다(그림 4-5 참조).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6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표 4-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89	6,572	6,632
단독주택	29.7	27.3	27.0	25.8	24.8	23.6	22.3	21.8
아파트	45.7	48.3	48.7	49.2	49.9	50.6	51.5	51.4
연립주택	10.1	10.2	10.2	10.2	10.0	9.5	9.3	9.7
다세대주택	10.0	9.6	9.6	10.2	10.6	11.1	11.8	12.1
상가주택	3.5	3.2	3.4	3.3	3.2	3.2	3.1	3.3
기타	1.1	1.5	1.2	1.3	1.5	2.1	2.0	1.8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6,683	6,709	6,727	6,708	6,725	6,744	6,824	6,834
단독주택	21.0	19.7	19.0	18.6	18.3	17.7	16.9	16.5
아파트	52.2	53.2	54.3	55.7	55.7	56.2	56.7	57.2
연립주택	9.5	8.9	8.8	8.6	8.5	8.4	8.4	8.3
다세대주택	12.4	12.6	12.6	12.0	12.0	12.3	12.9	13.0
상가주택	3.2	3.3	3.1	2.9	3.0	3.0	3.1	3.0
기타	1.6	2.2	2.3	2.3	2.6	2.6	2.1	2.1

주 : ‘전체’는 가구의 주택 종류에 대해 응답한 가구 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있는 아파트(57.2%)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16.5%를, 다세대주택이 13.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립주택 비중은 8.3%이며 상가주택은 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4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차년도에 이르러서는 11.5%포인트 증가한 57.2%인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3. 주거지의 선택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

〈표 4-10〉 16차(2024)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09통합표본)

이사 동기	비중(%)
내집 마련	27.7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2.2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9.1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7.3
취업/창업	5.2
환경 및 건강 때문에	5.1
신혼집 마련	4.9
보육 혹은 부모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4.7
계약만료/철거, 재개발	4.7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4.3
동일직장 내 근무지 이동	3.7
독립하고 싶어서	2.7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2.1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2.0
자녀 교육 때문에	1.8
경제적 상황 악화	1.1
별거, 이혼, 가정불화	0.9
기타	0.6
전 체	100.0

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은 16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 온 동기를 응답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집 마련’이 27.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와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가 각각 12.2%, 9.1%로 나타났다.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09통합표본 16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6차년도의 경우 2024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부동산 임차 여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6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7.5%로 전년도(17.0%)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6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2%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차년도에 6.2%였으나 2차년도에 4.4%로 1.8%포인트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5차년도 이후에는 평균 6%대를 유지하였으며 9차년도(8.1%) 상승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차년도에 19.8%이던 것이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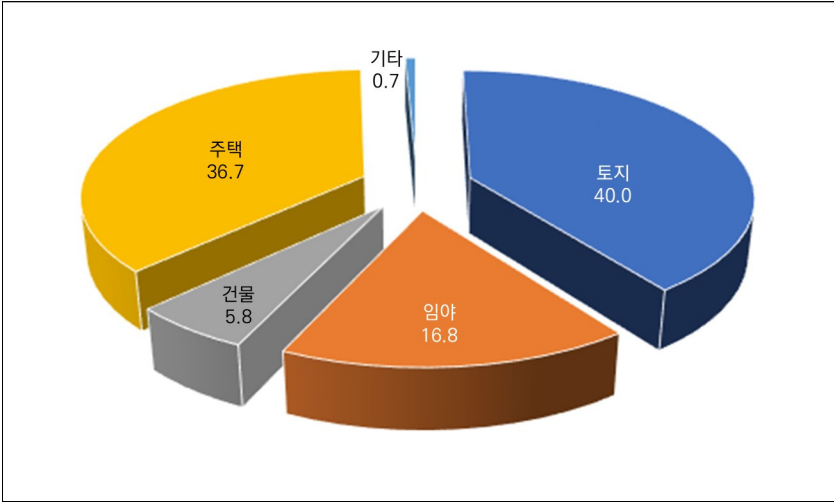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3	6,455	6,490	6,575	6,632
부동산 소유 여부								
없음	77.0	78.3	78.8	78.0	79.1	78.8	80.1	80.0
있음	23.0	21.7	21.2	22.0	21.0	21.2	19.9	20.0
1,000만 원 미만	3.3	3.3	3.2	1.7	1.8	1.4	1.0	0.5
1,000만~5,000만 원 미만	16.2	15.7	12.5	15.3	12.1	12.1	11.4	11.8
5,000만~1억 원 미만	21.0	18.6	18.4	17.8	17.6	19.5	15.6	15.3
1억~3억 원 미만	33.4	35.4	35.8	34.8	36.8	36.8	37.2	37.5
3억~5억 원 미만	11.6	13.6	13.4	16.0	15.9	14.9	16.6	17.5
5억~10억 원 미만	8.2	8.9	11.3	8.5	9.5	9.7	12.0	10.8
10억 원 이상	6.2	4.4	5.4	5.9	6.3	5.6	6.0	6.6
잘 모르겠음	0.1	0.1	0.0	0.0	0.0	0.0	0.3	0.1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6,683	6,709	6,729	6,708	6,725	6,744	6,824	6,834
부동산 소유 여부								
없음	80.0	79.8	80.8	81.4	82.1	82.5	83.0	82.5
있음	20.1	20.2	19.2	18.6	17.9	17.5	17.0	17.5
1,000만 원 미만	0.5	1.0	0.4	0.2	0.5	0.5	0.3	0.2
1,000만~5,000만 원 미만	9.4	9.8	9.8	8.5	7.6	7.1	7.8	6.6
5,000만~1억 원 미만	15.9	16.5	14.5	15.7	12.4	11.9	13.3	13.7
1억~3억 원 미만	35.9	31.6	34.5	34.1	29.5	30.5	28.6	30.2
3억~5억 원 미만	17.1	18.6	18.0	17.9	18.8	17.1	18.4	18.2
5억~10억 원 미만	13.1	13.4	14.2	14.1	19.1	19.6	18.5	18.2
10억 원 이상	8.1	9.0	8.5	9.4	12.2	13.3	13.2	13.0
잘 모르겠음	0.0	0.1	0.1	0.2	0.1	0.0	0.0	0.0

꾸준히 증가하여 7차년도에 28.6%였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16차년도에는 36.4%로 나타났다.

[그림 4-6] 16차(2024)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



주 :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16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0.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택이 36.7%, 임야가 16.8%, 건물이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16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7.9%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13차년도까지 증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8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6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148만 원이 증가하여 5,97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16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5.0%로 가장 높게 나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총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664	6,375	6,388	6,376	6,369	6,378	6,499	6,555
없음	42.1	38.1	37.4	36.1	35.0	27.6	26.5	23.3
250만 원 미만	5.5	6.0	6.0	4.9	5.5	5.4	4.8	5.0
250만~500만 원 미만	4.1	4.8	4.6	4.2	4.5	4.8	4.1	4.6
500만~1,000만 원 미만	10.1	10.2	10.0	9.4	10.3	10.5	10.3	10.4
1,000만~5,000만 원 미만	27.7	29.9	30.1	33.1	31.8	34.9	36.2	36.5
5,000만~1억 원 미만	6.1	6.6	6.7	7.2	7.4	10.1	10.5	11.5
1억 원 이상	4.4	4.6	5.3	5.1	5.5	6.7	7.5	8.8
평균(만 원)	1,933	2,011	2,109	2,095	2,246	2,882	3,074	3,384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6,640	6,646	6,729	6,708	6,672	6,744	6,823	6,834
없음	20.0	18.8	17.9	17.3	15.1	16.6	15.5	18.6
250만 원 미만	4.8	4.4	4.8	4.7	3.9	2.8	2.8	2.6
250만~500만 원 미만	4.5	3.8	3.1	3.0	2.8	2.6	2.1	2.0
500만~1,000만 원 미만	10.0	9.6	9.2	9.9	8.0	7.9	7.3	5.8
1,000만~5,000만 원 미만	37.9	38.6	39.4	38.4	41.2	38.3	37.7	35.0
5,000만~1억 원 미만	12.8	14.8	14.8	15.1	15.9	17.5	18.6	19.0
1억 원 이상	10.0	10.0	10.8	11.7	13.2	14.3	15.9	17.0
평균(만 원)	3,841	4,017	4,071	4,531	5,042	5,342	5,825	5,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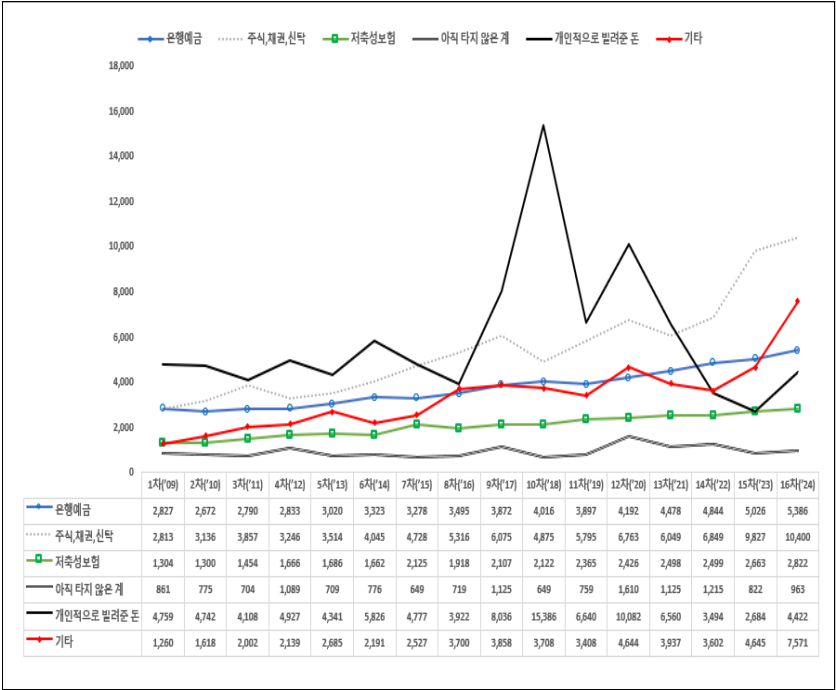
주 :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타났다. 그다음으로 5,000만~1억 원 미만인 가구가 19.0%,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17.0%,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주 :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 감소한 다음,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9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759만 원 상승한 6,075만 원이었으나 10차년도에 다시 1,200만 원 감소한 4,875만 원으로 나타났고 16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573만 원 증가한 1억 4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은행예금은 1차년도의 2,827만 원에서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한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16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360만 원 증가한 5,3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827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2,813만 원)보다 14만 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 주식/채권/신탁이 은행예금을 추월하여,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16차년도에 5,014만 원 차이가 나고 있다.

저축성 보험금은 1차년도 1,304만 원에서 16차년도 2,822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 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6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38.1%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7.7%) 당시보다 9.6%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680	6,394	6,365	6,409	6,420	6,458	6,553	6,610
부채 없음	52.3	56.1	55.9	55.1	55.0	55.3	55.3	56.3
500만 원 미만	3.9	2.3	2.7	2.3	1.8	1.7	1.9	1.6
500만~1,000만 원 미만	3.8	3.6	3.5	3.0	2.8	2.6	2.2	2.2
1,000만~5,000만 원 미만	20.8	18.6	18.3	18.4	17.8	17.6	16.3	15.1
5,000만~1억 원 미만	9.0	8.6	8.2	8.8	9.3	9.2	9.9	9.6
1억 원 이상	10.3	10.8	11.5	12.3	13.4	13.7	14.5	15.2
평균(만 원)	3,315	3,483	3,650	4,073	4,293	4,323	4,508	4,701
	9차 (‘17)	10차 (‘18)	11차 (‘19)	12차 (‘20)	13차 (‘21)	14차 (‘22)	15차 (‘23)	16차 (‘24)
전 체	6,663	6,688	6,710	6,696	6,708	6,744	6,824	6,834
부채 없음	57.1	56.7	57.4	58.3	58.7	59.9	60.8	61.9
500만 원 미만	1.4	1.0	1.2	0.8	0.8	1.1	0.8	0.9
500만~1,000만 원 미만	2.1	2.2	1.7	1.7	1.9	1.6	1.5	1.5
1,000만~5,000만 원 미만	13.4	13.0	13.1	12.2	11.9	10.2	9.8	9.3
5,000만~1억 원 미만	9.8	10.2	9.3	9.2	7.8	8.3	7.9	7.5
1억 원 이상	16.2	16.9	17.2	17.9	18.9	18.9	19.1	19.0
평균(만 원)	4,905	5,283	5,234	5,203	5,788	5,682	6,011	6,081

주 : 가구의 부채 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1차년도 3,315만 원에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10차년도 이후 5,000만 원 초반에서 정체를 보인다. 이후 13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585만 원 증가한 5,78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6차년도는 전년 대비 70만 원 증가한 6,08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2.3%였다가 2차년도에는 3.8%포인트 증가한 56.1%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6차년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16차년도에는 61.9%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16차년도의 부채 잔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9.0%,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문고 있다. 그리고 16차년도(09통합표본 5차)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만 5세 이하와 만 6세~재수생 자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0세~만 5세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 및 양육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27차년도(09통합표본 16차)부터는 사교육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0세~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8.4%였으며, 1명인 경우가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 6세~재수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1%였으며, 1명인 경우가 52.9%였으나 2명인 경우도 40.3%를 차지하였다.

<표 4-14> 16차(2024)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09통합표본)

(단위 : %)

		0세~만 5세 이하	만 6세~재수생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28.4	81.1	9.8
	없음	71.6	18.9	90.3
자녀 수	1명	78.1	52.9	83.0
	2명	20.7	40.3	16.5
	3명 이상	1.2	6.8	0.5

<표 4-15> 16차(2024)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09통합표본)

(단위 : %)

		0세~만 5세 이하(월평균)	만 6세~재수생 (월평균)	대학생 이상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3.3	25.7	38.2
	약간 부담된다	21.3	47.7	37.4
	보통이다	41.0	22.0	20.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23.6	4.2	3.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0.8	0.4	0.7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60.5	87.0	1,201.7(523.9)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49.1	58.7	1,024.7(446.8)

주 : 괄호 안의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이에 반해 9.8%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8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만 5세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5,000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 1,000원으로, 만 6세~재수생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7만 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의 경우는 24.6%이고 만 6세~재수생은 73.4%에 달했으며, 특히 만 6세~재수생을 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201만 7,000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당 연평균 1,024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523만 9,000원, 자녀당 연평균 446만 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38.2%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대다수의 가구가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KLIPS는 98표본의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취업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98표본이 아닌 2009년 추가표본을 포함한 09통합표본을 1차년도로 정의하며, 09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24년도 제16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1차년도(2009년)부터 16차년도(2024년)까지 16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 상태

〈표 5-1〉에는 09통합표본 1~16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 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

여발은 개인 표본 수이다. 09통합표본의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 수도 2차년도에 급격히 줄었으며 그 이후로도 개인 원표본 사례 수가 줄었으나 7차년도부터 9차년도에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0차년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종단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16차년도의 경우 1,278명이 더 많았다.

KLIPS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 상태 구분과는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09통합표본)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09)		14,470	11,360	3,110
2차('10)		13,470	13,149	321
3차('11)		13,133	12,847	286
4차('12)		13,025	12,795	230
5차('13)		12,819	12,613	206
6차('14)		12,089	12,068	21
7차('15)		12,735	12,401	334
8차('16)		12,776	12,575	201
9차('17)		12,916	12,729	187
10차('18)		12,810	12,605	205
11차('19)		12,679	12,502	177
12차('20)		12,500	12,341	159
13차('21)		12,403	12,195	208
14차('22)		12,471	12,256	215
15차('23)		12,478	12,293	185
16차('24)	종단 사례 수	12,373	12,222	151
	횡단 사례 수	13,651	13,426	225

주 : 1~16차년도 사례 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이며, 16차년도는 종단 사례 수와 횡단 사례 수를 같이 제시함. 횡단 사례 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 수를 나타냄.

다소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 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⁷⁾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KLIPS에서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표 5-2〉 연도별 경제활동 상태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09)	54.3	2.6	43.1
2차(10)	55.4	1.6	43.0
3차(11)	56.3	1.8	41.9
4차(12)	56.4	1.9	41.7
5차(13)	56.5	1.6	41.8
6차(14)	57.0	1.6	41.4
7차(15)	56.4	1.7	41.9
8차(16)	56.6	1.6	41.8
9차(17)	57.1	1.5	41.3
10차(18)	57.7	1.4	40.9
11차(19)	57.2	1.9	40.8
12차(20)	56.5	1.9	41.6
13차(21)	57.4	1.8	40.8
14차(22)	58.0	1.5	40.5
15차(23)	58.5	1.3	40.2
16차(24)	58.5	1.0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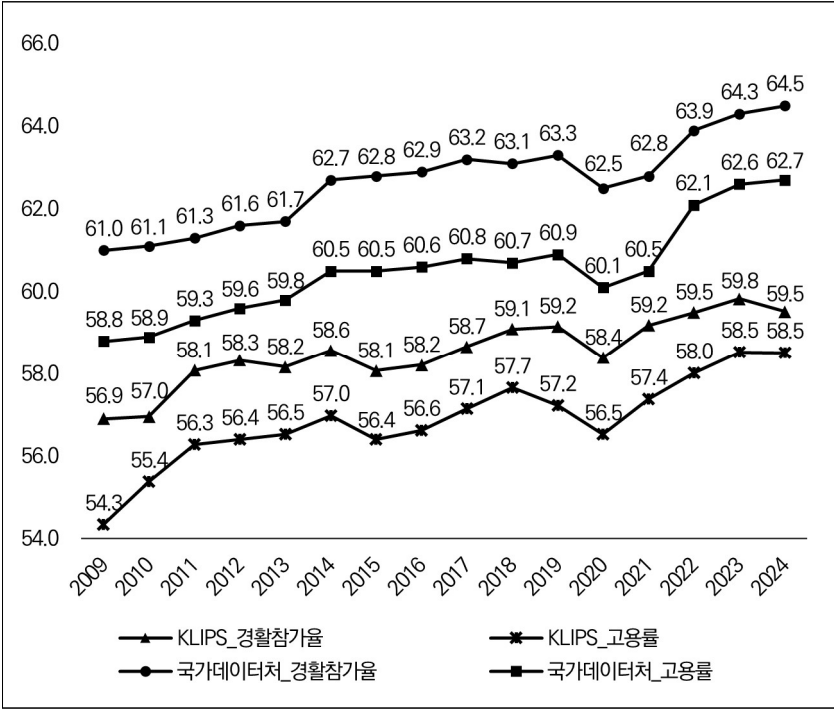
27)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7차년도에 56.4%로 소폭 감소하였다. 15차년도에 조사 이후 가장 높은 58.5%로 나타났고 16차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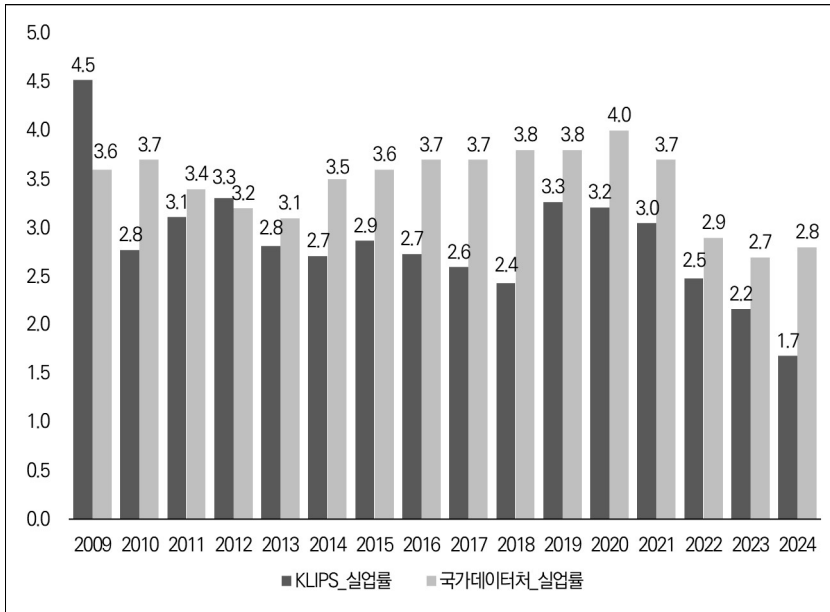
(단위 : %)



- 주 :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 2)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24년)

(단위 : %)



주 : 1)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년도에도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실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에 2.6%에서 2차년도부터 등락을 거듭하다가 12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6차년도에는 1.0%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16차년도 현재 40.5%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찰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경찰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24년 기준 KLIPS 경제활동참가율은 5.0%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고용률은 4.2%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09통합표본 1차년도에서 4.5%로 경찰의 3.6%보다 0.9%포인트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오히려 경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⁸⁾

28)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2015), 「노동패널 고용지표의 신뢰성 검토」, 홍민기 외, 『노동패널자료 연구(I) : 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참조.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6.3	18.4	75.3
2010	6.3	18.6	75.1
2011	5.9	19.1	75.0
2012	5.6	19.1	75.3
2013	5.5	18.9	75.6
2014	5.1	18.7	76.3
2015	5.1	18.4	76.5
2016	4.9	18.1	77.0
2017	4.8	17.8	77.5
2018	4.6	17.6	77.9
2019	4.3	16.9	78.8
2020	4.1	16.8	79.0
2021	4.1	16.7	79.1
2022	4.0	16.7	79.3
2023	3.7	16.0	80.3
2024	3.7	16.3	80.1

- 주 :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9차, 2013~2024년은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 3) 1차 산업 :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7.0	16.5	76.5
2010	6.6	17.1	76.3
2011	6.4	17.0	76.6
2012	6.1	16.8	77.1
2013	6.0	17.1	76.9
2014	5.6	17.3	77.2
2015	5.1	17.6	77.2
2016	4.8	17.4	77.8
2017	4.8	17.2	78.0
2018	5.0	16.9	78.1
2019	5.1	16.4	78.5
2020	5.4	16.3	78.3
2021	5.3	16.1	78.6
2022	5.4	16.1	78.5
2023	5.3	15.7	79.0
2024	5.2	15.6	79.2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9차, 2013~2024년은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이 소폭 증가한 추이로 볼 때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는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감소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찰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KLIPS와 경찰조사를 비교해 보면, KLIPS 조사에서 경찰조사보다 전문관리

직과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은 약간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직과 생산직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제 16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7	15.4	22.5	5.7	34.7
2010	22.8	14.6	22.1	5.9	34.7
2011	22.6	14.7	22.2	5.5	34.9
2012	23.5	14.7	22.8	5.2	33.9
2013	23.5	15.6	22.3	5.1	33.5
2014	24.7	15.9	22.1	4.6	32.6
2015	24.1	16.0	22.8	4.7	32.3
2016	24.3	16.5	22.7	4.6	32.0
2017	23.8	16.7	22.8	4.5	32.3
2018	24.6	16.8	22.4	4.3	31.9
2019	24.9	17.4	22.3	3.9	31.4
2020	25.0	17.3	22.2	3.9	31.6
2021	25.0	17.5	22.1	3.9	31.5
2022	25.8	18.1	21.7	3.7	30.7
2023	27.1	17.8	21.8	3.4	29.9
2024	26.6	18.2	22.1	3.4	29.7

-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6차, 2013~2024년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 3) 전문관리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포함,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09통합표본, 2009~2024년)

(단위 :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2	15.3	23.4	6.5	33.6
2010	21.5	15.7	22.5	6.1	34.2
2011	21.4	16.5	22.1	5.9	34.2
2012	21.3	16.7	22.5	5.7	33.8
2013	21.2	16.9	22.6	5.6	33.6
2014	21.4	16.9	22.9	5.2	33.6
2015	21.2	17.0	22.7	4.7	34.4
2016	21.3	17.3	22.8	4.5	34.2
2017	21.5	17.4	22.6	4.5	34.0
2018	21.9	17.8	22.4	4.7	33.3
2019	22.0	17.5	22.7	4.9	32.9
2020	21.8	17.4	22.1	5.1	33.5
2021	21.9	17.4	21.4	5.1	34.1
2022	22.5	17.3	21.2	5.2	33.8
2023	23.4	17.5	21.4	5.2	32.5
2024	23.9	17.7	21.1	5.1	32.2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2009~2012년은 제6차, 2013~2024년은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같은 구간이 아니면 시계열은 연결되지 않음. 전문관리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판매직은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포함, 생산직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20.4%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20대 이하(28.3%), 30대(24.2%), 40대(26.4%), 50대(21.8%), 60세 이상(20.1%)).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공공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

저 성별 분포에서 서비스종사자는 여성(19.1%)이 남성(7.4%)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더 많은 데 비해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비중이 절반

〈표 5-7〉 16차(202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

		농림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증 기및수 도, 원 료재생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 박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부동산 사업서 비스업	공공서 비스업	기타
성별	남성	3.9	20.4	1.4	11.4	16.1	13.9	13.7	13.3	5.9
	여성	3.5	11.3	0.3	1.6	22.1	4.0	13.0	37.3	7.0
연령	15~29세	0.5	17.5	0.5	2.5	19.9	10.7	13.5	28.3	6.7
	30~39세	1.2	19.0	1.6	3.5	19.1	10.9	13.9	24.2	6.6
	40~49세	0.8	18.8	0.8	8.4	17.1	9.3	13.4	26.4	5.2
	50~59세	2.5	16.1	1.0	9.6	19.3	10.5	12.3	21.8	6.9
	60세 이상	11.7	11.9	0.9	8.8	18.4	7.5	14.1	20.1	6.7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8.8	12.3	0.3	9.9	17.0	6.8	9.4	17.6	7.9
	고졸	4.1	19.1	0.7	9.5	24.6	8.9	12.1	13.6	7.4
	대재/중퇴	0.6	14.3	2.4	7.0	26.1	12.5	10.1	20.7	6.2
	전문대졸	1.3	18.8	0.7	6.6	19.7	10.0	12.7	23.2	7.1
	대졸 이상	1.2	14.9	1.2	5.2	13.3	10.3	16.1	32.8	5.0

주 : 1)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원료재생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을 포함.

3) 운수 및 통신업 :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을 포함

4)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포함.

5) 공공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

6) 기타 :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7)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이상을 차지했고, 60세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관리자 및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1.3%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43.1%로 나타났다.

〈표 5-8〉 16차(202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09통합표본)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성별	남성	2.2	22.0	16.6	7.4	8.2	3.7	14.4	15.6	9.9
	여성	0.5	28.8	20.5	19.1	11.3	3.1	3.0	3.2	10.6
연령	15~29세	0.0	37.8	23.1	12.1	8.4	0.3	6.7	6.5	5.2
	30~39세	0.3	32.5	27.7	12.3	7.7	0.5	7.4	6.7	5.0
	40~49세	1.3	32.3	23.9	8.8	9.0	0.7	8.8	8.8	6.5
	50~59세	2.2	21.4	14.7	12.9	11.2	2.5	11.7	13.6	9.8
	60세 이상	2.7	8.8	6.3	15.8	10.4	11.2	10.8	12.9	21.2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2	1.3	1.1	17.4	6.3	17.2	14.6	12.7	29.2
	고졸	0.8	7.2	11.2	16.6	13.5	3.7	13.6	17.7	15.7
	대재/중퇴	0.2	16.2	18.9	17.6	13.0	0.6	12.8	9.6	11.1
	전문대졸	1.0	28.1	19.9	11.9	10.8	1.2	10.6	10.7	5.8
	대졸 이상	2.7	43.1	26.8	7.8	6.5	1.1	4.3	4.3	3.4

주 : 1)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2) 군인은 제외하였음.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3절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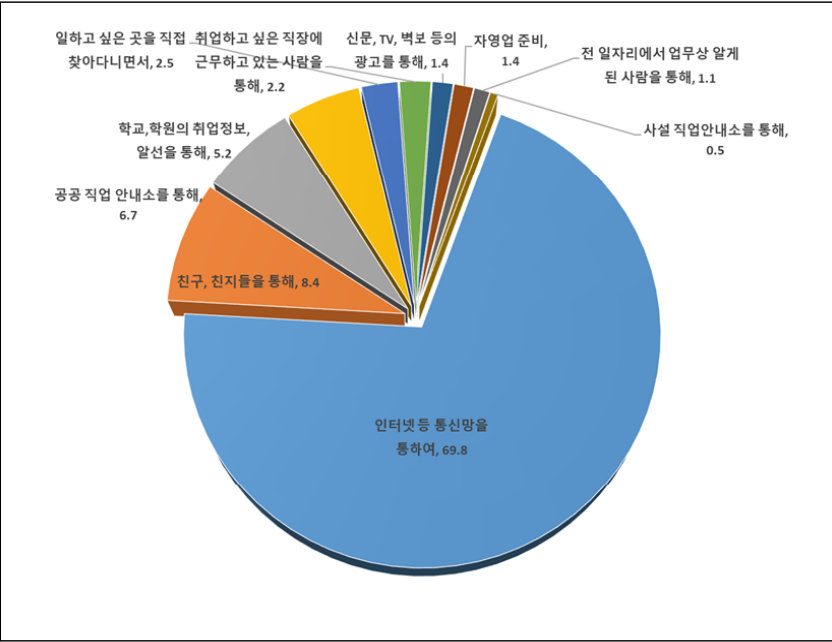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 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구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69.8%를 차지하

[그림 5-3] 16차(2024) 미취업자의 구직방법(09통합표본)

(단위 : %)



주 :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은 8.4%를 차지하였다. 공공 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6.7%,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 알선을 통해 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⁹⁾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 16차(2024) 특성별 구직방법(09통합표본)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별	남성	83.7	13.0	3.3	100.0
	여성	86.6	11.5	1.9	100.0
연령	15~29세	93.4	6.6	0.0	100.0
	30~39세	96.9	3.1	0.0	100.0
	40~49세	67.0	27.8	5.3	100.0
	50~59세	64.5	24.7	10.8	100.0
	60세 이상	41.7	43.9	14.5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43.7	44.8	11.6	100.0
	고졸	89.6	6.1	4.4	100.0
	대재/중퇴	73.0	27.0	0.0	100.0
	전문대졸	85.8	14.2	0.0	100.0
	대졸 이상	91.0	6.5	2.4	100.0

주 :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9)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 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식적 방법은 줄어들고 비공식적 방법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구직방법 보다 공식적 구직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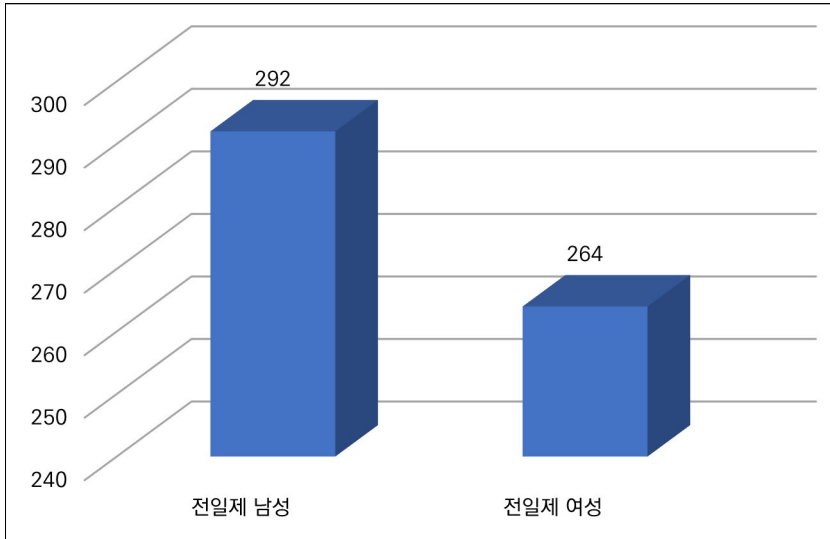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전일제에 대하여 성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92만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264만 원을 희망하였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열 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항목에 대해 평균 2.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음’(2.2점)과 ‘경험 부족’(2.5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16차(2024) 성별 평균 희망임금(09통합표본)

(단위: 만 원)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표 5-10〉 16차(2024)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09통합표본)

(단위: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9	2.2	2.1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7	3.0	2.8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0	3.4	3.2
4. 경험이 부족하다.	2.3	2.6	2.5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2	2.3	2.2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8	2.7	2.8
7. 나이가 너무 많다.	3.7	3.4	3.6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4.1	4.1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9	3.9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4.7	4.6	4.6

주: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퇴직, 산업과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본 장은 09통합표본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 6-1〉은 1~16차(2009~2024)년도 동안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920명으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2009)년도 69.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5차(2023)년도에는 77.4%, 16차(2024)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여 77.1%로 조사되었다.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5,920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먼저 [그림 6-1]에서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자의 비중이 36.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고졸자의 비중이 31.0%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에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0대가 22.8%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특히 높았는데(16.4%),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름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 30~4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시사한다.

〈표 6-2〉에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35.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이 18.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농림어업은 0.5%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산업별 분포의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남성은 광공업(24.1%), 기타 서비스업(23.5%), 건설업(12.7%)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기타 서비스업(49.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8.5%), 광공업(12.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6-1〉 임금근로자 수와 비중(09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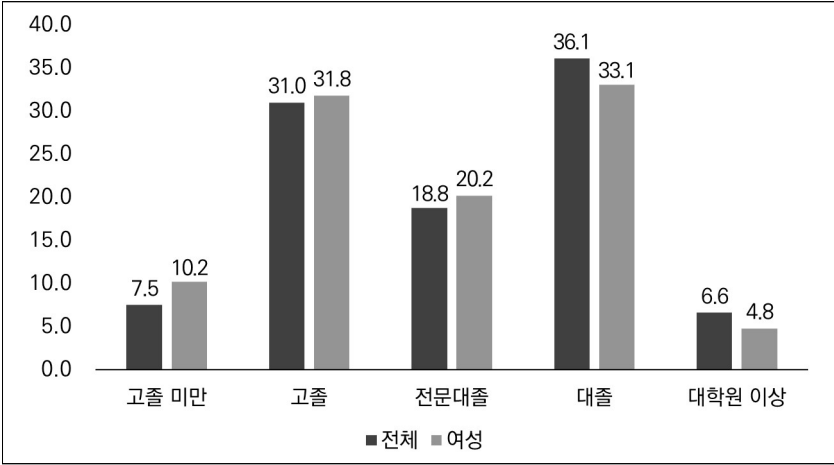
(단위 :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09)	5,189	60.9	39.1	69.9
2차('10)	5,084	59.9	40.1	70.7
3차('11)	5,148	60.0	40.0	72.1
4차('12)	5,210	59.5	40.5	72.6
5차('13)	5,202	59.5	40.5	73.0
6차('14)	5,073	59.6	40.4	73.7
7차('15)	5,342	59.3	40.7	74.2
8차('16)	5,483	58.5	41.5	74.3
9차('17)	5,671	57.1	42.9	74.9
10차('18)	5,739	57.0	43.0	75.3
11차('19)	5,754	56.9	43.1	76.2
12차('20)	5,642	56.8	43.2	76.3
13차('21)	5,686	56.3	43.7	76.4
14차('22)	5,872	56.1	43.9	77.1
15차('23)	5,999	56.2	43.8	77.4
16차('24)	5,920	55.3	44.7	77.1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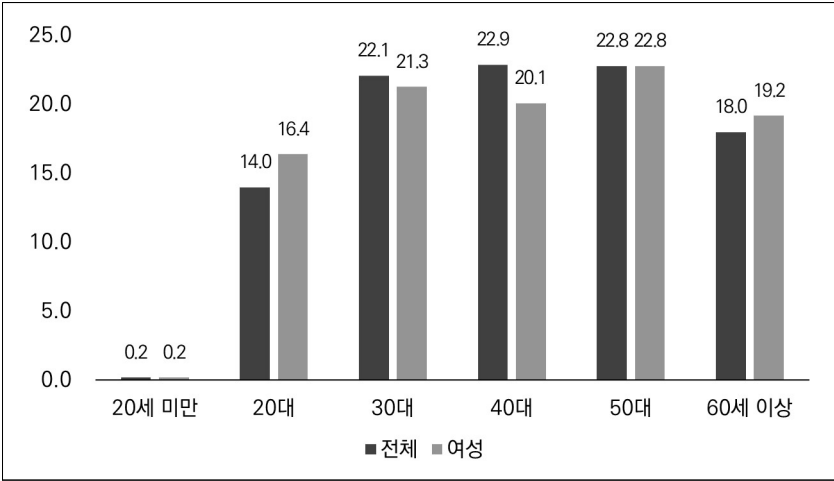
(단위 : %)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이 29.7%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문관리직(31.5%), 서비스직(25.8%), 사무직(24.3%)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산업	농림어업	0.5	0.6	0.5
	광공업	18.7	24.1	12.1
	건설업	7.7	12.7	1.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1.1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0	12.1	18.5
	운수통신업	8.9	12.3	4.6
	금융 및 부동산업	5.9	5.8	6.1
	공공서비스업	7.2	7.8	6.4
	기타 서비스업	35.3	23.5	49.9
직종	전문관리직	29.7	28.2	31.5
	사무직	22.4	20.8	24.3
	서비스직	17.5	10.8	25.8
	농림어업직	0.2	0.3	0.1
	생산직	30.2	39.9	18.2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0.6	27.0	35.2
	10~29인	19.3	18.3	20.6
	30~99인	20.2	20.7	19.5
	100~299인	9.8	11.0	8.3
	300~499인	3.5	3.2	3.8
	500인 이상	16.5	19.8	12.5
기업 형태	민간회사	73.8	76.5	70.4
	외국인회사	0.9	1.0	0.8
	공기업	5.2	4.7	5.8
	법인단체	7.0	5.7	8.7
	정부기관	11.4	10.3	12.9
	비소속	1.2	1.3	0.9
	기 타	0.5	0.5	0.5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 함	93.2	91.7	95.0
	2조 2교대제	2.7	3.8	1.4
	3조 3교대제	2.1	1.8	2.4
	기타 교대제	2.0	2.7	1.1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0	80.5	72.6
	임시직	17.1	12.3	23.0
	일용직	5.9	7.2	4.3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99인이 20.2%로 두 번째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은 10인 미만(여성 35.2%, 남성 27.0%)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고(73.8%), 정부기관이 그 뒤를 이었으며(11.4%), 남녀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6.8%였으며, 남성(8.3%)이 여성(5.0%)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7.0%, 임시·일용직이 23.0%인 반면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4년 경찰조사에서 조사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25.8%이다.³⁰⁾ KLIPS와 경찰조사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차이는 조사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경찰조사에서는 퇴직금 유무 등 여러 기준들을 적용하는 반면에 KLIPS에서는 고용계약 기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남성의 고용안정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시사하며,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여성보다 많은 남성이 종사하기 때문이다.

제2절 근로시간

16차(2024)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30) 국가데이터처(2025), 「경제활동인구조사」.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6-3〉은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1차(2009)년도 46.7시간에서 16차(2024)년도 39.3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여성보다 길었으며, 16차(2024)년도의 남녀 간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3.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1.0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 시간)

	전 체	남 성	여 성
1차('09)	46.7	48.4	44.0
2차('10)	46.9	48.7	44.2
3차('11)	46.2	48.1	43.3
4차('12)	45.2	47.0	42.5
5차('13)	44.8	46.7	42.0
6차('14)	44.7	46.9	41.5
7차('15)	43.8	45.7	41.0
8차('16)	43.5	45.5	40.7
9차('17)	43.0	45.3	40.0
10차('18)	42.1	44.1	39.4
11차('19)	41.3	43.2	38.8
12차('20)	40.6	42.5	38.1
13차('21)	40.1	42.1	37.7
14차('22)	39.8	41.4	37.6
15차('23)	39.5	41.2	37.4
16차('24)	39.3	41.0	37.3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간이 가장 긴 반면, 19세 미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20대가 38.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 40대 핵심연령층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격차는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40대(42.4시간), 여성은 30대(39.8시간)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문대졸과 대졸에서 각각 40.9시간, 40.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력에서 남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길게 나타났고 특히 고졸 미만에서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5.8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연령별	19세 미만	20.8	18.3	22.8
	20~29세	38.8	39.2	38.3
	30~39세	41.0	42.0	39.8
	40~49세	40.9	42.4	38.5
	50~59세	40.1	41.9	37.8
	60세 이상	35.0	38.0	31.7
학력별	고졸 미만	32.7	36.2	30.4
	고졸	39.1	41.3	36.5
	전문대졸	40.9	42.3	39.4
	대졸	40.1	41.0	38.7
	대학원 이상	39.6	40.7	37.3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41.4	42.3	40.1
임시직	32.6	36.7	30.0
일용직	32.6	34.4	28.7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산업별	농림어업	33.8	40.0	25.2
	광공업	41.5	41.9	40.6
	건설업	39.2	39.2	39.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1.1	41.6	39.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9.7	41.6	38.3
	운수통신업	41.4	42.2	38.9
	금융 및 부동산업	41.2	43.4	38.6
	공공서비스업	38.0	40.3	34.6
	기타 서비스업	37.5	39.9	36.1
직종별	전문관리직	40.0	41.1	38.7
	사무직	40.5	41.4	39.4
	서비스직	37.7	41.1	35.9
	농림어업직	36.3	34.7	40.1
	생산직	38.9	40.8	33.7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39.3	41.4	37.2
	10~29인	40.0	42.3	37.4
	30~99인	40.4	41.7	38.7
	100~299인	40.8	41.4	39.7
	300~499인	40.3	41.4	39.1
	500인 이상	41.0	41.4	40.2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4시간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2.6시간보다 약 8.8시간 길었다. 또한 남녀 모두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운수통신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각각 41.5시간, 41.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림어업이 33.8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고 광공업과의 차이는 7.7시간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 43.4시간, 여성은 광공업에서

40.6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14.8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40.5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농림어업직이 36.3시간으로 가장 짧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생산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7.1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 간 차이는 1.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39.3시간), 남녀 간 차이는 4.2시간이었다.

2. 초과근로시간

여기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비 중
초과근로를 안 함		90.3
초과근로를 함		9.7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6.6
초과급여 지급 안 함		31.9
초과급여 지급함		68.1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6.4
	일정 금액	11.0
	기준 없음	2.6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18.8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임.

을 분석한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9.7%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로가 대단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1%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86.4%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1.0%는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1만 8,800원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주기와 산정방식, 수준과 내용, 그리고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

〈표 6-8〉에서 임금근로자의 97.5%가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는 각각 1.3%, 0.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6.7%, 여성의 98.4%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13.0%로, 월급제의 비중은 79.6%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76.4%, 83.6%로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봉제의 비중은 남성이 16.5%, 여성이 8.7%로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19.1%)이 여성(11.8%)

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5.9%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6.8%로 가장 낮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산정방식(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 지급주기	한 달	97.5	96.7	98.4
	보름/주	0.2	0.2	0.3
	매일	1.3	1.6	1.0
	수시	0.9	1.4	0.3
	기타	0.0	0.0	0.0
임금 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3.0	16.5	8.7
	월급	79.6	76.4	83.6
	주급/격주	0.0	0.0	0.1
	일당	3.5	4.7	2.0
	시간급제	2.3	1.2	3.7
	도급제	0.3	0.3	0.2
	실적급	1.1	0.7	1.6
	기타	0.1	0.2	0.1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19.1	80.9
	여성	11.8	88.2
산업	농림어업	15.1	84.9
	광공업	20.4	79.6
	건설업	6.8	93.2
	전기·가스 및 수도업	35.9	64.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9.3	90.7
	운수통신업	19.9	80.1
	금융 및 부동산업	27.3	72.7
	공공서비스업	27.1	72.9
	기타 서비스업	12.5	87.5

〈표 6-9〉의 계속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직종	전문관리직	20.2	79.8
	사무직	20.6	79.4
	서비스직	10.0	90.0
	농림어업직	0.0	100.0
	생산직	11.4	88.6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2	80.8
	임시직	5.3	94.7
	일용직	1.3	98.7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4.0	96.0
	10~29인	8.9	91.1
	30~99인	12.6	87.4
	100~299인	15.7	84.3
	300~499인	18.3	81.7
	500인 이상	37.9	62.1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성과급제 적용 비중이 20.6%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서비스직이 10.0%로 가장 낮은 비중의 근로자가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상용직에 비해 성과급제의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37.9%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 비율이 낮아져 10~29인 사업장은 8.9%, 10인 미만 사업장은 4.0%만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과 “현재 이 일자리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월평균 임금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6-10〉은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2009)년도 235만

3,000원에서 15차(2023)년도 281만 1,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6차(2024)년도에 소폭 하락한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1차(2009)년도 월평균 실질임금 162만 9,000원은 당시 남성(281만 5,000원)의 57.9%에 불과했으며, 16차(2024)년도의 218만 1,000원도 남성(330만 원)의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보여준다. 연령별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경우 50대가 460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40대가 308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20대가 259만 5,000원,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166만 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197.4(0.011)	235.3	236.2(0.013)	281.5	136.7(0.015)	162.9
2차(10)	204.2(0.010)	236.4	244.4(0.012)	283.0	144.1(0.015)	166.9
3차(11)	214.7(0.011)	238.9	259.4(0.013)	288.7	147.6(0.015)	164.3
4차(12)	223.7(0.010)	243.6	269.2(0.012)	293.2	156.8(0.015)	170.7
5차(13)	232.7(0.011)	250.1	279.9(0.013)	300.9	163.2(0.015)	175.4
6차(14)	237.7(0.011)	252.3	283.9(0.013)	301.4	169.3(0.016)	179.7
7차(15)	244.6(0.011)	257.8	292.0(0.013)	307.8	175.3(0.015)	184.8
8차(16)	249.8(0.011)	260.8	296.9(0.013)	310.0	183.2(0.015)	191.3
9차(17)	256.5(0.010)	262.7	308.2(0.013)	315.7	187.5(0.014)	192.0
10차(18)	266.7(0.010)	269.2	317.8(0.012)	320.7	198.9(0.013)	200.7
11차(19)	274.1(0.009)	275.5	323.2(0.012)	325.0	209.2(0.013)	210.3
12차(20)	281.4(0.009)	281.4	330.6(0.011)	330.6	216.4(0.013)	216.4
13차(21)	289.0(0.009)	281.9	341.4(0.011)	333.1	221.2(0.013)	215.8
14차(22)	304.4(0.009)	282.6	357.7(0.011)	332.1	236.1(0.014)	219.1
15차(23)	313.7(0.009)	281.1	369.7(0.011)	331.3	241.8(0.013)	216.7
16차(24)	319.7(0.009)	280.0	376.8(0.011)	330.0	249.0(0.014)	218.1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2020=100)³¹⁾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102.0	92.4	109.6
	20~29세	243.7	259.5	229.5
	30~39세	315.8	347.2	274.0
	40~49세	392.1	445.8	308.5
	50~59세	370.5	460.6	258.6
	60세 이상	229.1	286.3	166.2
학 력	고졸 미만	178.9	242.9	137.1
	고졸	268.1	319.1	207.6
	전문대졸	316.1	373.5	254.0
	대졸	369.5	414.7	304.2
	대학원 이상	462.6	511.9	361.0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만 원, %)

		월평균 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359.0	
	임시직	176.0	49.0
	일용직	224.0	62.4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이상의 월평균 임금은 462만 6,000원으로 고졸자의 268만 1,000원 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 9,000원으로 고졸자의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83.906, 2010년 86.373, 2011년 89.850, 2012년 91.815, 2013년 93.010, 2014년 94.196, 2015년 94.861, 2016년 95.783, 2017년 97.645, 2018년 99.086, 2019년 99.466, 2020년 100.00, 2021년 102.50, 2022년 107.72, 2023년 111.59, 2024년 114.18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업	농림어업	221.4	312.3	95.6
	광공업	370.9	416.1	260.2
	건설업	346.3	353.9	272.7
	전기·가스 및 수도업	464.6	513.0	30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0.0	320.5	210.9
	운수통신업	355.7	377.4	282.4
	금융부동산업	372.6	407.8	330.7
	공공서비스업	340.6	389.3	266.5
	기타 서비스업	288.4	361.4	245.6
직종	전문관리직	376.1	445.1	299.7
	사무직	356.3	411.5	297.7
	서비스직	240.6	327.1	195.8
	농림어업직	222.1	210.6	249.7
	생산직	284.0	325.2	172.1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242.0	286.3	199.3
	10~29인	289.9	345.2	228.2
	30~99인	319.4	365.2	257.9
	100~299인	359.8	406.2	282.7
	300~499인	363.6	435.3	287.4
	500인 이상	477.3	540.6	350.8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315.4	372.9	237.8
	외국인회사	444.3	520.2	322.8
	공기업	340.3	410.3	269.7
	법인단체	336.3	405.6	280.7
	정부기관	332.9	381.0	285.6
	소속이 없음	209.4	258.4	123.8
	기타	243.8	273.8	202.9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59만 원인 데 비해 임시직은 상용직의 49.0%, 일용직은 6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은 산업별과 직종별, 그리고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64만 6,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금융 및 부동산업이 372만 6,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513만 원), 광공업(416만 1,000원)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금융 및 부동산업(330만 7,000원), 전기, 가스 및 수도업(300만 9,000원) 순으로 높았다.

임금수준은 직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임금만 350만 원을 상회하고, 나머지 직종은 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477만 3,000원,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임금은 각각 242만 원과 289만 9,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회사가 444만 3,000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공기업이 340만 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는 315만 4,000원으로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항들을 설문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기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유무 등을 조사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여부와 취

업자의 근로지속성 여부, 향후 근로지속가능기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파견 및 용역 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또한 4차(2012)년도부터는 2009년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설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상술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³²⁾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9%였다. 27.9%의 한시적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8.0%의 비전형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전형근로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65.1	71.1	57.8
비정규직	34.9	28.9	42.2
한시적 근로자	27.9	24.5	32.1
시간제근로자	13.2	6.4	21.7
비전형근로자	8.0	8.5	7.5
파견근로자	0.8	0.5	1.0
용역근로자	1.9	2.1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	0.8	1.7
가정내근로자	0.4	0.2	0.8
일일근로자	4.4	5.5	3.0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그 비중의 합이 반드시 100이 되지 않음.

32) KLIPS는 5차(2013)년도까지는 별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분류해 왔으나, 6차(2014)년도부터는 노사정 합의문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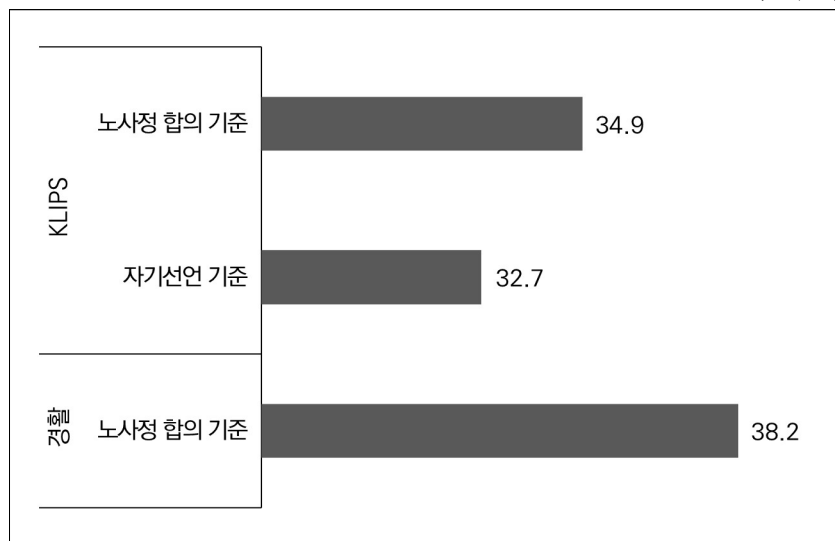
형은 4.4%의 일일근로자였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0.8%, 1.9%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3분의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남성 비전형근로자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일용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6-3]은 KLIPS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KLIPS에서는 여러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문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KLIPS의 2002년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4.9%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8.2%와 소폭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2.7%로 나타났다.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4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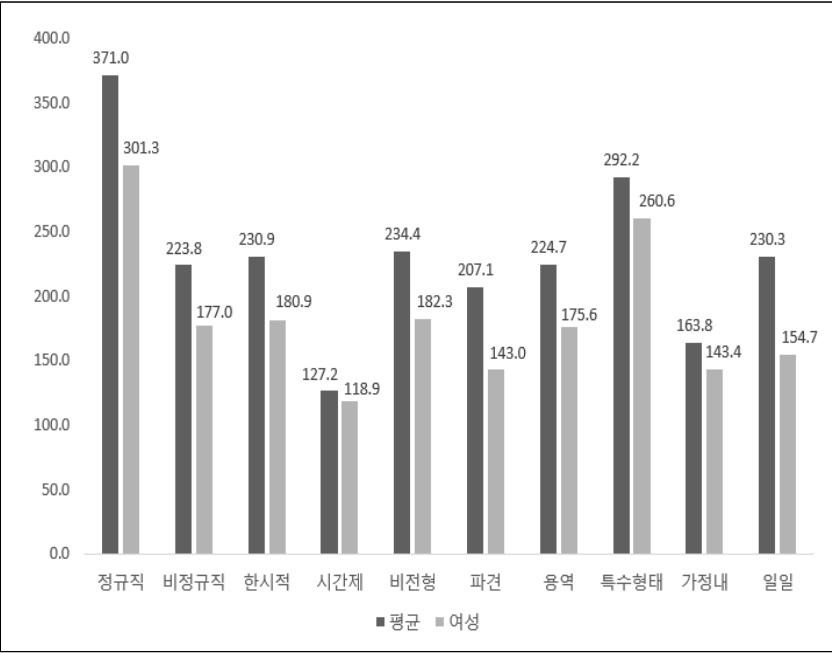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그림 6-4]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용형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23만 8,000원)은 정규직 근로자(371만 원)의 6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임금(292만 2,000원)도 정규직 근로자의 78.8%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성 일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54만 7,000원)은 전체 일일근로자(230만 3,000원)의 6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만 원)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KLIPS는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의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 본금 및 화폐가치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장에서도 제6장과 마찬가지로 09통합표본이 사용되었다.

1차(2009)년도부터 16차(2024)년도까지 각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09통합표본)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 수	남성	여성	
1차(09)	2,598	59.5	40.5	30.1
2차(10)	2,466	59.4	40.6	29.3
3차(11)	2,364	60.6	39.4	27.9
4차(12)	2,393	61.4	38.6	27.4
5차(13)	2,354	60.4	39.6	27.0
6차(14)	2,249	61.6	38.4	26.3
7차(15)	2,255	61.5	38.5	25.8
8차(16)	2,251	61.5	38.5	25.7
9차(17)	2,238	61.6	38.4	25.1
10차(18)	2,192	61.3	38.7	24.7
11차(19)	2,086	62.0	38.0	23.8
12차(20)	2,033	62.6	37.4	23.7
13차(21)	2,034	62.2	37.8	23.6
14차(22)	1,992	63.2	36.8	22.9
15차(23)	1,986	61.6	38.4	22.6
16차(24)	2,011	62.0	38.0	22.9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하는 근로자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에서 16차(2024)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21.5%, 자영업자가 64.8%, 무급가족종사자가 13.8%였다.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27.8	52.9	19.3
2차('10)	26.8	54.2	19.0
3차('11)	28.0	53.7	18.3
4차('12)	25.3	56.9	17.8
5차('13)	25.2	56.8	18.0
6차('14)	24.5	57.1	18.4
7차('15)	26.1	56.9	17.0
8차('16)	27.3	55.6	17.1
9차('17)	28.0	54.8	17.2
10차('18)	27.0	55.8	17.2
11차('19)	26.0	57.7	16.4
12차('20)	24.8	59.4	15.9
13차('21)	23.1	61.2	15.7
14차('22)	21.8	63.2	14.9
15차('23)	24.9	60.8	14.3
16차('24)	21.5	64.8	13.8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비중은 2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50~60%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0% 후반대에서 소폭 증감하다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각각 24.9%, 70.8%, 4.2%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각각 15.8%, 54.9%, 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20대에서 71.9%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59.0%로 낮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주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반대

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³⁾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통신업(88.5%)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24.9	70.8	4.2
	여성	15.8	54.9	29.3
연령	20~29세	21.0	71.9	7.1
	30~39세	26.0	65.0	9.0
	40~49세	31.4	59.0	9.7
	50~59세	22.8	64.0	13.1
	60세 이상	14.0	68.0	18.0
학력	고졸 미만	9.6	68.5	21.9
	고졸	16.2	68.1	15.7
	전문대졸	30.7	57.9	11.4
	대졸	31.5	61.1	7.5
	대학원 이상	38.7	58.5	2.8
산업	농림어업	3.3	66.5	30.2
	광공업	34.7	43.9	21.4
	건설업	21.5	72.1	6.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9.9	53.8	16.3
	운수통신업	9.6	88.5	1.9
	금융 및 부동산업	17.9	76.4	5.7
	기타 서비스업	23.8	69.0	7.2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제2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일수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설문문항

33) 2017년 개정 10차 산업표준분류.

으로는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묻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가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불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규칙적인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세분하여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은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와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표 7-4>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 경우 67.8%, 불규칙적인 경우 32.2%였고, 특히 불규칙적이고 계절의 영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 영향 없음	계절 영향 있음	
전 체		67.8	13.8	18.4	5.5
종사상 지위	고용주	90.0	6.3	3.7	5.6
	자영업자	62.7	16.8	20.5	5.4
	무급가족종사자	57.2	11.3	31.5	5.6
산업	농림어업	14.8	6.8	78.4	5.4
	광공업	79.2	16.8	3.9	5.3
	건설업	50.0	19.4	30.5	5.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0.4	11.2	8.3	5.9
	운수통신업	72.4	19.0	8.7	5.3
	금융 및 부동산업	78.8	18.9	2.2	5.1
	기타 서비스업	78.9	15.3	5.8	5.4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향을 받는 경우가 18.4%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90.0%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62.7%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용주(3.7%)보다 자영업자(20.5%)와 무급가족종사자(31.5%)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85.2%, 건설업 종사자의 49.9%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8.4%, 3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일수는 5.5일이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5.4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5.9일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길었고, 건설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이 5.1일로 가장 짧았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차(2009)년도에 52.0시간이었으나 2~6차(2010~2014)년도 동안 50시간 전후를 유지했고, 7차(2015)년도 이후 감소하여 16차(2024)년도에는 43.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5〉에서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16차(2024)년도에는 고용주의 경우 47.0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42.4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1.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6〉은 16차(2024)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의 49.9%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9.3시간보다 약 3.9시간 더 긴 것이다.

성별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8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4.0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단위 :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52.0(0.008)	55.3(0.013)	50.5(0.012)	51.2(0.019)
2차(10)	50.7(0.008)	54.9(0.014)	49.3(0.011)	48.7(0.018)
3차(11)	50.1(0.008)	53.0(0.015)	49.5(0.012)	47.4(0.019)
4차(12)	50.1(0.008)	53.5(0.014)	49.6(0.011)	47.1(0.020)
5차(13)	49.3(0.008)	52.5(0.014)	48.4(0.012)	47.7(0.020)
6차(14)	50.1(0.009)	53.2(0.016)	48.9(0.012)	49.6(0.021)
7차(15)	48.7(0.008)	51.9(0.015)	47.7(0.011)	47.3(0.022)
8차(16)	48.5(0.008)	51.4(0.013)	47.4(0.012)	47.7(0.019)
9차(17)	48.0(0.008)	51.3(0.013)	47.3(0.011)	44.6(0.022)
10차(18)	47.3(0.008)	50.1(0.013)	46.7(0.012)	44.6(0.020)
11차(19)	46.4(0.009)	49.9(0.014)	45.8(0.012)	43.1(0.024)
12차(20)	46.1(0.009)	49.7(0.014)	45.8(0.011)	41.4(0.024)
13차(21)	45.4(0.009)	48.7(0.013)	44.8(0.012)	42.8(0.023)
14차(22)	45.1(0.009)	47.9(0.016)	44.7(0.012)	42.8(0.023)
15차(23)	44.0(0.010)	48.0(0.016)	42.7(0.013)	42.7(0.025)
16차(24)	43.2(0.009)	47.0(0.016)	42.4(0.012)	41.0(0.024)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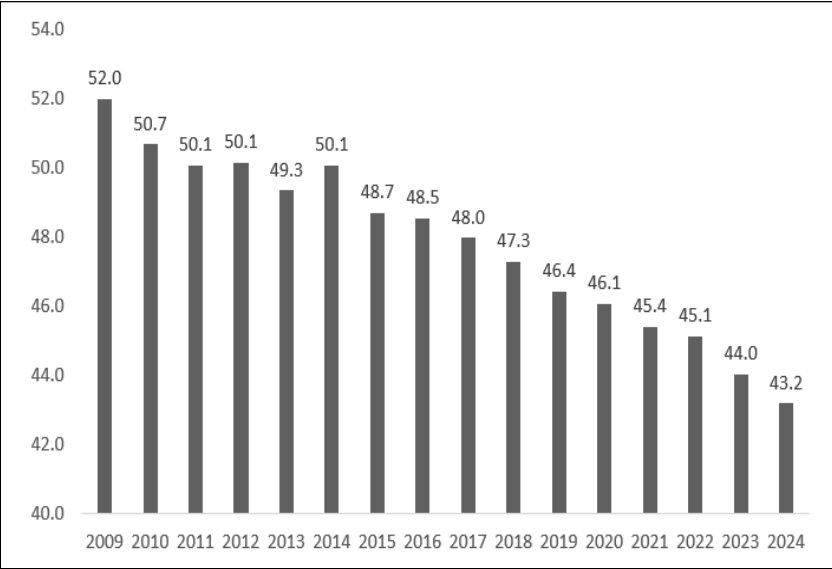
금근로자보다 약 3.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대에서 45.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가장 짧은 연령대는 36.5시간을 일하는 20대였다. 한편 교육수준 별로 볼 때 고졸과 전문대졸이 45.2시간으로 가장 길게,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36.6시간으로 가장 짧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7〉에서는 16차(2024)년도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8.5시간, 그다음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높은 운수통신업은 46.9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71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시간)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5.0	19.4	25.7	30.8	16.6	2.5	43.2
성별	남성	3.9	14.8	24.8	35.6	18.0	2.9	45.0
	여성	6.9	26.8	27.3	22.9	14.4	1.8	40.2
연령	20~29세	20.2	13.6	24.7	38.7	2.7	0.0	36.5
	30~39세	3.3	23.5	23.2	29.2	18.6	2.2	43.3
	40~49세	5.1	16.4	32.2	28.1	16.5	1.7	42.9
	50~59세	2.1	14.6	27.2	32.2	20.2	3.7	45.9
	60세 이상	6.9	24.0	21.8	31.0	14.1	2.1	41.5
학력	고졸 미만	8.0	25.1	22.3	28.5	14.4	1.7	40.5
	고졸	3.2	17.3	23.4	33.3	19.8	3.1	45.2
	전문대졸	2.7	14.9	28.1	32.3	19.6	2.3	45.2
	대졸	6.4	20.0	28.9	29.6	12.6	2.5	41.7
	대학원 이상	9.6	26.7	39.1	15.7	8.9	0.0	36.6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8.6	41.1	22.9	17.7	9.5	0.2	35.8
	광공업	3.0	12.8	43.5	32.5	5.5	2.7	42.4
	건설업	9.1	9.7	38.2	37.3	5.8	0.0	4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8	12.6	18.0	36.6	25.0	5.0	48.5
	운수통신업	0.7	16.0	24.3	34.0	20.8	4.1	46.9
	금융 및 부동산업	7.8	17.6	47.4	18.1	8.5	0.5	39.0
	기타 서비스업	7.2	21.7	24.3	30.2	15.9	0.6	40.7
종업원 규모	0명	6.0	22.6	23.2	29.8	16.2	2.1	42.1
	1~4인	1.1	9.2	29.6	36.9	19.9	3.4	47.5
	5~9인	8.7	2.2	50.6	21.9	8.9	7.7	44.7
	10인 이상	2.4	17.8	57.2	15.1	7.6	0.0	41.1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한편 종업원 규모가 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7.5시간인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41.1시간으로 약 6.4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제3절 월평균 소득

〈표 7-8〉은 1~16차(2009~2024)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2009)년도 251만 4,000원에서 6차(2014)년도에 310만 4,000원으로 증가했으나 7차(2015)년도에 303만 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11차(2019)년도에는 355만 3,000원이었다가 12차(2020)년도에 354만 1,000원, 13차(2021)년도에 337만 6,000원으로 감소 후 다시 증가하여 16차(2024)년도에 419만 8,000원으로 변화해왔다.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09통합표본)

(단위 :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251.4(0.028)	299.6	283.4(0.032)	337.8	177.1(0.049)	211.1
2차(10)	259.9(0.027)	301.0	288.0(0.031)	333.4	193.4(0.050)	223.9
3차(11)	275.1(0.030)	306.1	306.9(0.035)	341.6	196.0(0.046)	218.1
4차(12)	283.9(0.030)	309.2	315.6(0.034)	343.8	203.1(0.048)	221.2
5차(13)	300.8(0.028)	323.4	340.1(0.032)	365.6	207.9(0.047)	223.5
6차(14)	310.4(0.028)	329.5	349.2(0.032)	370.7	213.9(0.051)	227.1
7차(15)	303.3(0.026)	319.7	341.8(0.029)	360.3	210.7(0.044)	222.1
8차(16)	321.1(0.028)	335.2	363.7(0.032)	379.7	222.5(0.041)	232.3
9차(17)	334.3(0.033)	342.3	373.2(0.039)	382.2	240.8(0.046)	246.6
10차(18)	339.3(0.025)	342.4	382.2(0.028)	385.7	238.5(0.045)	240.7
11차(19)	355.3(0.037)	357.2	401.2(0.043)	403.4	242.3(0.046)	243.6
12차(20)	354.1(0.043)	354.1	396.3(0.052)	396.3	251.1(0.044)	251.1
13차(21)	337.6(0.032)	329.4	382.8(0.037)	373.4	228.2(0.050)	222.7
14차(22)	354.0(0.027)	328.7	398.2(0.031)	369.7	244.9(0.042)	227.3
15차(23)	374.5(0.025)	335.6	418.8(0.029)	375.3	275.7(0.044)	247.1
16차(24)	419.8(0.036)	367.6	474.3(0.042)	415.4	301.1(0.062)	263.7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³⁴⁾
4)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월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녀 간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301만 1,000원으로 남성의 474만 3,000원에 비해 63.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20대가 520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가 68.5%

34)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83.906, 2010년 86.373, 2011년 89.850, 2012년 91.815, 2013년 93.010, 2014년 94.196, 2015년 94.861, 2016년 95.783, 2017년 97.645, 2018년 99.086, 2019년 99.466, 2020년 100.00, 2021년 102.50, 2022년 107.72, 2023년 111.59, 2024년 114.18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2.6	9.2	12.3	18.9	57.1	419.8
연령	20~29세	4.4	11.6	20.1	30.1	33.9	520.1
	30~39세	2.0	6.3	11.7	20.6	59.5	405.4
	40~49세	2.1	2.6	11.7	19.8	63.8	447.0
	50~59세	2.2	4.6	10.3	14.4	68.5	512.3
	60세 이상	3.2	17.5	14.1	20.9	44.4	324.1
학력	고졸 미만	4.6	24.9	20.1	17.7	32.8	242.8
	고졸	1.4	7.3	10.9	21.2	59.2	400.1
	전문대졸	3.4	5.7	6.9	16.8	67.2	562.4
	대졸	3.1	3.9	12.2	17.0	63.8	484.3
	대학원 이상	0.0	10.3	13.1	20.1	56.6	419.6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60세 이상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17.5%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학력의 월평균 소득이 562만 4,000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과 그 이상 학력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 학력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8,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7.8%에 불과했다. 또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다른 학력의 절반 수준인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다른 학력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에는 16차(2024)년도 기준 사업체 특성과 종업원 규모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로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건설업 종사자가 606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공업 종사자가

569만 8,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 9,000원으로 나타나 가장 낮았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4.8	37.9	14.4	13.4	29.5	224.9
	광공업	5.3	4.3	6.4	10.5	73.5	569.8
	건설업	5.7	0.0	1.3	10.7	82.2	606.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1	6.7	13.5	20.5	57.2	439.4
	운수통신업	0.9	0.9	9.9	20.8	67.4	434.9
	금융 및 부동산업	3.0	3.8	15.1	26.3	51.8	336.1
	기타 서비스업	1.4	8.0	14.9	21.2	54.5	409.8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8	11.9	15.5	21.3	48.4	337.4
	1~4인	2.0	1.0	2.4	12.0	82.6	592.4
	5~9인	0.0	0.0	6.0	9.1	84.9	766.8
	10인 이상	2.9	0.0	0.0	6.4	90.7	1,381.3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8.1	1.9	39.8	24.1	16.6	19.6	344.5

주 :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적자액은 적자를 보고 있는 응답자 중 적자액(4,507만 원)을 포함하여 계
산함.

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종업원이 없는 사업장의 비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337만 4,000원인 데 반해 10인 이상 사업장은 1,381만 3,000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은 16차(2024)년도에 조사된 적자액 규모이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1.9%로 낮은 비중을 보였고, 월평균 적자액은 344만 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제4절 사업체의 창업

KLIPS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 사업체의 창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14.2%로, 창업한 경우 84.4%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가 고용주보다 창업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7-13〉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9.0%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의 비중이 66.3%,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비중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84.4	63.2	89.3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14.2	36.8	9.0
기타	1.4	0.0	1.7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 본인, 가족 또는 친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고용주보다 26.7%포인트 높은 93.0%로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7.7%포인트 낮은 4.8%로 나타났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09통합표본, 2024년)

(단위 :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89.0	66.3	93.0
동업자	1.1	4.6	0.5
은행 등의 융자	6.0	12.6	4.8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0.1	0.8	0.0
사채업자	0.0	0.0	0.0
정부의 보조	2.5	15.8	0.1
기타	1.3	0.0	1.5

주 :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 8 장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것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³⁵⁾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KLIPS의 18통합표본 5~7차(2022~2024년도)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전국 단위의 분석표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18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2024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4.2명이며, 반면 실업으로

35)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18통합표본)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5차('22)→6차('23)	6차('23)→7차('24)
취업	취업	93.8	94.2
	실업	1.0	0.7
	비경제활동	5.3	5.2
실업	취업	41.0	44.4
	실업	15.2	12.9
	비경제활동	43.8	42.7
비경제활동	취업	11.2	9.8
	실업	1.5	1.1
	비경제활동	87.3	89.1

주 : 18통합표본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6→7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옮겨간 사람 수는 0.7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는 5.2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0.7%이며 취업지속확률은 94.2%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2023 → 2024년도의 경우 95.6%인데 여성의 경우는 92.2%이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7.1%로 남성 3.8%의 두 배를 웃돈다.

이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2023 → 2024년도의 경우 40대(96.5%), 50대(96.3%), 30대(95.1%), 20대(91.7%), 60대

〈표 8-2〉 성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18통합표본)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5차('22)→6차('23)	6차('23)→7차('24)
남성	취업	취업	95.6	95.6
		실업	0.9	0.7
		비경제활동	3.5	3.8
	실업	취업	42.7	40.3
		실업	18.1	14.7
		비경제활동	39.2	45.1
	비경제활동	취업	13.5	11.0
		실업	2.3	1.3
		비경제활동	84.1	87.7
여성	취업	취업	91.2	92.2
		실업	1.1	0.8
		비경제활동	7.7	7.1
	실업	취업	39.2	49.2
		실업	12.2	10.8
		비경제활동	48.7	40.0
	비경제활동	취업	10.0	9.2
		실업	1.1	1.0
		비경제활동	88.9	89.8

주 : 18통합표본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6→7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90.0%) 순으로 높았다. 2022 → 2023년도와 비교할 때, 20대와 30대의 취업지속확률이 1%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취업 현황이 좋아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40대와 60대는 취업지속확률은 각각 0.1%포인트 소폭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23 → 2024년도의 경우 20대는 78.5%인 반면, 30대 82.8%, 40대 85.7%, 50대 88.7%,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5.1%이다. 청년의 비경제활동 지속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 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

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업자가 취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연령대별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20대, 50대는 낮아졌고, 30대, 40대, 60대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업자의 표본 수가 적어서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18통합표본)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5차('22)→6차('23)	6차('23)→7차('24)
20대	취업	취업	90.3	91.7
		실업	2.7	1.8
		비경제활동	7.1	6.5
	실업	취업	41.3	37.5
		실업	19.2	19.6
		비경제활동	39.6	43.0
	비경제활동	취업	20.5	18.1
		실업	4.8	3.4
		비경제활동	74.7	78.5
30대	취업	취업	93.9	95.1
		실업	1.6	1.2
		비경제활동	4.5	3.8
	실업	취업	38.9	47.9
		실업	21.2	7.1
		비경제활동	39.9	45.1
	비경제활동	취업	14.7	14.3
		실업	2.5	3.0
		비경제활동	82.8	82.8

〈표 8-3〉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5차('22)→6차('23)	6차('23)→7차('24)
40대	취업	취업	96.6	96.5
		실업	0.6	0.4
		비경제활동	2.8	3.1
	실업	취업	38.6	58.8
		실업	11.9	12.5
		비경제활동	49.5	28.8
	비경제활동	취업	15.2	13.3
		실업	0.8	1.0
		비경제활동	84.1	85.7
50대	취업	취업	95.9	96.3
		실업	0.5	0.3
		비경제활동	3.6	3.4
	실업	취업	54.1	39.3
		실업	4.2	-
		비경제활동	41.7	60.7
	비경제활동	취업	12.0	10.9
		실업	0.9	0.4
		비경제활동	87.1	88.7
60대	취업	취업	90.1	90.0
		실업	0.4	0.5
		비경제활동	9.5	9.5
	실업	취업	32.6	54.5
		실업	6.1	11.5
		비경제활동	61.4	34.1
	비경제활동	취업	5.1	4.8
		실업	0.2	0.1
		비경제활동	94.7	95.1

주 : 18통합표본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6→7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력이 높을

수록 취업 지속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2023 → 2024년도 기준 100명 가운데 89.6명이지만,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4.5명, 대졸 이상의 경우 95.9명으로 높아진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2023 → 2024년도 기준 중졸 이하에서 95.4%, 고졸에서 90.4%, 전문대졸의 경우 80.3%,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85.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에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4.4%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8.9%로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18.0%, 12.4%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18통합표본)

(단위 : %)

	이전상태	이후상태	5차('22)→6차('23)	6차('23)→7차('24)
중졸 이하	취업	취업	91.7	89.6
		실업	0.2	0.4
		비경제활동	8.2	10.0
	실업	취업	22.8	39.0
		실업	7.5	-
		비경제활동	69.7	61.0
	비경제활동	취업	5.0	4.4
		실업	0.2	0.1
		비경제활동	94.9	95.4
고졸	취업	취업	93.1	94.5
		실업	1.1	0.7
		비경제활동	5.8	4.8
	실업	취업	50.3	40.1
		실업	5.7	15.1
		비경제활동	44.0	44.7
	비경제활동	취업	10.2	8.9
		실업	1.0	0.7
		비경제활동	88.8	90.4

〈표 8-4〉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5차('22)→6차('23)	6차('23)→7차('24)
전문대졸	취업	취업	93.7	94.6
		실업	1.3	1.2
		비경제활동	5.0	4.3
	실업	취업	51.0	54.3
		실업	8.5	9.0
		비경제활동	40.6	36.7
	비경제활동	취업	19.3	18.0
		실업	2.8	1.7
		비경제활동	77.9	80.3
대졸 이상	취업	취업	95.4	95.9
		실업	0.8	0.4
		비경제활동	3.7	3.7
	실업	취업	33.1	42.5
		실업	25.5	15.0
		비경제활동	41.4	42.5
	비경제활동	취업	16.4	12.4
		실업	0.9	2.2
		비경제활동	82.7	85.4

주 : 18통합표본 5→6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6→7차 계산에는 5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제 9 장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연구 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배분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기본조사 외에 시의성 있는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거나 기본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부가적인 질문을 실시해 왔다. 예를 들면 청년층(3차, 9차, 19차 조사), 중고령자 및 장년층(6차, 18차 조사) 등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 근로시간과 여가(7차 조사),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조사), 고용형태(10차, 21차 조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가조사, 그밖에 교육(11차 조사), 삶의 인식(18차 조사), 의사결정(20차 조사), 비임금근로(22차 조사), 코로나19(23~25차 조사), 건강(26차 조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 27차 조사에서는 17차(시간 사용과 삶의 질)에 이어 다시 한번 시간 사용을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개인의 시간 사용은 건강 및 생산성, 일·생활 균형,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노동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은 「한국노동패널 1~27차 통합설문지」³⁶⁾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2절 분석 결과³⁷⁾

27차 부가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평일(월~금)과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각각)에 대해 각 활동에 할애한 시간(총 24시간 기준)을 10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일을 하는 경우 -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가장 최근의 평일은 일을 한 평일(휴가, 휴무일 제외)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부가조사 응답자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17차 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응답자 특성별(예. 취업상태, 성별, 연령 등)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전 체

〈표 9-1〉은 각 조사 대상일, 즉 가장 최근 평일, 토요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부가조사 응답자 전체에 대한 각 활동별 평균 시간 사용량을 나타낸다. 27차 기준, 평일에는 수면(438.5분(7.3시간)) 이외에는 평균적으로 주된 취업활동(257.5분(4.3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으며, 주말로 갈수록 여가, 종교 및 교제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취업활동 시간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요일에는 여가활동 시간이 333.7분(5.6시간)으로 수면을 제외한 전체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가활동 중 미디어 이용(255.0분(4.3시간))과 교제활동 중 가족·친지 교제(91.7분(1.5시간))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취업활동과 관련된 통근시간과 학업 관련 시간은 주중에 집중되어 있다.

36)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https://www.kli.re.kr/klips/index.do>)에서 다운로드 가능.

37) 본 장에서는 26차 건강 부가조사 분석에서와 같이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가 거의 없어, 가중치 누락(미부여자)으로 인한 문제 회피와 가독성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코드북과 동일 수치)를 제시하였다.

〈표 9-1〉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27차)

(단위: 분)

활동			평일	토요일	일요일
수면			438.5	461.5	474.9
개인관리			138.3	141.6	143.6
일자리 관련	통근시간		30.5	8.9	2.8
	주된 취업활동		257.5	89.4	32.6
	부업		1.1	1.2	0.9
	구직활동		1.6	1.0	0.7
가사 관련	자녀 돌봄		19.6	28.7	28.9
	자녀 외 가족 돌봄		4.4	5.4	5.2
	가사활동		92.5	112.5	116.8
학습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55.9	38.8	32.8
	통학시간		5.3	1.5	1.0
여가, 문화 등	여가활동	전체	242.4	320.4	333.7
		미디어 이용	202.1	245.8	255.0
		문화 및 관광 활동	5.8	29.2	35.7
		운동	23.7	29.1	25.7
	종교 활동		4.3	6.3	35.1
	참여 및 봉사 활동		4.3	2.8	3.4
교제 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대면 비대면 교제		46.0	79.7	91.7
	직장 동료 등과의 전화 및 모임		7.0	5.8	3.6
	친구, 계모임 등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		49.2	78.1	71.8
기타	반려동물 돌봄		2.9	3.7	3.9
	그 외 기타		38.8	52.6	56.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표 9-2〉는 27차(2024)년도 조사 결과(〈표 9-1〉과 동일)와 17차(2014)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시간 사용 변화를 보여 준다. 비교 결과, 10년 전 대비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교제 활동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평일 기준 320.2분(5.3시간)에서 257.5분(4.3시간)으로 1시간 정도(약 20%) 감소했으며, 교제활동은 평일 기준 35분에서 102.2분으로, 일요일 기준 79.1분에서 167.1분으로

〈표 9-2〉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17차 및 27차)

(단위: 분)

활동			17차			27차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수면			449.9	478.9	499.7	438.5	461.5	474.9
개인관리			141.5	138.0	150.1	138.3	141.6	143.6
일자리 관련	통근시간					30.5	8.9	2.8
	주된 취업활동		320.2	214.1	113.5	257.5	89.4	32.6
	부업		0.5	0.2	0.3	1.1	1.2	0.9
	구직활동		1.2	1.1	1.4	1.6	1.0	0.7
가사 관련	자녀 돌봄		27.7	30.7	29.6	19.6	28.7	28.9
	자녀 외 가족 돌봄		5.0	3.4	3.4	4.4	5.4	5.2
	가사활동		91.0	92.2	104.4	92.5	112.5	116.8
학습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47.8	40.5	25.5	55.9	38.8	32.8
	통학시간					5.3	1.5	1.0
여가, 문화 등	여가 활동 ¹⁾	전체	254.4	333.0	370.8	242.4	320.4	333.7
		미디어 이용				202.1	245.8	255.0
		문화 및 관광 활동				5.8	29.2	35.7
		운동				23.7	29.1	25.7
	종교 활동		5.3	2.9	30.5	4.3	6.3	35.1
	참여 및 봉사 활동		1.3	0.9	0.4	4.3	2.8	3.4
교제 활동	가족 및 친지와의 대면 비대면 교제 ³⁾		5.9	15.4	34.8	46.0	79.7	91.7
	직장 동료 등과의 전화 및 모임		4.7	6.7	3.4	7.0	5.8	3.6
	친구, 계모임 등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		24.4	41.5	40.9	49.2	78.1	71.8
기타	반려동물 돌봄 ¹⁾					2.9	3.7	3.9
	그 외 기타		9.7	12.1	13.1	38.8	52.6	56.6
통근 및 통학 시간 ²⁾			49.6	28.4	18.2	35.8	10.4	3.7

주 : 1) 17차에서는 여가 활동 하위 부문, 반려동물 돌봄을 조사하지 않았음.

2) 17차에서는 통근 시간과 통학 시간을 통합하여 조사하였음. 표에 기재된 27차의 수치는 각각 조사된 통근 시간과 통학 시간을 합친 수치임.

3) 17차에서는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 및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조사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2014)년도 및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크게 증가했다. 교제활동 중 특히 가족 및 친지와의 교제 시간이 평일 5.9분에서 46.0분으로 급증한 점은 코로나19 이후 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자녀돌봄과 가사 활동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 내 돌봄 및 가사 부담 구조가 지난 10년간 크게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 특성별

가. 취업 여부

〈표 9-3〉은 취업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 27차 기준 주요 활동별 시간 사용을 비교한 결과이다. 취업자는 평일 기준 주된 취업활동에 459.9분(7.7시간)을 사용하며, 미취업자는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114.9분(1.9시간))과 여가활동(342.0분(5.7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주말에는 취업자의 여가시간이 평일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미취업자의 시간 구조 변화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일상 시간 사용/배분 구조의 주요 결정 요인임을 보여준다.

〈표 9-3〉 취업상태별 시간 사용(27차)

(단위: 분)

활동		취업상태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일자리 관련	통근	미취업자	0.0	0.0	0.0
		취업자	54.5	15.9	5.0
		계	30.5	8.9	2.8
	주된 취업활동	미취업자	0.0	0.0	0.0
		취업자	459.9	159.8	58.2
		계	257.5	89.4	32.6
가사 관련	자녀 돌봄	미취업자	22.8	22.9	21.0
		취업자	17.2	33.2	35.2
		계	19.6	28.7	28.9

〈표 9-3〉의 계속

활동		취업상태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사 관련	가사 활동	미취업자	117.6	119.9	117.4
		취업자	72.8	106.7	116.2
		계	92.5	112.5	116.8
학습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미취업자	114.9	71.2	57.9
		취업자	9.5	13.4	13.0
		계	55.9	38.8	32.8
여가, 문화 등	여가 활동	미취업자	342.0	357.1	348.4
		취업자	164.2	291.5	322.1
		계	242.4	320.4	333.7
교제 활동	가족 및 친지와 의 대면 비대면 교제	미취업자	60.8	84.2	90.9
		취업자	34.4	76.2	92.2
		계	46.0	79.7	91.7
	친구, 계모임 등 개인적인 전화 및 모임	미취업자	84.6	84.4	70.4
		취업자	21.3	73.1	72.9
		계	49.2	78.1	71.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표 9-4〉는 27차 기준 취업 여부에 따른 수면시간 분포를 제시한다. 통상 성인의 하루 적정 수면시간으로 권장되는 7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으로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비율은 전체의 79.8%로, 취업자(76.5%)보다 미취업자(84.0%)가 높게 나타났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반적으로 수면시간이 늘어나며, 주말의 휴식 회복 기능이 확인된다. 특히 일요일에는 7시간 이상 수면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91.3%) 수준으로 높아지며,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미취업자(90.6%)보다 취업자(91.8%)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에 한해 일자리 관련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9-5〉와 〈표 9-6〉에 제시된 결과와 같다. 우선 〈표 9-5〉는 27차 기준 취업자의 통근 시간 분포를 보여준다. 평일에는 60분 이내 통근자가 80.2%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1시간을 초과하는 장거리 통근자도 약 20%인 것으로 나타나

〈표 9-4〉 취업상태별 수면 시간(27차)

(단위: 명, %)

		미취업자		취업자		전 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평일	7시간 미만	1,627	16.0	3,044	23.5	4,671	20.2
	7시간 이상	8,568	84.0	9,925	76.5	18,493	79.8
	계	10,195	100.0	12,969	100.0	23,164	100.0
토요일	7시간 미만	1,079	10.6	1,702	13.1	2,781	12.0
	7시간 이상	9,116	89.4	11,267	86.9	20,383	88.0
	계	10,195	100.0	12,969	100.0	23,164	100.0
일요일	7시간 미만	954	9.4	1,068	8.2	2,022	8.7
	7시간 이상	9,241	90.6	11,901	91.8	21,142	91.3
	계	10,195	100.0	12,969	100.0	23,164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표 9-5〉 취업자 통근 시간(27차)

(단위: 명, %)

		평일		토요일		일요일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시간 이하	0분	146	1.1	8,402	64.8	11,245	86.7
	10분	1,628	12.6	985	7.6	581	4.5
	20분	881	6.8	414	3.2	190	1.5
	30분	1,893	14.6	739	5.7	244	1.9
	40분	1,212	9.3	457	3.5	128	1.0
	50분	323	2.5	101	0.8	29	0.2
	60분	4,313	33.3	1,257	9.7	391	3.0
	전체	10,396	80.2	12,355	95.3	12,808	98.8
1시간 초과 1시간 30분 이하		991	7.6	256	2.0	68	0.5
1시간 30분 초과 2시간 이하		1,233	9.5	318	2.5	78	0.6
2시간 초과		349	2.7	40	0.3	15	0.1
전 체		12,969	100.0	12,969	100.0	12,969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통근 부담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통근시간은 현저히 짧으며, 통근자 수도 적어 주말 근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6〉을 보면, 27차 기준 취업자의 평일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8시간

〈표 9-6〉 취업자 주된 취업활동 시간(2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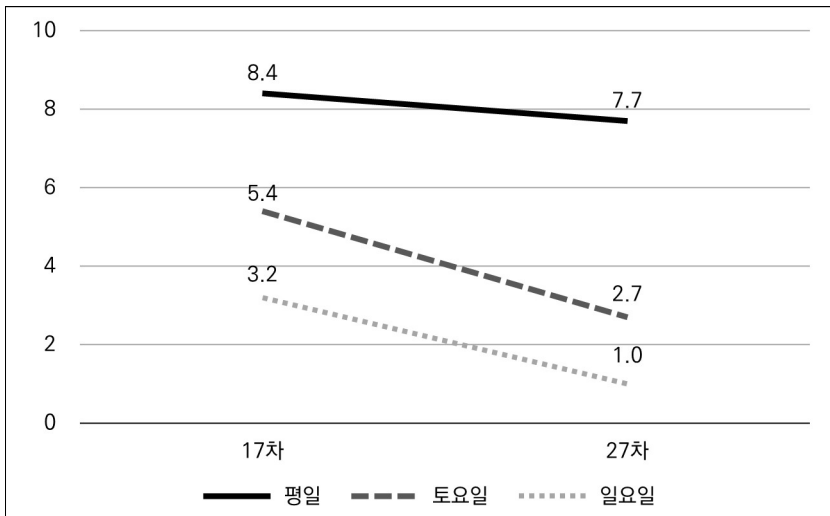
(단위: 명, %)

	평일		토요일		일요일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시간	149	1.1	8,335	64.3	11,208	86.4
4시간 미만	620	4.8	257	2.0	192	1.5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899	6.9	614	4.7	287	2.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319	10.2	894	6.9	340	2.6
8시간	6,589	50.8	1,460	11.3	415	3.2
8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081	23.8	1,213	9.4	415	3.2
10시간 초과	312	2.4	196	1.5	112	0.9
전 체	12,969	100.0	12,969	100.0	12,969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그림 9-1〉 취업자의 주된 취업활동 시간(17차 및 27차)

(단위: 시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2014)년도 및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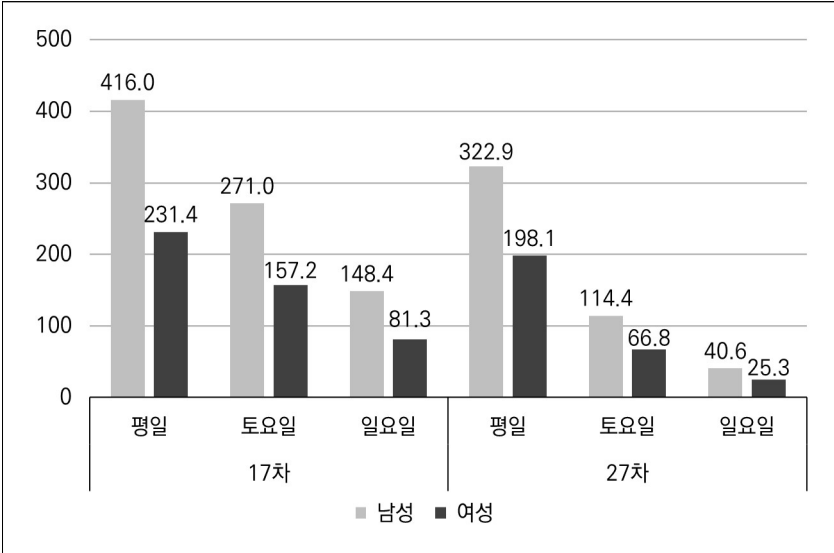
정규 근무 형태가 절반 이상(50.8%)으로 가장 많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근무(휴무)자(0시간)가 각각 64.3%, 86.4%로 다수를 차지하여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주 5일제 근무 패턴이 비교적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9-1]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17차 대비 27차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주된 취업활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평일 기준 평균 주된 취업활동 시간이 8.4시간에서 7.7시간 수준으로 줄어, 노동시간 단축 경향이 확인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취업활동 시간 역시 17차 대비 27차에서 각각 2시간 이상씩 감소하여, 주말 근무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 5일제 정착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워라밸 인식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나. 성 별

[그림 9-2]는 성별에 따른 주된 취업활동 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상

[그림 9-2] 성별 주된 취업활동 시간(17차 및 2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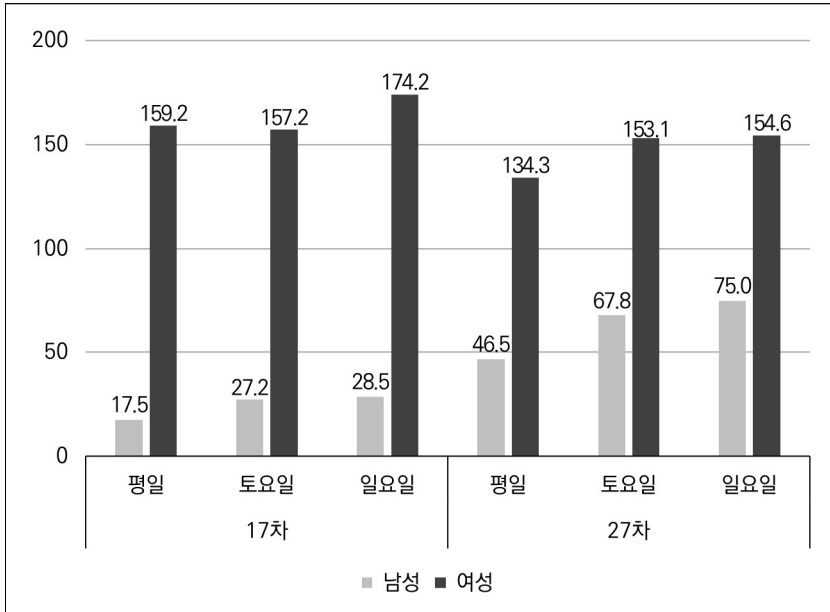
(단위: 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2014)년도 및 제27차(2024)년도 원 자료.

[그림 9-3] 성별 가사활동 시간(17차 및 27차)

(단위: 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2014)년도 및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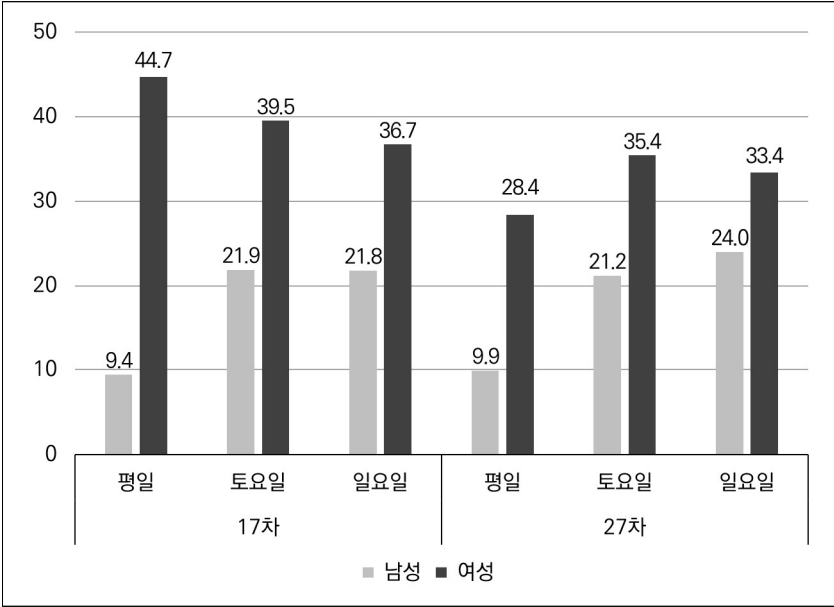
대로 남성의 취업활동 시간은 여성보다 일관되게 길게 나타났으나, 10년 전 대비 남녀 모두에서 근로시간 단축 경향이 발견되며, 남녀 간 상대적 격차 또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9-3]은 성별 가사활동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여성의 가사활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 대비 크게 높으나, 17차 대비 27차 조사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남성의 가사시간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며 성별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관찰된다. 이는 가사노동 분담 및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활동에 2배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4]는 자녀돌봄에 투입된 시간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여성의 자녀돌봄 시간은 27차 기준 남성의 약 2~3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말보다 평일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17차와 비교하여

[그림 9-4] 성별 자녀돌봄 시간(17차 및 27차)

(단위: 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7차(2014)년도 및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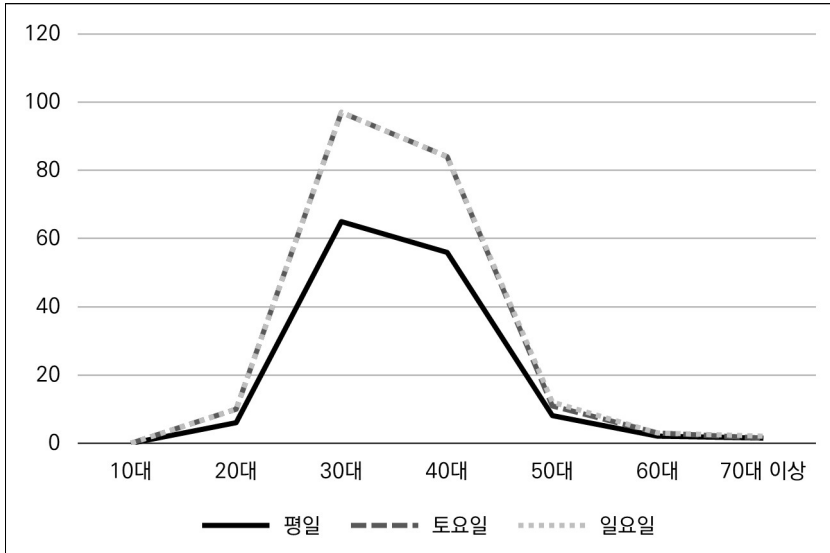
보면, 가사활동과 유사하게, 10년 전 대비 전체 자녀돌봄 시간이 남성은 다소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하여 성별 격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주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연령

[그림 9-5]는 27차 기준 연령대별 자녀돌봄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30대와 40대에서 자녀돌봄 시간이 가장 높으며(평일 기준 각각 65.5분, 56.0분), 이는 해당 연령층이 자녀양육의 중심 세대임을 반영한다. 반면 20대 이하 및 50대 이상에서는 자녀돌봄 시간이 현저히 낮아, 생애주기별 가족구조 변화가 시간 사용 패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요일별로는 거의 전 연령대에서 평일보다 주말에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

[그림 9-5] 연령대별 자녀돌봄 시간(27차)

(단위: 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표 9-7〉 연령대별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시간(27차)

(단위: 분)

연령대	평일	토요일	일요일
10대	516.9	287.8	239.0
20대	176.6	123.1	100.4
30대	25.8	28.0	24.1
40대	12.3	14.7	13.8
50대	11.3	13.7	12.7
60대	9.6	10.1	9.6
70대 이상	9.9	7.2	5.7
전 체	55.9	38.8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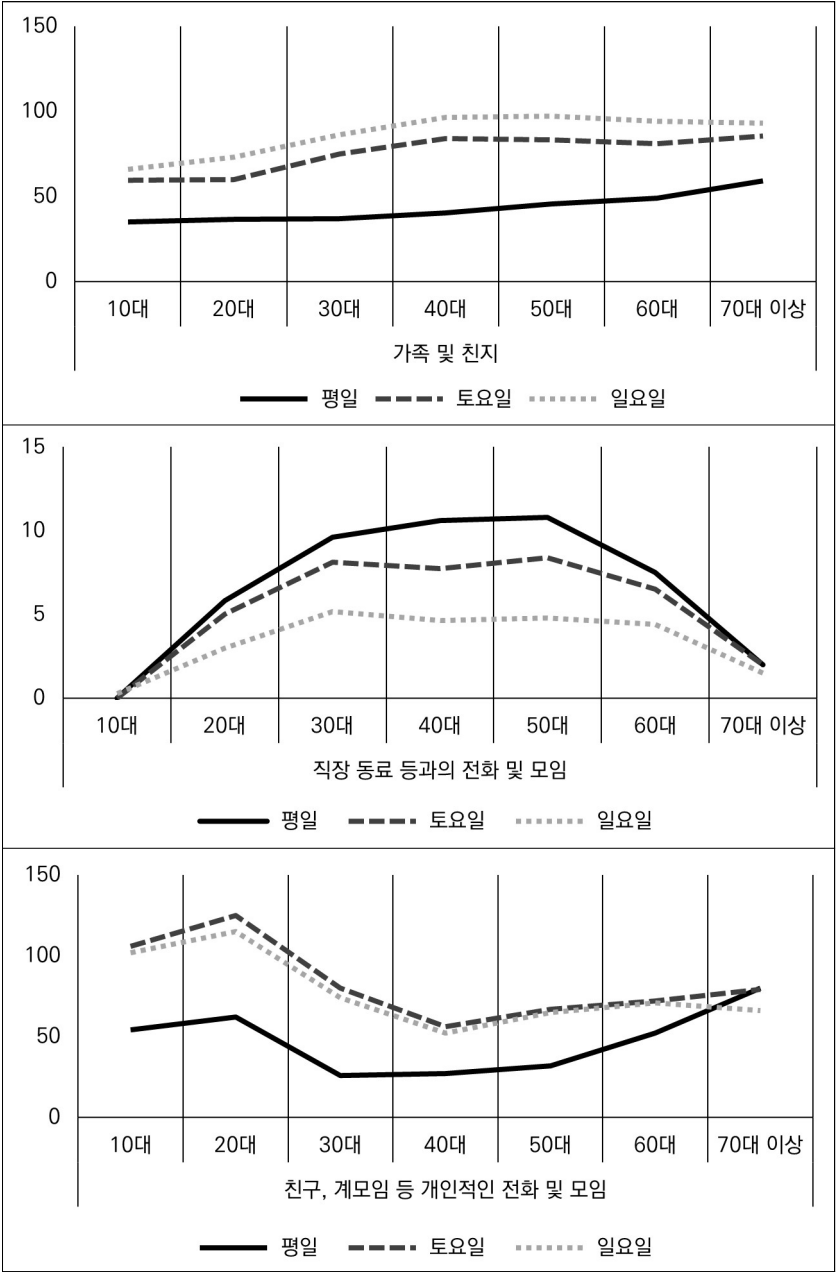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9-7〉에는 연령대별 학업 및 자기개발 활동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예상대로 10대의 평균 학업·자기개발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아 평일 516.9분

[그림 9-6] 연령대별 교제활동 시간(27차)

(단위: 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7차(2024)년도 원자료.

(8.6시간)에 달하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다만 20대에 서도 일정 수준의 학업·자기개발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교육 및 자격취득 중심의 활동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9-6]은 연령대별 교제활동 시간을 보여준다. 가족 및 친지와의 교제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길어지며,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반면 친구 등 사적인 교제시간은 20대에서 가장 활발하고 직장 동료와의 교제시간은 주된 생산연령인 30~50대에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세대별 사회적 관계망의 중심축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족 중심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사용/배분 실태와 변화, 특성별 차이를 살펴 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7차 기준 전반적인 시간 사용 실태(표 9-1 참조)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하루는 수면, 취업활동, 여가활동이 핵심을 이루며, 요일별로 뚜렷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평일에는 근로 및 통근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활동이 전체 시간의 약 5시간(4.85시간)을 차지하는 반면, 주말에는 이 비중이 급감하고 여가 및 교제 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일요일의 여가 활동 시간은 333.7분(5.6시간)으로, 평일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수면은 요일에 따라 20~40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평일보다 주말에 더 길게 나타나 노동의 회복적 성격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 시간은 평일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이나 사회적 교제활동은 주말 중심으로 배치되는 등 전형적인 ‘근로-휴식 이원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0년 전 대비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교제활동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평일 기준 320.2분(5.3시간)에서 257.5분(4.3시간)으로 1시간 정도(약 20%) 감소했으

며, 교제활동은 평일 기준 35분에서 102.2분으로, 일요일 기준 79.1분에서 167.1분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제활동 중 특히 가족 및 친지와의 교제 시간이 평일 5.9분에서 46.0분으로 급증한 점은 코로나19 이후 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자녀돌봄과 가사활동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 내 돌봄과 가사 부담 구조가 지난 10년간 크게 완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응답자 특성 중 취업상태별 결과부터 살펴보면(표 9-3~표 9-6 참조), 취업 여부가 하루 시간 구성의 핵심 결정 요인임을 보여준다. 27차 조사 결과, 취업자는 평일 기준 하루 7시간 40분가량을 주된 취업활동에, 55분을 통근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며, 여가 및 학습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자는 여가활동(342.0분)과 학업·자기개발(114.9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취업자의 주된 취업활동 시간의 분포(표 9-6 참조)를 보면, 평일 기준 8시간 일하는 취업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약 2.4% 존재한다. 또한 17차 조사결과와 비교(그림 9-1 참조)해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주된 취업활동 시간은 단축되었으며, 특히 주말 근로 감소가 뚜렷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내 근로 시간 단축과 주 5일제 근무의 제도적 정착, 워라벨 인식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면시간의 분포(표 9-4 참조)는 취업자보다 미취업자의 수면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으며, 주중에는 취업자의 4분의 1가량(23.5%)이 일평균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어 노동강도/(여부)와 권장수면 부족 간의 연관성이 확인된다. 반면 주말에는 대부분의 취업자가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서 주중의 부족을 채우는 경향을 보인다.

응답자 특성 중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그림 9-2~그림 9-4 참조), 여성은 여전히 가사와 자녀돌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남성은 주된 취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10년 전 대비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가 소폭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는 등 완만한 성별 분리(성역할 분업)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에 따른 차이(표 9-7과 그림 9-5, 그림 9-6 참조)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뚜렷한 생활 패턴의 차이가 확인된다. 학업·자기개발 시간은 10대(평일 516.9분(8.6시간))에서 가장 높고, 이후 급감하여 30대 이후에는 하루 평균 30분 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생애주기별 학습 집중기와 경제활동기로의 전환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녀돌봄 시간은 30대와 40대에서 피크(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한다. 교제활동 시간은 친구 등 사적인 교제는 20대에서, 직장 관련 교제는 30~50대에서 가장 활발하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가족·친지 중심의 교류로 전환된다. 즉, 청년층은 사회적 관계와 여가 중심, 중년층은 일·가정 병행, 고령층은 가족·휴식 중심의 시간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7차 시간 사용 부가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이 '노동' 중심에서 '여가·가족'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벨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별·취업상태별 격차는 여전히 크며, 시간 사용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제도적 단축이 상당히 정착된 가운데, 통근과 초과근로 부담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사 및 돌봄 측면에서는 가족 내 무급노동의 성별 편차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본 결과는 개인 및 가족의 시간 활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執筆陣

-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정현상(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권익성(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홍준(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 | |
|------------|--|
| ▪ 발행연월일 | 2025년 12월 26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5 정가 8,000원

ISBN 979-11-260-0801-8



한국노동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